

Living Water

생수의 강

척 스미스 목사 지음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은혜로운 삶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신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본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일을 훌륭하게 행하셨습니다.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 14:9; 10:30)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거니신 바로 하나님 그 본체이십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뜻 느낄 수 있었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으실 때는 사람들의 종교행위를 정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 더 정확하게 말해서 종교행위에 빠져있는 사람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시겠다는 결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구원의 기회를 저버린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을 철저히 가르치셨고 많은 계명들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날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지시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은 지금 이 세상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 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주님에게로 이끄시기 위해 모으시는 이도 성령이시고 교회도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라 하는데 “옆에서 돕는 자” 란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형편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우리 생활에서 위급한 일이 일어날 때 돌보시기 위해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어느 형편 어느 상황을 당하든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 거기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와 개인적인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잘 알되 철저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위로와 도움과 힘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바라는 마음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이 성령님과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아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의 영광과 선하심이 당신에게 잘 나타내져서 당신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림으로 그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은사를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영원하신 우주만물의 창조주로 혹은 우주만물에 편만한 어떤 능력이나 권세자로 알지만 말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

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이 책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굶주림과 갈급함을 주님이 당신 속에 심어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님과 개인적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됨으로 당신의 삶이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 변화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성령님의 인도와 건강과 능력과 위로와 권세를 얻기 위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에게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 오셔서 그의 영광으로 흠뻑 적셔주시고 따라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빛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책의 쪽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소중한 진리의 말씀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 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성령님께 당신 자신을 드러서 그 분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채워 주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정하시고 당신의 삶을 성령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 누구에게나 주시고자 하는 성령과 함께 걷는 은혜롭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 1 부

성령은 누구신가?

인격체 성령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
 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 요한복음 14:16-17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 분 곁에 있는 것이 참 좋은 일이었습

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형편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곁에 있기만 하면 아무 것도 걱정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오래 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이 척척 해결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별 필요가 없는 세금을 세리가 내라고 강요해도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잡으면 그 입안에 동전이 있을테니 그 것으로 세금을 주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뭐가 걱정인가!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가! 무엇이든지 고쳐주시고 두들겨 맞춰 주시고 손끝에 닿는 일은 아무 일이나 잘 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당신을 보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다고 칩시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떡 다섯 덩어리 물고기 두 마리 가진 어린 소년이 있으니 군중들을 옹기종기 앉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나 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옆에 계시면 참 편리한 분이십니다.

혹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당신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농간을 부려도 진땀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 궁리할 필요 없고 주님에게 넘기면 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나 만약에 바다 한 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배가 가라앉고 있는 중이라면 어떡하나? 마찬가지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잔잔하게 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예수님이 곁에 항상 계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 사실이 바로 제자들이 3년 동안 여러번 반복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깨달은 교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놀랄만큼 편리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아무 걱정이 없이 마음이 놓이고 든든했습니다. 왜냐면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바람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될 시간이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 때문에 무척 당황하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원했고 따라서 그들의 마음은 즉시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고 말씀을 시작하신 것으로 보아 제자들은 몹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눈치 채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 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 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한 14:16,17)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은 사실이고 또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이야. 그러나 걱정 말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거야. 그리고 그 동안도 너희를 불안하게 버려 두지 않을거고 아무 도움도 없이 놔두고 떠나 버리지는 않을거야; 절대로 너희들만 불안한 채로 두고 가지는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18에서 “고아” 라는 헬라어의 단어 “*올파누스*” 를 사용함으로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버지께 기도해서 다른 “보혜사” 를 제자들에게 보내 주시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 인데 헬라어 전치사 “*파라*” 는 “함께” 혹은 “곁에” 라는 뜻이고 “*클레토스*” 는 “부름 받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돕는 자를 보내 항상 그들 곁에서 도움을 주고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도움은 다른 아닌 돕는 자 자신이 그들의 도움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본체

성령은 하나님 자체이시며 당신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지낼 수 있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는 우주에 편만한 어떤 비 인격체인 힘이나 요소가 아니라 성령님은 당신에게 말할 수도 있고 당신도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인격체이십니다. 당신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성령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와 신자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시하고 능력 주시도록 교회 위에 두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 14:16)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후

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게 될 것에 대비하도록 일러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생소한 방법은 아닙니다.

“또 다른 보혜사” 라고 할 때 “다른” 으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알로스” 인데 그 뜻은 “같은 종류 혹은 같은 수준의(품질의) 다른 하나” 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 “다른”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헤테로스” 는 “다른 수준의(품질의) 것” 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렌트하러 가서 “소형차 Geo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미안합니다만 예약하신 Geo는 지금 없고 대신 다른 차 링컨 타운카를 같은 값에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테로스” 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같은 수준(품질)이 아니지요. 그러나 한편, 타운카를 예약했는데 “미안합니다. 타운카는 없구요 대신 다른 차 캐딜락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했다면 다른 차이긴 하지만 같은 수준의 같은 정도의 같은 종류의 다른(알로스) 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의 뜻은 성령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동질의 요소, 특히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요점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 나는 떠나야 해. 그러나 너희들만 혼자 있게 하지 않을거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알로스-나와 같은 수준의, 같은 종류의) 보혜사를 보내 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형편에서도 너희들을 지키고 도와준 것 같이 이제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하던 것과 똑같이 어떤 형편에서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신가?

우리가 성령님과 그의 하시는 사역을 완전히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해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성령님은 실로 인격체라는 사실이며 우리가 그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성령님을 단지 어떤 요소나 힘으로나 권세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가 불가능합니다. 물체나 어떤 힘과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 소켓과 친해지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강력한 증기 터어빈이나 자동차 엔진과 사귀어 보려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없을 것입니다. 어림없는 일이지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어떤 물체로나 힘으로나 인격적이 아닌 우주에 편만한 어떤 세력으로 생각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를 찾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당신 곁에서 도울 수 있도록 보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고 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한 공격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듯 성령님의 신성을 공격합니다. 여호와와의 종인이 그러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파수대의 지도자들은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고 단지 물체나 영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그” 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 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 의하면 우리는 성령님이라 부르지 말아야 하며 단지 선풍기에서 불어 나오는 바람처럼 전혀 인격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된 영향력이나 힘인 거룩한

영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에 아리우스파의 이단 교리와 같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아리우스파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리우스(주후256년-326년)에 의해 주창되었으므로 아리우스파라 하는데 아리우스는 하나님 아버지 만이 하나님이시오 아들과 성령은 그보다 못하게 창조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품으로나 권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신성인 불멸성, 절대주권, 전지성, 선하심과 정결하심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호와와의 증인은 교회 초기의 이 아리우스파의 불경한 이단 교리의 많은 부분을 도입했습니다. 1600년보다 훨씬 전에 이들의 모든 주장들이 이미 반박되어지고 이단으로 규정지어진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령이 완전한 인격체이심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단 종파인 “Jesus Only” 교단에서는 성령님이 인격체이신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삼위중 한 분이심을 부인합니다. 이 이단 종파는 미국 남부에서 꽤 막강한 위세를 떨쳐 서부 쪽으로는 아리조나까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들의 교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그분이 바로 성부요 성자요 성령이란 주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세 인격체는 실은 한 하나님이 세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성, 의지, 감성

어떤 존재가 인격체로 간주 받으려면 어떤 인격적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첫째가 지성이요; 둘째가 의지요; 셋째로 감성입니다. 이 셋은 인격체가 존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입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인격체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바위, 자전거, 꽃, 나무, 심지어 컴퓨터 등은 인격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것들이 아무리 요긴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인격체로 취급받지는 못합니다. 그것들은 지성이나 의지나 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분은 분명히 지 정 의를 모두 갖추신 인격체이심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차례로 이 세 가지 속성에 대해 알아보시다.

1. **지성.** 고린도전서 2:10,11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성령의 지식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이 성령님에게 귀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을 갖춘 인격체만이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깊은 것들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고 말합니다. (고전 2:13)

바울이 여기서 성령에 관해 말한 것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둘째로,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님은 아신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분명히 지성을 요구하는 일들이며, 이 지성은 인격체의 기본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지성을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2. *의지*. 또 성령은 의지를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관해 바울이 얘기하면서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눠 주신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11절) 각 성도들이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할런지를 결정하시는 이는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의지가 있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도 사도들은 교리에 관해 판단하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줄 알았노니” 라고 함으로써 성령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과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성경이 얘기하기를 성령이 그의 사역자들을 어떤 지역에 가지 못하도록 막음으로 의지를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사도행전 16:6,7).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야 어떤 일을 못하게 막기도 하고 다른 계획을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셨으니 의지를 갖추신 인격체이심이 틀림없습니다.

3. *감성*. 성령은 감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고 경고했습니다 (에베소서4:30). 이처럼 구약에서도 이사야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 고 적고 있습니다 (이사야 63:10). 당신도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물체나 비 인격체에게 하기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저 화초를 슬프게 하지 말라” 혹은 “네가 저 화초를 근심하게 해서 너한테 화가 나있어” 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어떤 것이나 물체에게는 이런 말을 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 때문에 속상해지기도 하고 근심도 하는 인격체이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사랑에 관해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로마서 15:30). 성령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지요?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는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 자주 말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상하게도 성령님의 사랑은 설교에 별로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랑도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는 어떤 화초나 꽃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좋아하더라도 “저 화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에 대해 아주 정열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를 사랑해. 실로 그 분은 너에 대해 정열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표현입니다. 또 이 말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인칭대명사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쓰는 것

성령을 일컬을 때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란 단어 자체는 중성인데도(이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인격체로 알지 않고 물체로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성령을 일컬을 때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 열 여섯 번 정도나 성령의 대명사로 *에케이노스*를 쓰고 있는데 그 것은 남성 인칭대명사인 “he”입니다. 요한복음 14:26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에케이노스*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26에서도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에케이노스*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 그리고 또 16:13에서도: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 같은 인칭대명사가 요한복음 14:16,17과 16:7-14에도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일컬을 때 쓰인 이 모든 인칭대명사들을 보면 그는 분명히 인격체이심이 틀림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체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성령을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세 군데만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들의 거짓말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말합니다(행전5:3).

성령이 거스림을 받기도 합니다. 스테반은 사도행전 7:51에서 동료 유대인들에게 답변하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은 훼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3:28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물론 인격체가 아닌 물체에게 거짓말이나 거스리거나 훼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성령님에게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처럼 행동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아닌 어떤 물체가 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3:2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했고,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도 바울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라고 했고, 또 계시록 2:7에서도 또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함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중보도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26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26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심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요한복음 14:26은 말하고 있으며, 또한 느헤미야 9:20은,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13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다섯째로, 성령님은 사람과 겨루시기도(*King James 번역*) 하십니다. 창세기 6:3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strive with) 아니하리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성령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울은 복음이 선포된 것을, “표적과 기사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고 말했습니다(롬 15:18,19).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신나는 일인지요! 우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지라” (행전 16:6,7).

오직 인격체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일은 단지 지시적으로 알고만 있을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이러한 모든 사랑과 관심과 더불어 은혜로운 관계를 가지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당신이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당신은 성령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게 되며 당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의 손길을 따라갈 때 당신은 온갖 놀랍고도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일들이 서로 엮어지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지요.

저는 여러 해 전에, 심한 자동차 사고로 척추를 다친 우리 교회 여성도를 심방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세인트 조셉 병원의 병실에 도착했을 때 여섯 환자가 한 방에 있는 병실이었는데 그 중에 다른 두 환자도 우리 교회 성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

꺼번에 세 사람을 심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다른 두 성도가 그 곳에 있는지 몰랐습니다만, 제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제가 자기를 찾아 온 것인 줄로 알고 기뻐했습니다.(저는 거기서 세 사람 모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병실을 나와서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서 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세인트 조셉 병원에 병실이 몇개인지는 몰라도 무지하게 많겠지요, 그 중에 어찌면 그렇게 틀림없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 셋을 한 방에 몰아 놓으시고 제가 한번에 모두를 심방할 수 있도록 하시다니요! 참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후 맨 아래층의 버튼을 분명히 눌렀는데 문이 열리는데 내다보니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로비가 아니고 간호사 대기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층의 버튼을 눌렀구나 생각하면서 엘리베이터에 다시 올라 층 표시등을 쳐다보니까 "G" 즉 아래층이 맞다고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해 있을 때 한 간호사가 딱했던지 로비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써비스 엘리베이터를 타셨어요.” 라고 해서 위를 쳐다보니까 큰 글씨로 “써비스 엘리베이터, 병원 직원용” 이라고 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탈 때 주의를 안 해서 못 봤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저를 안심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녀는 대답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복도로 가시다가 오른 쪽으로 돌면 바로 로비가 나옵니다.”

그녀에게 감사하고 돌아서 나오면서, “어휴 멍청하게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짧은 복도를 따라 내려오는데 한 소녀가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저를 본 순간, “목사님!”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제게 달려와서 품에 안겨 미친듯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그녀를 달래서 가라앉히고서는, “무슨 일이니?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니? 나한테 말해봐, 같이 기도하게,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제 친구,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친구가 지금 막 뇌수술을 받고 있어요. 애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던 중 뇌수술을 받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개는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요. 뇌종양이 이미 퍼져서 걷는 중추신경에 이미.....” 그녀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말을 잇지 못했다. “목사님,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절름발이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성경 몇 구절을 읽어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막막했어요.” 기도가 끝나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 혼자만 안 되겠어요, 저를 도와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보내 주세요.’ 라고요.” 그녀는 잠깐 멈추더니 다시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 때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목사님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 때 저는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내가 엘리베이터를 잘못 탄 것은 단순히 멍청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씨나리오를 미리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때 바로 이 사실이 제 마음속에 닥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

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짜릿하고 흥분된 얘기입니까! 로비로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의 글씨에 주의하지 않아서 잘못 타게 해서 판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용의주도하심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게 하셔서 다른 길로 해서 그 복도로 가도록 인도하신 것이지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제대로 탔더라면 로비로 해서 곧장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 복도로 인도하셔서 절망 가운데서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던 소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당신이 성령 안에서 걸으며 성령의 일을 계속하면 당신도 온몸을 전율케 하는 스릴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양한 분명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언제나 신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흥분시키는 일이라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것들이 아닙니다. 황홀한 경험은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당신과 저의-는 언제나 하나님을 더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더 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것은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과 따뜻하고 밀접하고 더 깊어지는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는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하시며 당신이 그를 더 잘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어떡하시겠습니까?

삼위일체의 신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 디모데전서 3:16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미진진한 추리소설을 좋아합니다. 편안한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서 얽히고 설킨 희한한 사건으로 가득찬 스토리 속에 폭 빠져서 끝까지 읽기도 채 전에 스스로가 결말을 추리하느라 정신없이 읽어 나가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추리가 빗나가기 일수지만 때로는 정확히 들어맞기도 합니다. 그럴때면 “그러면 그렇지, 나도 이 정도면 훌륭한 탐정 못지 않아!” 하며 자화자찬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성경도 최근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추리소설처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사로잡는 미스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미스테리는 한정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풀기 어려운 미스터리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머리로는 그처럼 깊은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주권자이면서 한편 어떻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지 어느 누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백퍼센트 완벽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백퍼센트 완벽한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쪽마다 수많은 난해한 퍼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의 미스테리는 삼위일체일 것입니다.

최고의 미스터리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미스터리임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16에서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mystery of godliness ; 흥정역)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는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실체를 완전하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한정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려 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삼위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삼위일체를 설명하고자 애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범위를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대로 믿으면 됩니다 :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쥬 캠블 모건 목사님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려함에 있어 우리의 큰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요소가 세 형태로 일치로 이루어 존재하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사는 자연 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러한 현상이다’ 하고 설명할만한 어떤 상징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이 우주 물질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묘사할그 어떤 상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그런 비슷한 상징을 하나 찾아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유추 설명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모건 목사님이 말한 것같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충분히 묘사할만한 것이 자연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바울은 이것을 미스테리라고 불렀고, 또 미스테리라면 우리가 이 신비를 논리적인 개념으로 끌어내리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마음은 이 진리에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는 모순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랴면서 한 하나님 안에 셋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를 이해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 것을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격체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는 수학상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 곱하기 하나 곱하기 하나가 다시 하나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삼위 일체는 수학적 계산으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으며, 또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 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다. 실체도 하나이시오, 능력도 하나이시오, 영원히 하나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구약에 나타난 삼위일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신약에서만큼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것을 지적하고 암시하고 선언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80회 정도 언급되었는데, 대부분이 “여호와와 의 신-the Spirit of the Lord”, “하나님의 신-the Spirit of God” 혹은 “성신-the Holy Spirit”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성령이 처음으로 언급된 곳은 창세기 1:2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의 둘째 절부터 이미 성령이 언급된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맨 첫 절부터 이미 성령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로힘* 으로서 복수형입니다.(단수형은 *엘*). 성경에 처음으로

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단수형을 쓰지 않고 복수형을 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엘로힘*이 존칭형 복수 혹은 강조형 복수로 쓰인 것이라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문법으로나 실제 언어사용에 있어서도 근거가 없는 설명입니다. 몇 절 안 내려가서 성경은 “하나님(*엘로힘*)이 가라사대 *우리*(복수 대명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1:26).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라는 말 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복수 대명사로 칭한 것은 소위 “존칭형 복수”로 쓴 것이라는 개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대해 암시를 주는 또 다른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모여 하나님께 외치던 구절을 통해 삼위일체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명기 6:4에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니!” -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세마*라고 하는 것인데 *세마*는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반복해서 외쳐대는 구절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쉬지않고 계속해서 “*세마 이스라엘 야웨 엘로힘 아카드 야웨*”를 외칩니다. 거듭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니”를 외쳐대는 것이지요. 하나이신 하나님은 히브리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 교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마의 문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웨*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고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으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카드*라는 단어는 혼합된 통일을 말하는 것이지 단수적인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연합(*아카드*)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창 2:24) 하셨는데 그 말은 혼합된 통일을 뜻합니다.

단수적인 통일을 말할 때는 다른 히브리 단어 “*아카드*”를 써야 합니다. 만일 세마에 *아카드* 대신에 이 단어를 썼다면 구약에서는 삼위일체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이신 하나님을 외치는 구호에서조차도 복수형의 *엘로힘*과 혼합적 통일을 일컫는 *아카드*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 6:24) 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삼중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보십시오. 여호와와는 하나이신데 왜 세 번이나 이름을 반복합니까? 여호와와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내 이름을 두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 것이 바로 통일된 축복의 삼위일체입니다.

수세기 후에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환상을 보는데 모셔선 스랍들이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사 6:3) 라고 합니다. 왜 세 번씩이나 거룩하다를 반복했을까요? 여기서도 역시 삼중으로 여호와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사야서 48:16에 보면 메시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그 신을 보냈다’ 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며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삼위일체

신약에서도 물론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16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것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님은 내리셨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삼위의 하나님이 이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4:16,17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보내진다는 말씀이지요. 이와 똑같은 약속이 요한복음 14:26에서도 반복됩니다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 모두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실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하셨습니다(마태 28:19).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단수)으로 세례를 주도록 분부한 것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역시 삼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37절)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세 분이 모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 보낸 그의 편지에서 바울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엡 4:4-6). 여기서도 다시 한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선포되었습니다 :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 하나 곱하기 하나 곱하기 하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구절들을 보면 주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령을 삼위 하나님 중 세 번째 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성령이 성부와 성자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의 에베소서 구절을 잘 보면 순서가 뒤바뀐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령이 제일 먼저, 그리고 예수가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언급된 것을.

이와 흡사하게 바울은 로마서 15:30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모두 보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성령이 그 다음,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이 언급되었습니다.

성경구절에 언급된 차례가 먼저이거나 나중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위해 한 군데만 더 예로 들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축복기도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13:13)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먼저, 둘째로 성부 하나님, 성령이 세 번째인 것을 봅니다. 차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성경의 많은 증거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약 성경은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삼위로 계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시면서 한편 독특하시고 따로 계십니다. 이 사실은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본체이심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신성(하나님으로서의 속성)

성령의 신성에 대해 알아보는 다른 방법은 많은 성경구절들이 그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9:14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7-10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신(성령)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십니다. 성령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피해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성령은 전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10,11에서 :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 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는 것이면 무엇이든 성령이 다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므로 성령도 그렇습니다. 그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전능하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게하는 도구로 그녀가 태함을 받았다고 알려줄 때에, 그녀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묻자 천사는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큰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눅 1:35) 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성령이 지극히 큰 능력이심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삼위가 함께 일하셔서 소위 “무염시태” (Immaculate Conception-역자주: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모의 무염시태, 처녀탄생과는 별개의 개념)를 이루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신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

성령의 신성에 대한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5:3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것을 정죄하면서 곧 이어 보태기를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누가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 이란 뜻입니다. 즉 두 분은 같은 분이고 ;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18에서도 바울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고 했는데, 문자에 더 충실하게 번역한 새 번역에는 “주님이신 영으로 말미암아” 로 되어있음으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주님이란 뜻입니다. 두 분은 하나이고 같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일하신 성령

성령께서 하나님으로서 일하신 것이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삼위 모두가 천지창조 사역을 담당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을 보면 예수님도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만물이 그(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울은 골로새서 1:16,17에서 이렇게 보탭니다.

만물이 그(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 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시편을 보면 창조사역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 33:6). *입 기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악*으로서 그 뜻은 “바람” 혹은 “영” 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편 33:6은 “여호와와 말씀(예수님은 물론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성령(입 기운, *루악*)으로 이루었도다” 로 번역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 말씀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다른 증거는 신약에 인용된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흔히 구약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신약에서 성령에 속한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성령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8,9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바울은 이 구절을 사도행전 28:25,26에서 인용하면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하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31,32에서 선지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15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이 여호와가 말했다고 했는데도 신약은 예레미야에게 말한 분은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쓰도록 감동하신 이는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16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라고 했고, 한편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21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2:36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이루어진 다윗의 예언을 말하면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다.” (행전 1:16)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중 한 분이십니다.

도움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는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페라클리토스*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당신 곁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을 돕기 위해 계십니다.

그는 당신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는 당신에게 힘 주시기 위해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체이신 성령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력으로 힘입는 것을 돕기 위해, 당신 안에 내주하시도록 아들에 의해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다른 선물들도 좋고 귀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이 선물보다 우선이 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니깐요.

제 2 부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나?

세상에서 하시는 일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 요한복음 16:7-11

예수님은 항상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것 알고 있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주님이 직구를 던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때 커브 볼을 던지곤 했습니다. 또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코너에 몰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함정을 뛰어 넘어 잘 빠져 나와 그들을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 하실꺼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곤 합니다.

세상에서 성령이 하실 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에 모두가 각각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

우리가 죄라 하면 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거짓말, 도둑질, 속이는 것, 포르노, 간음, 살인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십계명을 어긴 것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속이고 부정직하고 부패한 죄인들을 책망하실 것이란 말씀으로 추측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

씀하신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 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디오를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성령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그 것은 저희가 그를 믿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죄입니다. 다른 죄를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비디오 같은 것이 있어서 언젠가는 커다란 스크린에다가 우리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낱알이 비추어 보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심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 때문”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즉, 한 가지 문제로 귀착된다는 것이지요 :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너의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었느냐는 것이지요.

“예수” 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가 하실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 1:21).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의 예수스를 번역한 것인데 히브리 이름인 예슈아에서 온 것으로 아웨슈아를 줄인 단어인데 그 뜻은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라” 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의 하실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이 것이 그의 하실 일이셨고 성령도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텐데 그것은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기를 거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3:36)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생애를 마치기 얼마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며 세상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것은 성령을 훼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것은 성령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기록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요일 5:10-12 참조)

이것은 예사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한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 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 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 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 10:28-31)

그러한 무서운 죄를 피하는 길은 오직 한 길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롬 10:9) 라고 말함으로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믿는다는 고백은 진실된 것이어야 합니다. 거짓 고백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 25:11,12). 예수님은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 7:21)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분명히 따릅니다. 그러한 순종이 따르지 않는 고백은 거짓된 것이며 따라서 구원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있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 3:18).

이 것이 큰 문제입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제공하신 길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지고 대신 죽도록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그것이 오직 한 가지 문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피로 값주고 사서 구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면 오직 한가지 질문 이 질문을 물어 보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을 어떻게 하였느냐?” 당신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물어 보시는 것이지요.

성령이 세상에 대해 증거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죄 사함이나 아니면 심판대에 서게 되느냐로 갈라놓는 오직 한가지 문제입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

성령이 두 번째로 세상에서 하시는 일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세상에 대하여 죄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 책망하십니다. 죄는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고 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이고 의는 표적을 맞춘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

바울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전 6:9)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을 열거하고 나서 “전에 너희에게 경

제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1절)라고 보웁니다. 그의 말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면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천국을 더럽힐 그 어떠한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웁니다. 에베소서 5:5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히브리서 에서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2:14)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 구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 의로운 삶에 대해 육체를 부인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 5:20)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말이었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그들의 의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 해석한 율법대로 일점 일획이라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법을 항상 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저들보다 낮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 보시다.

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이 세상에 대하여 의를 책망하실텐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논리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과 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 그의 의가 그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천국에서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표본으로 세우시고, 그가 승천하실 때 “바로 이거야. 이 것이 너희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의의 기준이야- 이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월등한 것이지. 이 의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면 천국에 들어올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성실하고 착하게 산 사람들은 성령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도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큰 죄만 아니면 천국에서도 악을 눈감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육체를 따라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천국에 들어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과 에베소서 5장을 다시 읽고 경고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알거니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 이라고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런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겠지요. 그리고 당신의 선한 삶을 근거로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10에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의로 하나님이 받아 주시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예수님 만큼

의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이 받아주실 유일한 의는 바로 이러한 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의로우셨나?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나 의로우셨나?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예수)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고후 5:21)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5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고 선언하시고 또 히브리서 4:15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되게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내가 항상 그(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요한 8:29)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삶을 사셨고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유일한 의의 기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떠나서 하늘 나라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당신은 죄가 없어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실 유일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완벽하였고 또 항상 완벽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 거부당할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도 분명하게 증거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여전히 구원의 근거로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말합니다. “저는 이런 좋은 일도 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베풀기도 했습니다. 항상 남들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으며 황금률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선한 일들을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틀림없이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제가 한 모든 선한 일들 때문에 저를 받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류의 주장들을 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그 사람이 행한 선한 일들을 말하면서 그가 혹은 그녀가 행한 모든 선행으로 인해 하나님께 가도록 보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 말씀하셨나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의는 그의 눈에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고 하셨습니다(사 64:6).

괴상한 주장

어떤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은 1분 동안 완벽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깊이 생각지 않으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 답변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하기를 “1분 동안 완벽할 수 있으면 2분 동안도 완벽할 수 있고, 2분 동안 완벽할 수 있으면 4분 동안도 완벽할 수 있고, 또 4분 동안 완벽할 수 있으면.....”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 결국은 사람이 죄 없는 완벽한 상태에서 사는 것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니다.

논쟁을 전개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 드리겠습니다-저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못됩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저는 완벽함에서는 너무 멀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이런 결심을 한다고 칩시다: “나는 지금부터 완벽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어떠한 일도 생각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비판적이거나 오만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삶들과 하나님 만을 위하여 살겠다. 그렇게 해서 나는 완벽한 삶을 살겠다.” 그리고는 그후 그렇게 잘 지켜 나갔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지진이 나고 당신이 있는 빌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큰 골조물들이 당신 위에 떨어지는데 그 중 큰 덩어리 하나에 깔렸다고 칩시다. 산산조각이 난 바닥에 깔려서 죽어가는 당신을 보고, 제가 지나가다가 “축하합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굳게 결심하고 마음과 뜻을 정하시더니 결국 죄 없는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훌륭한 일을 칭찬했을 때, 만의 일이라도 당신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추호라도 들었다면-오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니까요.

그러나 한번 더 논쟁의 전개를 위해서 당신이 그런 칭찬도 잘 넘겼다고 칩시다. 당신은 겸손의 극치를 이룬 사람이라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죄 없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기 전에 *이미* 행한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기 전에 지은 죄들 말입니다. 여기에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불합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한다면 애당초 잊으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라고 당신이 묻는다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라면 아무도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선한 행위와 선한 생각과 노력으로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만 두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뿐인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옮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받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어떤 봉사나 행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으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삶의 표본입니다. 당신이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면 당신의 오직 유일한 희망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

마지막으로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죄인에 대한 마지막 심판” 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계산해야 하는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심판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커브 볼을 던지십니다. 그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은 장래의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이미* 행해진 심판을 뜻합니다.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대답은 하나 뿐입니다: 십자가. 거기에서 세상의 임금이 심판 받았고 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님에게 씌워진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좀더 상세히 들여다봅시다.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잠시 더 살펴봅시다. 사탄이 한 때 이 세상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는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권리를 갖다 바칠 때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이 세상 임금” 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주님의 것이었고 아름답고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금지된 과일을 먹으라는 사탄의 제의에 복종했을 때 아담은 그의 권리를 사탄에게 바치고 만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복종했을 때 그는 그의 종이 되었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16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아담은 사탄에게 복종함으로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고 사탄이 누가복음 4:6에서 큰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탄의 뻔뻔스러운 이러한 주장에도 아무 반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세상 임금으로 인정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요한 12:31; 14:30; 16:11).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그렇게 내버려두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도로 찾아 하나님께 돌려 드리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벧전 1:18,19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사탄이 심판 받은 곳은 십자가 위에서 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의 권세는 깨어지고 세상 지배가 끝났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13-15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적하는 어두움의 정사와 권세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부활이 바로 그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 때 우리를 다스리던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부셔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롬 6:12 참조).

네, 하나님이 아직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마태 6:10). 오! 나는 이 땅에 사탄의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지금의 세상과는 전혀 판 판의 세상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의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사 11:9).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 먹는 아이가 그들과 함께 놀게 될 것입니다(사 11:6,7; 65:25 참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구자가 없을 것이며 저는 자는 뿔 것이며 병어리는 노래하고 소경의 눈이 밝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사를 볼 것입니다(사 35:6).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때까지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사탄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지배와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고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만 성령은 아무도 더 이상 죄의 사슬에 얽매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수의 포로가 되어 어두움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고 철저히 패배 당하고 말았습니다. 단지 그는 강탈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옮겨주신 의로 말미암아 저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하늘 나라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저의 삶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저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더 이상 당신을 다스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세는 다 멸해졌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령이 세상에 대해 증거하시는 일들입니다-참으로 귀한 일들이지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는 끝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신 삶의 능력이 여러분이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도 더 이상 어두움의 권세에 얽매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증거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인가!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이 어느날 당신의 영원한 장래를 결정 짓게 될 유일한 문제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를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로든 거부했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를 당신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 들이십시오.

예수님은 커브 볼을 던지시기를 좋아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볼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속구도 아닙니다. 당신이 볼콰로부터 정확하게 쳐낼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느리고도 후한 핏칭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게임에서 당신이 아웃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살아*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와 함께 하늘 나라에 무사히 홈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참피온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팀에 당신이 조인하는 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뚜껑을 누르고 있는 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 데살로니가후서 2:7

우리는 매우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앞으로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 합니다.

바울은 위와 같은 불길한 경고를 거의 2천년 전에 했습니다. 악이 온 땅을 뒤덮고 맹렬하게 활동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에게 지금까지 인류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강도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고 곧바로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무서운 재앙과 공포가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살던 그 시대에 이미 멸망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고 쓰고 있습니다 (데후2:7).

오늘날 이 불법의 비밀은 감지하기에 힘들지 않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이 죄로 인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천대받고 있습니다.

“극성파 신도들” 을 조심하라.

어떤 관공서들은 “이단” 을 정의하기를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예수가 재림한다고 믿는 사람들” 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참 잘못된 처사입니다. 당신은 이 두 가지를 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이단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극성파 신도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극성파 신도” 라는 이 용어에 주의하십시오. 세상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세계정부주의자들-꿈임없이 하나의 세계정부를 부르짖는 자들

-은 그들이 온 세상을 완전 장악하는데 있어 이 극성파 신도들이 가장 장애물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그룹의 멤버들이 극성파 신도로 불려지고 있고, 종교적 극성은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기관들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극성파 신도들이라고 답하고 있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기관들은 늘어만 갑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몇몇 유력자들은, 소위 극성파 신도로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가장 심한 그룹으로 취급받는 중생한 신자들과, 수년에 걸쳐 피나는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앨런, 칼 세이건, 에드 에즈너, 그리고 노먼 레어 같은 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이제 막 태어난 크리스찬 신자들을 반쯤 정신 나간 사람들로 몰아 부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 세계 질서가 오는 것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진지한 신앙을 멸절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악의 세력이 소위 이 극성파 신도들을 없애기 위해 매스터플랜을 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그들의 날이 올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아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억누르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올 때까지* 악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성령이 떠나게 되고 사탄이 공포의 7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송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데전 2:3-7).

성령님이 바로 이 “불법의 비밀을” 막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분이 폭력으로 끓고 있는 세상의 솔의 두경을 누르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시고 더 이상 악이 제지를 받지 못하면 어두움의 권세가 세상을 접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종한 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도덕과 최악에 빠진 사회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으로 급속히 추락할 것이고 그리고는 무저갱으로 곧장 내려가 버릴 것입니다.

아! 어두움의 권세는 그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그러나 지금은 안됩니다. 교회에 계시는 성령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홍수로 이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악의 파도를 오늘도 이 세상에서 억누르고 있는 힘이십니다.

전쟁중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속을 받았지만 아직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하게 되며 그 전투는 매일 매일 점점 더 치열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탄은 마지막 전투를 위해 그의 세력을 총집결시키고 있으며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의 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영향을 말살하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리스찬들의 생활이 파괴되고 그들의 의로운 영향이 중단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기술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어두움을 바로 우리의 가정으로 불러들여 많은 크리스찬들이 악마의 불경건한 철학에 의해 세뇌되고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세상과 타협함으로 극도로 쇠약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중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을 잊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방부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주위에서 썩어가는 악취를 제거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 5:13). 예수님은 휴거 때에 모든 중생한 신자들이 이 땅에서 들리워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실한 빌라델비아 교회(마지막 때의 진실된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에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계3:8)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능력, 그 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우리는 크고 강한 힘이 아니며 의를 위한 절대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렇지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함으로 세상의 방부제로서의 역할과 증인으로서의 역할은 극도로 미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하리라” (마태 16:18)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비록 약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운데서 역사하는 성령의 억제하는 힘 때문에 교회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다면 성령이 교회를 통해 억제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에게 돌려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은 이 마지막 전투를 위해 그의 세력을 총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전쟁에서 자기가 이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시록 19:19에서 요한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고 적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탄은 자기를 대변하는 자를 지도자로 하는 세계정부를 세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 혹은 “짐승”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한 사람에게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정부가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이 사람은 사탄이 그의 힘과 보좌와 그의 권위를 입혀줄 사람입니다. 그는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이며 그를 통해 마귀가 숭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

시록 13:2에서 요한은 적 그리스도에 관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고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고 적고 있습니다.

짐승이 사탄의 힘을 받을 때 온갖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베풀 것이며 그것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24에서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9에서 바울은 적 그리스도가 임할 때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 가장무도회를 혼자 열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13:11-13은 적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거짓 선지자에 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다니엘은 적 그리스도의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것은 사탄의 힘이고 어두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궤환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단 8:24,25)

적 그리스도는 포악한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는 주님을 훼방하여 말할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단 7:25). 몇 장 뒤에 선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왕(적 그리스도)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대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함을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단 11:36).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에 관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후 2:4)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5,6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짐승(적 그리스도)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두 종인의 나태남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두움의 날 동안에도 증인이 없이 내버려두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올라간 후에 유대인들에게 보내주실 두 증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들은 세상에 의해 얼마나 미움을 받게 될지, 그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헤치려 한다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왕이 오십부장과 그 오십인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열왕기하 1:9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오십부장이 말합니다. 그 때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오십인을 사를지로다” (10절)라고 했고, 곧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오십인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다른 오십부장과 오십인을 보내 “속히 내려오라!” (11절)고 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오십인을 사를지로다” 했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심통 사나운 늙은 선지자에게 보내진 오십부장은 좀 영리했습니다.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 “저도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봐 주십시오. 왕이 명령해서 할 수 없이 왔는데 저를 죽이시렵니까?” 하고 간청할 때에 이번에는 엘리야가 내려갑니다.

이 스토리는, 말라기 4:5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 증인 중 하나가 엘리야일 것이라고 믿게 하는 주요 근거입니다. 또 다른 한 근거는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 수레와 불 말들이 나타나면서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왕하 2:11)

대환란 기간 동안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증거가 다 끝나면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벌여 기들을 이기고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까지는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전쟁

우리는 또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가 그 당시 “성도” 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으로 불려질 유대인들과도 전쟁을 벌일 것을 봅니다. 계시록 13:7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적 그리스도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 13:7). 다니엘 7:21은 “내가 본즉 이 뿔(적 그리스도)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라고 보탭니다.

다니엘 7:25는 적 그리스도에 관해 더 말하면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3년 반)를 지내리라” 고 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가 성도들을 이긴다는 사실은 그 성도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 “성도” 는 어떤 때는 환란중 성도라고도 불리우는데 끔찍한 대환란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현금이 없는 사회

전권을 장악하고 나면 적 그리스도는 새로운 극단 체제로 돌입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그는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경은 돈의 사용을 없애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현금 없는 사회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 얘기하면 모두 머리를 흔들면서 “현금 없는 사회? 못 들어 본 애긴데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자, 요즈음에 못 들어 본 사람 있나요? 일간지의 경제면이나 *포브스 잡지* 같은 것을 가끔 본다면 틀림없이 이에 관해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금 없는 사회에 관해 점점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슈퍼마켓에 갔다가 이런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VISA, Master Card, Discover 카드를 받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를 쓰기 위해 줄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드를 긁은 후 조그마한 영수증에 싸인 하고는 물건이 담긴 봉투를 들고 집으로 갑니다. 현금 없이 모든 것이 척척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에 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계 13:16,17).

경고합니다: 그 날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정부 기관에서는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전국적인 신분증 제도를 실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미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를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집 책상 서랍에 주사기처럼 생긴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은 분사기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작은 바늘이 달려 있어서 피부 밑에 작은 트랜스미터를 주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칩 트랜스미터들은 약 반 인치서부터 1인치(어떤 것은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로 “꼬리표” 가 달린 사람은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위성에 의해 세상 어느 곳에 있는지 소재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마이크로칩은 물론, 은행잔고나 주소, 운전 면허증 번호 등 무엇이든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넣을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현금 없는 사회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경제가 현금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현금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 찍어내는 비용도 절약함으로써 재정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오피스에 5천억 달러 짜리 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화폐 중 가장 큰 금액의 화폐입니다. 5천억 달러-물론 그것은 세르비아 화폐입니다. 수집 종목의 화폐로서 미국 돈으로 8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폐의 가치가 얼마나 빨리 사라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일면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현금 없는 거래제도에 대해 항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금으로 지불하는 드문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점원을 놀라게 합니다.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요, 현금으로 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현금이요?”

“아직 현금 받으시죠?”

“그렇긴 하지요.”

현금 없는 사회는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이긴 합니다. 범죄율이 겹잡을 수 없이 상승하는 때에 강도와 마약거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금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세금 미수로 인해 입는 손해가 매년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모든 상거래가 컴퓨터에 의해 행해지면 정부는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그러한 제도는 현금을 도둑질하는 일도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 돈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범죄가 폭증하고 있어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를 꺼려합니다. 컴퓨터에 의한 거래가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둑 맞을 돈도 없고 모든 거래는 기록이 된다는 것이지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현금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드를 사용하지만 사람의 몸에서 신분 칩을 주입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간단합니다.(오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어떨까요?)

지금 돈을 거래의 수단으로 하는 제도를 없애려는 시도가 분명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어느날 아침 신문을 펼들었을 때 이런 공고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2주 안에 모든 현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2주 후에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현금제도가 없어지고 현금을 모두 없어집니다. 5천 달러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꾸며낸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정부를 위한 준비

지구상의 온 나라가 하나의 정부체제로 가기로 주사위는 이미 던져 졌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지구촌 공동체” 니, “지구촌 경제” 니, “세계은행” 이니, “지구촌 조치” 니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계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예를 들면 국지전쟁을 막기 위한 연합적인 노력의 필요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평화 유지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듣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도 세계정부를 목표로 하는 막강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가장 잘 알려진 그룹이 “해외 관계 회의(Council for Foreign Relations)”와 “삼각 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인데 이 두 그룹 모두 1차적으로는 미국도 세계정부 제도에 협조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세계정부에 가담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법보다 유엔의 법을 더 상위의 법으로 하는 법들을 제정하는 등 점점 더 많은 권력이 유엔에게 주어지게 하고, 조금 조금씩 미국의 군대의 관할권을 유엔 사무총장의 관할에 맡기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현대의 기술이 개발한 대량학살용 첨단무기를 가지고 세계의 지도자들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정부를 통한 길밖에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종말을 향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셈이지요.

무엇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온 세상을 장악하려는 이 어두움의 권세와 힘을 억누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는 성령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중 하나로서 이 어두움의 권세들을 눌러서 마지막 권세자를 세우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7,8에서 의미한 뜻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성령이 그 길에 막고 서서 악의 권세를 억누르는 일을 그가 떠나가는 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자마자 그 사악한 자가 나타나 공포의 지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이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 그가 이 모든 일들을 막고 있는 힘입니다. 어떤이는 “아니예요, 그냥 성령이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누르고 있는 성령은 바로 교회 안에 계시고 신자들의 삶에 계시는 그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을 통해 악의 세력을 억누르는 힘이 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절차를 통해 악의 세력을 억누르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것은 영적 전쟁으로서 오직 영적 무기로서만이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크리스찬들을 육적인 격투장으로 끌어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들을 목사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눅 16:8)고 하셨습니다. 정치적인 절차를 통해 악과 싸우려 든다면 해보나마나입니다. 늘씬하게 두들겨 맞고 나가떨어질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사용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것들만이 이 영적전투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증인이 환란 기간 중에 그들의 증거를 다 마칠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같이 우리도 증거의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지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의 증거의 일을 다 마쳤을 때 주님이 교회를 들어올리시고 사탄이 접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어두움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을 억누르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사악한 자에 대한 성난 목소리도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들림 받자마자 즉시 불법의 사람이 사탄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접수할 것입니다. 그 때 세상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어두움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마태 24:21,22 참조). 사탄이 세상을 완전 장악하여 어두움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기 위해 최후의 칼을 뽑는 것을 막고 있는 분은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해야할 일인 청정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한 전도자가 되어 진리를 신실하게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합시다.

주님이 그 날을 앞당겨서 우리의 모든 증거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들어올리시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 때에는 죄의 권세가 나타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의와 빛과 희락과 평강으로 다스리실 왕국을 건설하기

전, 무서운 7년간의 마지막 기간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도 이미 어두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사탄의 권세가 현재의 악한 세상을 다스리도록 내버려두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자기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의아해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악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야 그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고 세계 발전과 평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극성파 신도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탄이 아직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을 억누르고 있는 힘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권세로부터 구속받았고 성령에 의해 인치심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에 의해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서 떠나고 교회도 그와 함께 들림 받는 그날까지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할 가증한 계획을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들의 사악한 플랜을 실천에 옮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반의 준비는 다 갖추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교회를 도우시는 일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 사도행전 4:31-32

교회는 성령이 오신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탄생했으므로 교회를 세우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날 이후로 성령님은 교회 안의 여러 분야에서 강하고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교회는 친목단체나 봉사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병들어 죽어 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 사도들의 사역을 인도하신 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라 어디로 가라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교회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데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

다.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빠른 시일 안에 크게 성장하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봅니다. 한편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지를 또한보게 됩니다. 교회가 똑똑한 사람들과 그들이 구성한 위원회에 의해 인도될 때 그 교회는 급속히 힘을 잃고 아무 일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 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성공하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일찍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독점적 단체

처음의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독점적인 단체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처음에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 28:19; 행 1:8)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룻다로 내려가 중풍병으로 누운지 팔년이나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가 병이 낫고 곧 일어났을 때에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행 9:35)

그 근방 옘바에 믿는 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의 핵심 멤버였던 도르가라는 여제자는 착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항상 남을 위해 베풀기를 좋아했습니다.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 항상 속옷과 겹옷을 지어주며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봉사가 활발한 특별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룻다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오라” 고 간청합니다. 베드로가 저희와 함께 이르렀을 때 도르가의 시체가 뉘인 다락으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하자 그녀는 일어나 앉습니다. 이 사건은 옘바에 있던 신자들을 놀라게 하였고 흥분된 일이었습니다.

속된 것에서 깨끗한 것으로

베드로가 해변에서 가까운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정오쯤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는 시장하여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던 중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환상을 보게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네 귀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동물들이 가득했고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어 먹지 않는 속된 동물들도 잔뜩 있었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십니다. 철저한 유대인인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고 하십니다. (행 11:7-9)

이 환상은 강조를 위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고 하십니다. 내려가 보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문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을 안으로 맞아들였을 때 그들은

해변을 따라 20마일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백부장의 하인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루는 기도할 때에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 옴바로 사람을 보내 해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 말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아서 왔노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때 언제나 양쪽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누가 제게 와서 “주님이 당신에게 말해주라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제게 직접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누가 이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제게 보여주신 것이라면 확인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알게 해 주신 일이 아니면, 아무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나에 관해 말씀하셨다고 말할지라도 즉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저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신 것을 그 사람이 믿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로서는 따라 나서는 것이 대단한 결정이었고 가서 보면 더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양쪽 모두에게 지시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를 데리고 오도록 지시를 받고 왔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다음 날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저희와 함께 해변을 따라 가이사랴로 떠나 오후 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아들이고 베드로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환상 본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모험을 행하면서 지혜를 내어 유대인 몇 명을 증인으로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방인과 상종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곳의 신자들이 그를 힐난하여 “네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따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 말하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말라.” 고 하였고, 성령이 내게 가라고 지시하셔서 갔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즉 성령님의 인도로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게 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베드로가 한 일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급진적으로 벗어나는 어려운 행동이었지만, 그것을 지시하신 이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이나 상황을 통해 인도

베드로의 경험은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2절) 이 구절 바로 전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라” 고 한 것을 봅니다. 이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선지자들 이름들을 열거한 뒤를 이어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기록으로 보아, 예언의 은사를 통해 말씀하셨다

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는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지도자들이 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게 되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사울과 바나바의 이름을 부르며 특정한 지역으로 보내기도 하시며, 성령님이 그들의 사역을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몇 장을 더 내려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행 16:6) 그들이 가려고 계획했던 특정한 지역을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로 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13장과 16장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사도들의 행동을 직접 지시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사도들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갈라디아로 보낸 서신을 읽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 심하게 앓아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바울이 너무 몸이 아파 일 어날 수 없게 된 것을 통해, 그들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할 때도 여전히 너무 쇠약해서 여행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항상 어떤 신비한 방법이나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하신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해 따로 세우라.” 말씀하신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신 좋은 예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에게 직접 육성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기도 하시고, 많은 경우 우리가 계획했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성령님은 길을 인도하시지요. 바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더 여행을 할 수 없었는데 그는 이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와 바나바는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지만 주님은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환상과 꿈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이번에는 환상으로 인도하십니다.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고 간청하였습니다.(행 16:9) 이처럼 어떤 때는 성령님이 환상으로 교회에게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저는 에드워드 박사라는 분을 알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을 때 그는 산호세에 있는 은행의 행장이었습니다. 전적으로 그 삶을 주님께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사역에 그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분야의 일을 위해 학교도 다녔습니다. 하루는 밤에, 백발의 노인이 소가 끄는 넓은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밭은 반 정도가 갈아졌는데 그 노인은 “와서 나를 도우라” 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박사는 그 환상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후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파나마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을 떠나 파나마 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다른 교회들도 세웠습니다. 그의 선교사역은 성공적이었고 명석한 두뇌와 풍부한 교육을 바탕으로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에드워드 박사님이시지요? 여기 지금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아무 연고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어줄 목사님이 필요하거든요. 곧 운명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드워드 박사는 함께 기도해 주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입니까? 거기 누워있는 노인은 다름아닌 전에 환상에서 본 밭 갈던 백발 노인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본 마게도냐 환상과 같은 것이지요. 파나마 환상이라고나 할까요? 성령님이 에드워드 박사의 파나마 사역을 환상을 통해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죽은 후 에드워드 박사가 알아보니 그는 30년 동안이나 파나마에서 컴벌랜드 장로교의 선교사로 사역하던 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박사는 그 분이 이루어 놓은 일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가 한 사역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이었고, 에드워드 박사는 그가 이루어 놓은 기초 위에 막강한 파나마 선교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런 환상을 본적은 없고,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긴 꿈도 끈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환상이나 꿈을 오늘날은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요엘 선지의 이 말을 인용하지 않았던가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행2:17) 제가 환상을 보기에는 좀 늙었지만 아직 꿈을 꿀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밤중에 잠이 든 것인지 깨어 있는 상태인지 잘 모르는 경지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지에서 어떤 때는 생각이 몰려옵니다. 제가 꿈을 꾸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는 상태이지요. 어느 날 밤에는 이러한 경지에서 어떤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런 말씀이 왔는지 몰랐지만, 저는 그것이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들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 나를 더 사랑하도록 인도하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강하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한 밤중에 저는 자다말고 일어나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바로 제가 하고싶은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언을 통하시든지 꿈이나 환상을 통하시든지 혹은 특별한 상황을 통하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젊은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환상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당신이 늙은이라면 꿈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으면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고 나면 알게 되겠지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말기면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풍성히 자라고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시는 일

성령님은 또한 외식과 부패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특히 초대교회의 초창기 몇 년 동안 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외식

사도행전 4장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이 되었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으며, 재산을 서로 나누었고 그 중에 궁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 러라.” (행 4:34,35)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한 땅을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라고 했습니다.(행 5:3,4) 다른 말로 하면 “아나니아야 아무도 네 땅을 팔라고 한 사람 없다. 교회의 요구사항도 아니다. 그 땅은 네가 팔기 전에도 네 것이었고 팔고 나서도 그 대금은 네 것이다. 아무도 네게 그 돈을 가져다 우리 발 앞에 놓으라고 한 사람 없지 않은가?”

아나니아의 죄는 돈을 감추고 일부만 가져온 것이 아닌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죄는 *외식*한 것이며, 외식은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서 뵈내려고 땅 판 돈을 모두 가져온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바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자신의 실제 믿음보다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죄를 지닌 채 슬쩍 넘어갈 수 없는 막강한 힘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행5:4)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자 마자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5:5) 성령님은, 교회 역사에 걸쳐서 오랫동안 고질적인 암세포와 같은 흉칙하고 더럽고 무서운 외식으로부터 교회의 순수함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외식으로부터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열심이 대단하십니다.

오늘의 교회들은 일세기 초대교회에 비하면 매우 약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던 힘을 지금은 보기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런 찬송을 부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금과 은과 보화를 모두 드리네. 동전 한 잎도 나를 위해 가진 것은 없네.....” 퍽 퍽 퍽 쓰러져서 모두 혼이 떠나고 말겠지요. 한 사람도 안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더럽히는 무서운 외식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며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성령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한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으며,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의 집사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앓은뱅이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로 온 성에 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시몬이 무술을 통해 기술을 터득한 마술사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에는 마술을 행하여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하나님의 큰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몬 자신도 빌립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성령님이 빌립을 통해 진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사마리아에서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음을 발견하고 저희를 위하여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행 8:19)

이런 행위가 후에 “시몬식(simony)”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지위를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죄는 교회를 더럽히는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몬은 성령의 힘을 돈으로 사려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행 8:20-23)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드려 사려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부패는 교회에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일

또 하나의 교회 안에서 하시는 성령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덕을 세우고 권면하시고 안위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와 비교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 말합니다.(4절,14절). 한편으로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3절,4절).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은 덕을 세우고 교훈하여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권면과 안위하는 일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에 대해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며,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하기

를 독려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당신의 삶의 고통과 상처가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씀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 하십니다. 이것은 매년 성령께서 각 지역 교회의 기름부음 받은 교사들과 목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게는 덕을 세우며 교훈하시는 말씀이 많고, 다른 교회들에게는 권면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몇몇 교회에게는 안위의 말씀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들을 귀가 있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안위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사역자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이가 성령님이신 것 기억하십니까?(행 13:2). 그 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행 20:28). 성령님은 종종 사람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권면하며, 우리를 안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지신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하신 일들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움을 받아야 하고 권면과 안위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세 가지 일을 우리를 위해 한량없이 베풀어주시고 계십니다.

부흥으로 가는 길

초대교회가 어떻게 것처럼 성공적으로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지요. 초대교회는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인도하도록 했고,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시도록 했습니다. 성령님이 총 책임자이셨지요. 성령님이 교회의 지도자를 안수하고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로, 화가 난 복음 반대자들이 사도들에게 이와 같은 죄목으로 고소했던 것이지요.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행5:28). 이와 비슷하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고 경고했던 것입니다.(행 17:6).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아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로 온 성을 가득하게 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으니 말입니다.

저도 우리 시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했다는 죄목으로 고발되어 체포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판사에게 “저를 감옥으로 보내 주십시오. 할렐루야!” 를 외칠 수 있을 텐데요.

골로새 교회가 탄생한 지 30년쯤 후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했습니다.(골 1:5,6).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초대교회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달성한 복음전파의 과업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달리 그들에게는 비행기도, 헬리콥터도, 기차도, 자동차도, 전화도, 팩시밀리도,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녹음기도, 컴퓨터도, 잡지도, 신문도, 인쇄기도 없었습니다. 사실이지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대의 편리한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현대 교회의 가장 비극적인 실수는 성령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의 사역을 지시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지요. 대신에, 신학교에 가서 사회학과 통계학과 인류학등 세상의 학문을 깊이 공부하고 배운 유식한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지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회에 파고들 수 있는지 여건과 통계자료 수집과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 지역에 전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지요. 수천의 최첨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슥 4:6).

우리에게는, 성령님께 모든 사역의 감독자의 자리를 돌려 드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령님이 모든 외식과 부패를 교회에서 뿌리뽑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며 안위하며 권면하는 교회, 한 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이 총책임자가 되시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이신 교회의 머리되심을 인정합시다. 성령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교회임을 기꺼이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소원합시다. 주님께서, 교회의 기능과 운영과 지도자 임직과 재정지출과 선교전도 등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도록 주님께 간구합시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어리석음과 경솔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여전히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즉 세상의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요,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엡 5:27).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 요한복음 14:26

흠

정역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현대판 번역본에서는 사라져버

린, 참 귀한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를 축복으로 주신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각양(다양한) 은혜” 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한 구절입니다.(벧전 4:10).

“하나님의 각양 은혜.” 얼마나 귀한 구절입니까!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퍼부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부요함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게해주는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아낌없이 퍼부어 주신다는 제 표현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베풀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절대로 억제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장을 통해서는 지면상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퍼부어 주신 “하나님의 각양 은혜” 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그 깊이와 높이에 있어서 놀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

신자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인치시는 특별한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엡 1:13,14).

너는 내꺼야!

바울 시대에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주요 항구 중 하나였습니다.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는 대부분의 교역물자가 에베소 항을 통과해 갔습니다. 즉 세계적인 물자거래가 행해지는 교역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대상들이 동양에서 물자를 싣고 와서 에베소에 풀어놓으면, 로마의 상인들이 와서 이 물자들을 사서 다시 화물로 꾸려서 로마의 가장 주요한 항구 도시인 보디올로 선적을 하고, 그곳에서 온 로마제국으로 공급을 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화물들은, 소유를 분별할 수 있도록 소유주들의 제각기 독특한 마크가 새겨진 도장으로 인치를 받게되고, 그후에 선적되어서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화물이 보디올에 도착하면 상인들의 종들은 화물이 부두에 내려질 때 인친 도장을 통해 자기 상전의 화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인친 도장은 소유권의 표식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소유권을 인치신 것을 설명하면서 이 장면을 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소유권의 도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성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 것이야, 성령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해, 나의 삶에 인치신 하나님의 도장이야.”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당신은 한 때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였으나, 예수님이 노예시장에서 사오셔서, 이제는 당신은 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벧전 1:18,19).

우리는 마치 본향으로 향하는 배에 실린 화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도착하면, “그래, 이건 내꺼야. 내 도장이 찍혀 있잖아? 내 도장이야. 이것들은 다 내꺼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소유임을 분명히 밝혀주실 것입니다.

소중한 보증금(다운 페이먼트)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기업의 “보증” 이라 불리웁니다. 우리는 요즈음도 “보증금”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물품이나 재산을 구입할 때 먼저 현찰로 얼마를 내고 잔액을 성실히 갚겠다는 뜻으로 거는 돈을 말합니다. 매도인에게 있어서 보증금의 의미는, “지금 제게는 전액이 다 없지만, 전액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는 저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자 보증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이 거래를 성실히 완결하겠다는 의지를 나

타내는 것입니다.” 라는 매수인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자동차를 팔기 위해 광고를 냈는데 원매자가 나섰다고 칩시다. 와서 자세히 보기도 하고 타 보기도 하고는, “참 좋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지금 돈은 없는데 은행에 가서 용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동안 절대 댄 사람에게 팔지 마시고 저를 위해 꼭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에 너무 들었거든요.” 한다면, 현명한 당신은 “좋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거시고 꼭 다시 와서 사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좋습니다. 이것 당신 것입니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안 나타날지도 모르지요. 기다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차를 보러와서, “이 차야말로 바로 내가 찾던 차입니다. 내가 당장 사고 싶습니다.” 해도 당신은 “미안합니다. 방금 팔렸습니다.” 하면서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사람을 위해 많은 사람을 돌려보내게 될지도 모르지요. 먼저 차를 사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용자를 위해 은행에 가는 길에 중고차 딜러에 진열된 차를 보고, 당신 차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가격의 차를 보았다면 당신에게 알리지 않고 그 차를 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당신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겠지요. 보증금을 건 것이 없으니깐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에 대한 그의 의지가 신실하고 진지한 것임을 당신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거래를 꼭 완료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마음 바꾸고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장래의 영광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주셨는데, 그 보증금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진리의 깨달음을 주신 것과 똑같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곁에 늘 계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26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 말씀하시고는 조금 뒤에, 16:13에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주님은 보태십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약속을 누리고 있습니다.

금덩이를 발견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제게 오묘함을 더해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공부를 더 깊이있게 하기 위해서는 원어를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영어나 한국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지 않은, 작은 금덩이들과 같은 본문의 뉘앙스를 음미할 수 있게됩니다.

저는 헬라어를 공부할 수 있어서, 가끔 진리의 금덩이들을 캐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방금, 헬라어를 공부한다고 말했지 *배워서 잘한다고* 말하지 않았습시다. 저는 본래 언어에 소질이 없습니다. 언어는 제게 참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소질이 좀 있지만 언어는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원문을 파고들만큼은 공부를 해서 가끔 굵직한 금덩이들을 캐내곤 하는데, 해 볼만합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갑니다. “가래질은 쉽지만 낙엽만 걷히고, 삽질은 힘들어도 금강석을 캐 수 있다네.” 그래도 저는 가끔, 삽질도 하지 않고도 금강석을 캐는 친구도 있는 걸 봤습시다!

제가 수십 년 전에 헌팅턴비치에서 목회 할 때에,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만 겨우 나온 귀한 여성도가 한 분 있었지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요! 저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헬라어 원어를 통해 진리의 작은 금덩이들을 캐려고 열심히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를 건지고는 “와우, 헬라어를 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스스로 감탄하게 되지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이 금덩이를 아직 설교에 써먹기도 전에, 이 여성도가 종종, “목사님, 제가 며칠 전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이 구절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해요. 잘 보세요.” 하면서 제가 그렇게 힘들게 파고들어서 깨달은 그 놀라운 진리를 슬슬 풀어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저는 헬라어를 익히느라고 기름 태우며 초롱불 밝혀 밤새운 날이 몇 날인데, 여기, 전혀 헬라어 헬자도 모르는 아줌마도 같은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하게 되지요.

이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경을 못 깨달으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같이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꺼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사모하는 성령충만한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성경원어를 잘 알고 박사학위가 있을지라도 중생하지 못한 자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로 더 가깝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떠나 성경을 해석하려 하면 온갖 이상한 데로 흐르게 됩니다.

요한일서 2:27은, “너희는 주(성령)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흥미있는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이단들이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단들은 그들의 책을 강매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들을 읽게 합니다. 왜 그것들이 그토록 필요합니까? 그들의 책을 통해서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왜곡된 성경 해석과 변조된 교리를 믿으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어떤 사람이 성경만 읽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해도 걱정 안합니다. 저는 “성경말씀만 읽으세요.” 라고 말하기에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교회에 교사와 목사를 주셨지요.(엡 4:12). 그러나 은사 받은 교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에 진리를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을 직접 쓰신 분이, 그 쓰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성경말씀과 구절들이 생각나도록 기억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실제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22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의 기억을 새롭게 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16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

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성령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지요.

저는 성령님이 오늘도 이 일을 계속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사람과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당신이 알고 있는 줄도 모르던 성경구절을 인용했던 적 있지 않세요? 저는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하는데 술술 나오는 거지요. 평소에 암기하고 있는 구절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필요한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그렇게 하십니다. 시험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고 처져 있을 때, 그 형편에 꼭 들어맞는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도를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곁에서 늘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놀랍고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26,27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다른 한 사역의 영역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있어서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항상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을 때, 이렇게 되면 좋겠다 판단하고 그쪽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낭비벽이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고 가정합시다. 돈도 없으면서 127 달러치나 장거리 전화를 걸어대서, 요금청구서가 나왔는데 낼 돈은 없고 전화가 끊기게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친구에게 돈 좀 보내 주세요 전화요금 내게요.” 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돈을 쓰는데 좀 현명하고 신중하기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떡합니까? 그가 전화요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고자 하는 뜻을 막고자 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도록 요구하면서 떼를 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도 안 믿을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제 요구대로 제 뜻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저와는 끝났습니다. 물러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되지요. 얼마나 바보 같은 멍청한 짓입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사55:8,9)

저는 지나간 여러 해를 통해서 저의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어긋나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거의 강요한 것들이 있는

데, 감사하게도 그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으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에 감사하는 만큼 안 들어주신 기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나 하나님에게 우리의 길이 옳은 것을 이해시키고자 함이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렘 29:11).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 스스로가 계획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월등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손질해서 낮게 만들어 보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도록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아마 당신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뭐 하러 기도합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지요.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일이 당신에게는 최선의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한 모든 선한 것과 올바른 기도들은, 우리가 머리를 숙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천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마 6:31,32).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과 선을 위하여 원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우리의 의지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회전

기도는 회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원하심으로 시작되어서, 그 원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3).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 37:4).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 마음에 주시고,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아래로 내려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회전이 끝나고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그렇게도 하고 싶으시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9는, “여호와와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합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족한 세상에 하나님의 가지신 부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도구로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과 맞추어 뛰도록 하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요한은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4,15). 우

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의 구하는 바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전도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중에서 비중이 큰 것은 담대하고 효과있게 전도하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8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당부하셨습니다.

누구요, 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당부하신 것인지 잘 보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은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 다섯은 어부였고, 모두 지중해 동쪽의 한 이름 없는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거치른 초라한 작은 동네에서 더군다나 이들은 그 동네에서조차 별로 명색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사명은 주님의 멍세지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견해로 보면, 우리는 즉시 불가능한 사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도데체 어떻게 이 작고 미미한 그룹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주시지 않고는 어떤 일을 절대로 시키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에게, 왜 우리가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수천 가지도 더 늘어놓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일들만 들먹이면서 순종하기보다는 논쟁하려 들기만 하는데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동시에 주시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을 명령하시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언제나 깨닫게 될런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 숫자가 적어요. 누가 우리말을 들겠어요?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초대교회의 중심 멍세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멍세지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로, 삶으로, 행위로 훌륭하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의 일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봅시다.

말로 전도하는 일

첫째로, 이들은 말로 전도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말로 전도해야 한다

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질문한 것처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롬 10:14).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고 누가 전하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 말로 전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말로 전도하는 데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하는 것 빼놓고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요! 우리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끝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분명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누구나 다 그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은사를 받지 못했을 때, 말로 주님을 전도해야 할 경우가 닥치면 많은 경우 매우 당황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도 의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말로 전도하려하면 움츠러들고 혼이 납니다. 그러고나면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나의 믿음을 말로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항상 괴로워합니다.

경건한 삶으로 전도하는 일

그러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로 전도하고 믿으라고 권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더 막강한 증거는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이 증거하는 말과 같아서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본다면 얼마나 능력 있는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고 말했습니다.(딤후 4:12). 그리고 예베소교회 장로들에게도, 그가 가르친대로 살았던 것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행 20:18-35). 또, 디도에게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딤후 1:16).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증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훌륭한 인격이 빛난 것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저는 최근에 고등학생 수련회에 가서 젊은이들과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제가 막 떠나려할 때에 한 소녀가 다가와서, “척 목사님, 제 동생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생 앞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삶에 역사하신 일을 동생이 볼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동생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고 능력 있는 방법이야.” 라고 말했지요.

안디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고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실을 아십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의 원래의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준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크리스찬’이란 이름은 “나는 크리스찬이요.” 하고 떠드는 이름이 아닙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님처럼 삽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때, “보여주지,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스럽고 진실된 증거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말한 것들이 우리의 모습과 행동 때문에 신용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일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놀라운 평화를

주셨는데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를 맛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조금만 굶은 일이 생기면 화가 나서 모든 일에 신경질을 부리고 모든 사람에게 고함을 지른다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혹은, 주님이 주신 기쁨에 대해 말하면서, 항상 불쾌하고 부루퉁해서 시비만 건다고 해보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말지요. 주님에 대해 말만 많이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행위로 전도하는 일

세 번째로 신자들이 전도하는 길은, 성령님이 그들의 생활가운데서 엮어가시는 행위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음을 주의해 보십시오. 이러한 표적들과 기사들이 내 뜻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활동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님이 뜻하시는데로 제각기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일을 간섭하고 휘두르는 체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절대주권자이십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롬 15:18,19). 큰 표적들과 기사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 일어났겠지요. 그러나 그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그릇으로 택하시고 그는 역할을 담당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의 간증과 전도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결과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받고 맡기면, 담대한 힘을 얻고 막강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아들 예수처럼 되도록 돕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하시는 우선적인 일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삶에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이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와 똑같이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떨어져,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복수심으로 가득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인간사회를 돌아보면서, 하

나눔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표본이라고 자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알기 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요 14:9).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고 말합니다.(히 1:3). 고린도후서 4:4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 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골로새서 1:15에서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모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말합니다.(벧전 2:21).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형상을 닮도록 일하시는데 쓰시는 모델이며, 우리를 타락한 피조물에서 그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의 원하시는 바요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와 인간의 타락을 다 무효화시키시고, 그의 아들 예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

여기서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는 모델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저렇게 살고 싶어.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화내고 신경질 내는 내 자신이 싫어.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더러운 말을 하는 내 자신이 싫어. 걸려서 넘어지고 육체를 따라 사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절대로 이런 일들은 이제 안 할거야.” 우리는 이상적인 모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순전함과 의와 진리와 평화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우리는 적극적인 노력과 굳은 결심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이 되겠다는 욕망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표를 깨닫는 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흥내를 낸다고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때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6:41).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내내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덕을 탕 탕 탕 소리를 내며 오르는 작은 엔진과 같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노력해보지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못합니다.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닮게 만들 수가 없는 거지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목적은,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해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29에서 바울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에

베소서 4:13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아들과 같이 되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 3:18). 이것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변화되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예비역 해군 장교를 알았는데, 해군에서 오랜 동안 군인들이 사용하는 상스러운 말이 늘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육 개월쯤 되었을 때 뒷마당에서 즐겁게 휘파람을 불면서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믿는 자여, 사랑하기 위해 부름 받았네” 찬송을 하면서 정신없이 일하느라, 굵은 나무가지가 앞에 있는데 머리를 숙이지 않아, 이마에 받혀 뒤로 내동댕이쳐졌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는 켜진 채로 제멋대로 굴러가서 담을 들이받고도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뒤로 발랑 자빠져 누워 있는데 이마에서는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잔디 깎는 기계로 달려가 스위치를 끄고 집안으로 달려 들어와 무심코 말했습니다. “여보, 여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이마에 불쑥 솟은 큰 혹을 보고 아내는, “무슨 일이에요?” 물었습니다. “어, 오, 아무 것도 아니에요.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상스러운 욕은 안 했거든요!” 그녀는, “오 여보, 장해요. 당신 지난 육 개월 동안 한번도 상스러운 욕설을 사용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요? 육 개월 동안이나 한번도?”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의 또 하나의 예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 친구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솟구쳤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게 내버려두시고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승리를 누릴 때에, 뽐내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며 잘난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까지 가도록 하시고, 우리가 철저한 무능력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데 주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매일 매일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해주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의 삶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다 끝나고 제가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을 때,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고 고백할 것입니다.(시 17:15). 그날 저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이 다시 되는 것이지요. 당신도,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 행복하고 맡기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경말씀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고 알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로, 삶으로, 행위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의 ‘돕는 자’ 이신지요! 우리가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요!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셔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육신이 매우 강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차고 넘치도록 충만케 하시고, 생수의 강처럼 우리의 삶에서 흘러 넘칠 때까지 퍼부어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를 받고, 우리 자신을 성령님과 그의 능력에게 온전히 맡기면서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진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입니다.

제 3 부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은사들

저는 성령의 은사만큼 오늘의 교회 안에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무지는 양면적입니다. 한 면은 오늘의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든 사실조차 모르는 무지이며, 다른 한 면은 이 은사들을 행사하며 법석대지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모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잘못 행사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남겨져서 은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중요한 지침서가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홉 가지 성령의 은사를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능력, 믿음, 방언과 예언).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은사를 열거한 후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고 말합니다.(11절). 다른 말로 하면, 아홉 가지 성령의 은사를 열거했지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한 성령이라고 애써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어 통일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다양한 은사들을 대하면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이해합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고전 12:1). 바울은 교회가 어떤 중요한 영적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교회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가장 두드러진 원칙은 이것입니다. 진실된 성령의 은사는, 성경적이고 올바르게 행사될 때에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은 자신에 대해 증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은사의 행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에 대한 신선한 비전을 갖게 해주고, 따라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 줍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감사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의 가슴이 터질 듯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은사의 행사가 진실된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입니다. 은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됩니까? 홍보잡지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알리면서 한 장 건너마다 누구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누구를 알고자 합니까? 사람들의 눈에서 누구를 높이려 합니까?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그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기 위해 오신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아홉 가지의 다른 은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이 장의 끝 부분에 가서 돕는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도 언급하고, 로마서 12장에서도 다른 은사들을 보탬니다.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말합니다.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이 은사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서로 상충하지는 않습니다.

둘째로, *사역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이는 선지자의 은사가 있고,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한편 어떤 이는 다스리는 은사와 돕는 은사가 있고, 어떤 이는 권위의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아주 중요하고도 가치있는 은사입니다. 저의 아내에게 이 은사가 있습니다. 그녀가 모임에 가서 강연을 하고 권면한 후에는, 모두들 세상에 나가 전도할 마음들을 먹게 되지요. 이러한 은사들이 각각 다르게 행사되지만 같은 주님이 그 모든 은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주님을 섬기지만, 같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셋째로, 은사의 *행사의 다양성*입니다. 저는 어떤 은사가 제 삶에서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당신의 삶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행사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의 행사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독특한 인격과 특이성에 따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가진 부모라면 똑같은 아이들이 없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모두 제각각 독특한 성품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열 네 명의 손자가 있다면 그 중 둘도 서로 같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르게 행동하고 독특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

에도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따라,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는지에 따라, 우리 필요에 맞게 대해 주십니다.

달라서 좋습니다.

저는 간증이 재미있고 유익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해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혹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것에 대해 간증하면,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과는 다르구나” 혹은 “나는 저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당신이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오, 내가 저 은사를 받을 때는 저렇게 체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를 행사하기 전에 숨을 거세게 몰아 쉬면서 부들 부들 떠는 목소리로 할는지 모르지요. 반면 다른 어떤 이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예언할 때 숨을 몰아 쉬지도 않고 떠는 목소리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차분하게 은사를 행사하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받았지만 각각 다르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양하신 분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루십니다. 우리 각자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개인적으로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개인적으로 대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흉내내려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은사를 행사하는 것을 보고, 그것만이 그 은사가 행사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복사하려 하지 마십시오. 같은 패턴을 따르려 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나도 저런 체험을 하지 못하면, 은사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

다른 사람이 한 체험을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체험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온 몸으로 철철 흘러내리며, 온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간증하는 이도 있지요. “차가운 물이 내 등에서 철철 넘쳐 내렸습니다.” 혹은 “온 방을 가득 채우는 은은한 빛과 같았어요.” 저는 그들의 체험을 부인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모두다 귀하고 훌륭한 체험들입니다.

당신이 뜨거운 기름의 체험이 있다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을 체험했다면 훌륭합니다! 은은한 빛을 체험했다면 놀랍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것과 꼭 같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눈이 예수님보다 체험에 쏠리게 됩니다.

그의 뜻에 따라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의 뜻에 따라 절대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편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특별한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전혀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들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사실을 판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게도 이것이 오랜동안의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보니 아니 이럴 수가! 저녁 일곱 시가 아니겠어요! 다섯 시간이 순식간에 지난 것이지요.” 어린아이일 때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내가 돌아왔을 때”란 말의 의미가 정신을 잃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성령세례를 받거나 성령충만을 받으면 정신을 잃게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후, 여러 해 동안 쓰러져서 정신을 잃은 상태가 되기를 기다렸지요. 그렇지만 제게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각 교회에 성령 부어주신 일이 각각 독특한 것을 보실 것입니다. 한 가지 모양으로 모든 교회에 부여된 것이 아니며, 어느 한 군데도 같은 방법으로 일어났다고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식에 묶어두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절대주권적인 하나님이 되시게 하고 그의 뜻대로 역사하시게 해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칩니다.(고전 12:7).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경마장에 가서 싹쓸이를 해서 돈을 벌라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참으로 가증한 악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자기의 부를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이지요. 친구나 자녀가 안수 기도로 병이 나으면, 너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역사하게 한 그 사람에게 선물 세례를 퍼붓는 거지요.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부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혼자 집에 앉아서 즐기고 만족하라고 주신 장난감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전체를 축복하시는데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전체보다 개인의 덕을 위해 주신 은사가 한 가지 있긴 한데, 그것은 방언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라고 말했습니다.(고전 14:4). 혼자서 개인 기도할 때에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면 자신에게 덕이 됩니다. 이 은사는 개인의 덕을 위해 주신 유일한 은사입니다. 통역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은사는 교회 전체에 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법칙은, 성령의 은사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은사들이 겹칠 때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날 때, 종종 은사들끼리 중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영 분별의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겹치기도 하고, 혹은 예언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중복이 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친구야, 내가 보기에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위험해. 계속하면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날걸세.”라고 경고했는데, 얼마후에 실제로 그 경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는 예언의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함께 활용된 것입니다.

말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얼마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자동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 사실은, 모든 은사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가 은사의 활용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셔서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일을 조화시키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무지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어느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인가?

고린도전서 12장 끝에서 바울은, 더욱 큰(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이란 상대적인 단어입니다. 무엇을 위해 가장 좋은 은사인가 말입니다. 현재의 사역을 위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가 아닐까요.

저는 차고에 여러 가지 종류의 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톱이 제가 가지고 있는 톱 중에 가장 좋은 톱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자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도 파이프를 자르려 하면서, 나무 자르는 공작톱을 사용하면 큰일나겠지요. 문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이지요.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도 똑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어느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입니까는, 지금 막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일에 꼭 필요한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이지요.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은사에 대해 공부하면서, 각 은사가 그 때 그 때에 따라 모두 가치있게 쓰이는 것을 보게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방언의 은사가 가장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방언의 은사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도 있지요. 사람들이 당신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기적의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가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렌트를 내야하는데 통장에 한 푼도 없을 때 말입니다. 이런 때, 방언의 은사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지요. 그러나 기적의 은사는 틀림없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들을 살펴보면, 각 형편에 따라 각기 은사들이 가장 좋은 은사가 되는 것을 보게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고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참 특이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대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질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으로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역사이십니다.

적을 똑바로 알고 싸움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어떤 특정한 교리상의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해서 서로 싸우거나 대적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역을 하고 섬긴다고 해서, 교회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비방하는 일은 비극입니다.

교회의 가장 파국적인 비극은, 진정한 적이 누군가를 판단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경우 스스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툽니다. 서로 담을 쌓

고 나뉘어서 싸우는 것은 비극입니다. 사탄은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고 나뉘게 하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우리는 서로 싸워서 안 됩니다. 사람들을 어두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연합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사탄이며, 우리가 할 일은 그의 왕국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으로 구해내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구원을 얻고 나면,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다른 교회에 나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에 사람을 늘리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저 늙은 대머리 목사가 뭐 알아? 나는 좀 팔팔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해. 나는 좀 잘 웃기고 똑똑한 목사가 좋아.”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없겠지요.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죄에 빠져 어두움에서 헤매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섬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갈보리채플에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갈보리채플은 이러한 면이 잘못되어 있고, 이러 이러한 교리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거기서 무엇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시는 것 같군요. 우리 갈보리채플에 가입하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가 한 가지 문제를 들어, 충격 받았다고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저는 말하기를, “당신이 가까이서 보면 충격 받을 일들을 더 많이 보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것은 편안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됩니다.

저는 전에, 어떤 교회들이 형식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예배 가까운 입고 예배를 드리다니, 저건 형식으로 가득찬 죽은 예배야.”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좀 심하게 흥분적인 예배를 드리는 오순절파의 예배를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함을 지르고 펄쩍 펄쩍 뛰면서 난리를 치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한심하군.” 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후에,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것의 좋은 점이 적어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지요. 세월이 가면서, 저는 의식을 강조하는 형태의 예배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질은 그러한 형태의 예배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또, 흥분된 형태의 예배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속에서부터 끓어 올라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며, 많은 흥분 속에서 원기 왕성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르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모두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향을 피우며 의식적인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편안하고 가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은 또한 극단적 흥분 속에서 고함을 지르고 펄 펄 뛰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예배를 원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러한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지요.

한 쪽이 옳고 한 쪽이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을 뿐이며, 다 같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서로의 차이점 때문에 “*다른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종종 있고, 그래서 싸우게 되지요. 예배 드리는 형태 때문에 서로 판단하기 보다는, 서로의 차이점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고 말했습니다.(롬 14:4). 어떤 사람이 요란하고 시끄러운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하나님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하인이 아니라, 주님의 하인임을 명심합시다. 그들이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므로,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엽시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기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자신을 전적으로 맡겼다가, 망태 할아버지가 망태기로 씌워서 잡아가듯이 하나님께 잡혀 먹혀버렸다는 바보천치 같은 떠벌이들의 얘기를 종종 듣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쌍하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다가 그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생각이 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약속하셨습니다.(눅 11:13).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치 않는 것이지요. 혹, 역사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이 이상 하시면 안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깐 그렇게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에게 기준을 정해주고 지시하려 들지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잘 아십니다.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주님과 성령님께 완전히 맡겨 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주님은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므로, 그렇게 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 덕이 되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하는 길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활용하는 모든 일도 주님께 맡깁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힘 입혀 주시고, 우리를 가장 합당한 곳에 쓰실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 고린도전서 12:8

안타까운 어머니가 젊은 아들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얘야, 공부하기 싫거든 머리라도 써야지.”

지혜가 얼마나 귀한 세상이 되었는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지식과 지혜는 각각 독특한 것으로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같지 않습니다.

지식은 지혜의 일부인가?

지식은 어떠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것이고, 지혜는 그 알고있는 사실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에 흰 줄무늬가 있는 귀여운 작은 동물은 고양이도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지식이고, 그 동물 곁에 가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금 내 앞에 몸을 코일처럼 감고있는 동물이 독사라고 말해주는 것은 지식이고, 만지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아 유식하다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은 많으면서도 활용할 줄 모르는 것이지요.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때로는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됩니다. 예를 들면, 티모시 레리 같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박식한 사람이지만, LSD 환각제로 자기 자신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같은 파멸의 길로 끌고 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무지한 일들을 믿고 행하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시 111:10)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상한 일들을 믿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싸이바바라는 도사의 수도원에서 도를 닦기 위해 누추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거의 동물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의 배설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영예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너무 충격적이라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거역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시고, 사탄은 언제나 그들을 가장 비천한 곳으로 끌고 내려가는 데,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을 거부한 똑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10,11에서,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리보다도 거짓을 믿게 내버려두신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1:28에서 점점 더 비천해지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을 불순한 어두움의 권세에게 바치는 사람은, 사탄이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데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실로 지혜의 첫 걸음도 떼지 못한 셈이지요.

지혜가 없는 지식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온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기들에 의해 온 인류가 스스로 멸망당하는 것을 지혜가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고 말했습니다.(잠언 4:7).

지혜의 은사

성경은, 일반적인 지혜의 차원을 넘어 “지혜의 말씀의 은사” 라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지혜의 저장고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어떤 도사와 같이, “무엇이든지 알고 싶으면 내게로 오라, 내가 지혜의 보물상자를 열어주리라.” 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은사는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꺼내 쓰는 지혜의 저장고가 아니라, 필요할

때에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어려운 문제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견해 차이로 나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지혜로운 말씀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것이지요.

너무 적절한 지혜의 말씀으로 인해 긴장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의견차이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합시다. 그 때 한 사람이 그 분쟁을 해결하고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기발한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 때 양쪽 모두,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어려운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주는 아주 훌륭한 해결사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차이를 좁혀 타협점을 찾아주고 복잡한 문제에 해결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서로간의 감정을 해소해주고 간격을 좁히는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놓아 모두 기분 좋게 동의하게 해줍니다.

물론, 모든 영적인 은사들처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원할 때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필요로 하는 그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지혜를 넘어 성령님께서 그 때 그 형편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직접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의 예

구약을 보면 솔로몬 왕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루는 두 여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한 아기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거의 동시에 아기를 낳았는데 한 아기가 죽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아기를 바꿔치기 해놓고 죽은 아기는 상대방 여인의 아기라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 모두, “이 아기는 내 아기” 라고 끝까지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칼을 내게로 가져 오라, 그리고 아기를 둘로 잘라 반씩 나눠 주라.” 고 했습니다. 그 때 진짜 아기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라고 했고 다른 여인은, “그것 참 공평하군요. 반쪽씩 나눠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기의 진짜 어머니를 가리키며, “이 쪽이 진짜 어머니니 아기를 이 여인에게 주라.” 고 했습니다.(왕상 3:16-28).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의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도 지혜의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아마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함정에 빠뜨리려 했을 때일 것입니다. 그들이 궁리를 짜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걸려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아닙니까?” 라는 간교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지요.” 라고 대답하는 날에는 유대인들이 모두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므로 따라다니던 군중들을 화나게 해서 다 잃게 될 것이고, 한편, “아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필요 없습니다.” 했다가는 바리새인들이 당장 관가로 달려가서 “반란입니다. 여기 반역자가 있는데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며 고발해버릴 것이었습니다. 꼼짝없이 구석으로 몰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든 걸려들게 되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지요.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동전을 내게 보이라.” 고 말씀하셨고 한 사람이 동전을 들어 보이자, “뉘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물으시고,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눅 20:22-26).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 그들을 당황하게 했고 그들의 간계는 그들의 면전에서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교회의 구제에 관한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불평했을 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권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고 했습니다.(행 6:2-4). 그 뒤를 읽어 나가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고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고, “당신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 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온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의 해결을 보아야겠다” 면서 그들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이 다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고, 결국 교회를 둘로 딱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한 쪽은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이었고(바울은 이 쪽에 속함), 다른 한 쪽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회의를 소집하면서 교회가 둘로 쪼개질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셨는지 설명하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말하고 나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율법을 말함)를 그들의 목에 두어서는 안 된다.” 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이방인 사역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일어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안(야고보의 지혜의 말씀)이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를 기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 좋군, 기가 막힌 의견이야!” 하면서 문제 해결을 보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지혜의 말씀이 폭발 직전에 있던 걸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불을 꺾던 것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 편지를 받았을 때도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행 15:1-31).

오늘날의 지혜의 말씀

저는 종종 성경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분명하게 다 알기 전에도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는데, 시작하다 보면 알맞은 성경구절이 생각나고 갑자기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하다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활용함으로 나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시 전에는 답변을 몰랐으나 말하는 동안에 마음에서

진리를 증거해 줌으로 답변을 알게되는 것. 성령님이 답변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제가 배운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본 것도 아닌데, 너무 정확하고 너무 꼭 맞는 대답이면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의 사역을 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저는 세 가지 은사가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종종 우리가 가르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는 종종 내가 가르친 성경공부 테이프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경우, “내가 이렇게 말했나? 참 좋으네!” 스스로 감탄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역사하였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저 자신의 지혜를 넘어서 지혜의 말씀의 역사로 듣는 이들에게 색깔을 더해주고 이해를 도와주고 환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신호가 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사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행해지곤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잘 몰라서 우물우물 대답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답변이 생각나던 일을 기억합니까? 명확하고 딱 들어맞는 완벽한 답변을 줄 수 있었던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은사가 행사되는지도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나중에 더 알고난 다음에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지혜의 말씀을 행사한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판단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지요.

지혜의 말씀을 행사할 때에 어떤 신호가 오거나 사이렌이 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벨이 울리면서 즉시, “자, 이제부터 내 말을 들으시오. 내 입술로부터 지혜의 말씀이 나 갑니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웬지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환각 속에서나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죽은 시체가 되살아나서 다니는 것같이 돌아다니고, 우리의 말이 우렁차고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짹짹 울리는 큰 목소리로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매우 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초자연적인 일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일어난다고 기대하지만, 많은 경우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을 모르고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말씀인데도 말입니다.

파도타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돌이켜 보면, 초자연적인 일들을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줄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 주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지요.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줄도 모르고 있을 때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전도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저의 모든 설교는 전도 설교였습니다. 항상 설교가 끝날 때마다 주님을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고 초청했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도 없는 날은(대부분의 경우 그랬는데) 재

헌신하라고 다구쳤고, 안 믿는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은 것 회개하라고 나무랐습니다. 강대상에 나와서 회개할 때까지 계속 다구쳤습니다. 저는 항상 몇 사람이 앞으로 나와 얼마나 크게 눈물로 회개했느냐로 설교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곤 했습니다.

2년치 설교를 준비해 놓고 한 교회에서 2년이 차면 다른 목회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곤 했습니다. 새 교회로 가서 다시 2년치 설교를 반복하는 것이지요. 캘리포니아의 헌팅턴비치에 올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헌팅턴비치는 인구 6천명의 조용하고 조그마한 해변 도시였고, 오렌지카운티에서 세율이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유전이 있어서 시는 풍부한 재원을 가지고 훌륭한 도서관과 학교들을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동네는 잠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파도타기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지방신문 편집장, 동네 약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매일 아침마다 파도타기를 즐겼습니다. 신나는 파도타기였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 온통 우리 셋뿐이었으니까요. 남쪽 해변이나 북쪽 해변이나 어디가 파도가 좋은지 보고 어디든 좋은 데로 가서 마음대로 파도타기를 즐길 수 있었지요. 10시쯤 끝내고는 얼마든지 우리 할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2년치 설교가 다 바닥이 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진출 요청을 하여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떠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헌팅턴비치에 사는 것이 너무 좋았고, 마침 저의 딸이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시의 학교제도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저의 딸이 계속 그 혜택을 누렸으면 했습니다.

그 때 저는 그리피스 토마스의 *‘사도 요한’* 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7과에는 요한일서의 훌륭한 요약 설교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훌륭한 설교자료로구나! 요약이 너무 잘 되어 있어.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교를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모두 43개의 설교요약이었기 때문에, *야! 일년은 헌팅턴비치에서 더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다음 주일날, 저는 이제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일년이 끝날 무렵에는 그리피스 토마스의 책과 다른 주석을 열심히 공부해서 43개의 설교를 52개로 늘일 수는 있었습니다. 요한일서를 가지고 일년을 버틴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해에 교인의 수가 *곱절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 해 동안 세례를 준 숫자보다 그 해에 세례를 준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전도설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전도가 활발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헌팅턴비치가 여전히 좋아서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때 저는 로마서가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대학 시절의 한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로마서를 읽은 적이 있었지만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곤 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면 한번 가르쳐 보자 하는 생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로마서로 인해 일어난 부흥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로 2년을 보냈는데 여전히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는 헬리의 *‘바이블 포켓 핸드북’* 신간을 읽게 되었습니다. 표지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쪽은 748쪽입니다.” 라고 써있는 것을 보고는, 이 훌륭한 책자의 저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찾아보기 위해 748쪽을 펴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모든 교회가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읽어 나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인들이 그 주중에 읽은 범위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야!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며 설교를 해*

나가면 내 남은 여생을 여기서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성경강해를 하도록 인도하시면서 초자연적인 일을 자연스럽게 하신 방법입니다. 제 목 전도설교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공부로 바뀌었고 설교자라기보다 성경 교사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과, 파도타기를 좋아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성경강해자가 되는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에서 초자연적인 일을 아주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지혜를 위해 기도하라

슬픈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양쪽 모두에게 납득이 되고 아멘이 되는 해결책을 내놓음으로 분열을 막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의 부족으로 인해 이리저리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려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찾지 않고 결정을 내립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 잠언 3:6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당신이 결정한 일에 대해 나중에 후회한 적 있습니까? *아이참, 내가 어쩌자고 이런 결정을 했지?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그리고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원망하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마 7:7).

지혜를 구하십시오. 분명히 얻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가정에서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겉으로 나타나거나 요란하게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골 2:2,3).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구하기만 하면 그 모든 지혜가 당신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구하십시오!

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 고린도전서 12:8

여러 해 전, 제가 성경대학을 다닐 때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한 여학생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나자, 제가 알고 있던 한 이혼한 사람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혼한 것은 성경말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더군다나 재혼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제 생각을 열을 올리며 성토했고 있었지요. “너도 알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 이 사람이 오랫동안 목회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하도록 특전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볼 때,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이혼해버린 그 사람의 태도가 의심스러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시간을 거의 다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재혼을 하기 위해 구혼해놓고 있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을 줄이야!.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입이 마르도록 흥분해서 저녁 내내 떠들었던 것이지요. 약 이 개월이 지난 후 그녀는 그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지식의 말씀이란 우리가 자연히 들어서 알거나 공부해서 알 수 없는 지식을 초자연적으로 알게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 관한 적절한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끝나고 나서는 당신도,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고를 통해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오르게 하셔서 그 생각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건에서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녀에게 경고하신 것인데, 그녀는 안타깝게도 듣기를 거부하고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예

지식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 놀라운 방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 때 그 때 모든 것을 다 알도록 지식을 주셔서, 아람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나 군대를 매복시키면 엘리사가 미리 알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벤하닷이 꾸민 모든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람 왕은 부하들을 의심하게 되고 장군들을 불러서, “너희들 중에 분명히 적국에 정보를 흘리는 놈이 있어. 분명히 정보가 새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그토록 우리의 일수거 일투족을 다 알 수 있단 말이나?” 누군지 자백하라고 다구쳤습니다.

부하들은 “왕이여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왕께 절대 충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어 왕이 밤에 침실에서 아내에게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것은 말씀의 지식이 엘리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의 경우처럼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나눠주시는 것이므로, 엘리사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해 주시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보니 전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적이 있는 수넴 여인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환 게하시를 보내서 평안하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돌아와서 평안하답니다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숨기시고 내게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자신도 놀란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말씀이 지식의 저장고에 가득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 때나 원하면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매번 그가 받은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지식의 말씀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던 것을 많이 봅니다. 요한복음 1:45-51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십니다. 그 때 나다나엘이 놀라서 대답하기를 “오! 당신은 참으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놀래? 여기 있어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한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세겜 동네 밖 야곱의 우물곁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사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생수” 라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자 그 여인은 신나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먼저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여인이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하십니다.(요 4:6-18 참조). 예수님은 지식의 말씀을 활용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은사가 베드로에 의해 활용되고 나중에는 바울에 의해 활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3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다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성령님을 속였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말씀으로 인해 교회가 정결케 된 것입니다.

그 뒤에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드려서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받게 하는 권능을 사고자 했을 때,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나무라면서,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14-23 절 참조). 베드로가 지식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27장에서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백부장은 그레데로부터 항해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는데 곧 광풍을 만나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배는 큰 타격을 받고,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지고,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를 저희 손에서 내어버리는 등 배를 구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해봤지만 사정은 더욱 악화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다같이 있기만 하면 배는 부숩질지라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침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말한 그대로, 얼마 후에 육지에 접근하면서 배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인명은 한 사람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식의 말씀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제가 시무하고 있는 갈보리채플에 한 한국 부인이 있는데, 한국이 남북으로 갈릴 때 오빠와 헤어진 이후 40년 동안, 오빠는 북한에 그녀는 남한에 살면서 서로 소식을 몰랐습니다. 하루는 주님이 그녀의 마음에 오빠에 관해 걱정하는 생각을 자꾸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만약 아직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만주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오빠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기도하는 동안 주님이 만주 전화번호를 하나 주셨는데, 그 번호를

그대로 걸었을 때 오빠가 전화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최근에 오빠를 만나고 왔는데, 만나로 가기 전에 주님이 오빠의 집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만주에 도착했을 때 환상으로 보여주신 오빠의 집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고 오빠와 재 상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입니다.

어떤 때는 이 지식의 말씀이 “감추인 추한 비밀들” 을 들추어내 가책을 주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갈보리채플에서 지식의 말씀이 이러한 면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교인들이 종종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데 이런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저와 이제 상종을 하지 않겠다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예배에 그 친구를 데리고 왔었는데, 자기를 데리고 오기 전에 목사님에게 자기 얘기를 낱낱이 다 고 했다는 것이지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자기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자기에게 설교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믿질 않아요. 제가 목사님께 그의 사정을 다 일러바쳐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자기 얘기를 함으로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알게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심지어 그 친구는,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 내내 자기를 바라보며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의 삶에 특별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우리의 사고의 한계를 넘어 알게 해주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에이 쓸데 없는 생각을..... 아 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거지. 함부로 추측하면 안돼.” 라고 흘려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맞을 때가 있습니다.

수년 전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였는데, 주일날 하루는 저의 아내 케이가 동네 유지 중에 한 사람인 한 교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훌륭한 모범 가장이었고 좋은 성품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내가 “내가 오늘 아침에 저 사람을 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알겠는데 여비서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상당히 강하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저도 ‘에이, 쓸데없는 생각을..... 그런 생각일랑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여비서와 바람 피우는 것 틀림없어요.” 저는 아내에게, “여보 성경에 나쁜 추측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잊어버려요.”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니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여비서와 같이 있는 것이 보여요. 팔짱을 끼고 말이에요.” 저는, “여보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저는 몇 달 후에 한 전화를 받았는데, 이들 부부가 양쪽에 각각 수화기를 들고 말하는데 다 죽어 가는 목소리로 겨우 “목사님” 소리만 하더니만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 말아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신다고요?” 하며 그는 의아해 했습니다.

“네, 알지요. 여비서와 육 개월 동안 내연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이지요? 지금 오세요. 우리 함께 얘기하고 기도합시다.”

이들 부부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미리 저의 아내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주님은 저의 아내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 선지자와 같이 사는 것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활용되는 경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종종 나타납니다. 저는 어떤 요점을 설명할 때 자주 가설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는데, 나중에 알고보면 그 가설이 어떤 사람의 정곡을 찌르게 되었던 것을 알게되곤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내 얘기

를!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에게 했지?” 라고 말하지요.

어느 주일 저녁예배에서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가려내는가에 대해 설교하면서, “항간에는 서류상으로만 선교를 하는 가짜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살면서 캔디를 한 보따리 가지고 동네로 나가서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 아이들이 달려서 모여들어 손을 뻗쳐 캔디를 얻으려고 야단이지요. 그 때 사진을 찰칵 찍어서, 별떼처럼 모인 아이들의 사진과 편지를 본국의 각 가정에 보내, ‘우리가 최근에 전도지를 들고 이 동네를 찾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어린이들의 굶주림을. 하나님은 우리 사역을 축복하셔서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돈 내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들 선교사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돈만 갈취하는 거지요. 은퇴 후 본국에 돌아와서도 후원자 명단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 계속 성금을 갈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금 이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매달 피를 빨아먹던 후원자들의 명단을 아직도 가지고 편지를 보내면서 돈을 갈취해서, 자기는 하려한 부자 동네 리도 섬에 살면서 흰 캐딜락 오픈카를 타고 날개 달린 백색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초 호화판 생활을 할 뿐 전혀 하는 사역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에 성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비서가 “목사님 이 사람 화가 단단히 낫는데요, 목사님 찾으세요.” 그래서 대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내 뺨이 뺨이었습니다. “내가 올바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나 얘기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알텐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어제 밤에 말이야, 내 사역이 가짜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잖아? 나는 리도 섬에 살고 있고 캐딜락 오픈카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내 사역은 가짜가 아니라 말이야. 분명히 알아둬!”

“아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에 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당신을 알지도 못합니다. 가설을 하나 만들어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당신이라면 오히려 주님에게 당신의 사역이 올바른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겠어요.”

제가 가설을 만들어 설명할 때는 제 나름대로 상황을 설정하고 마음대로 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활용으로 그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의 날개 달린 백색 구두까지 말해버렸으니!

지식의 말씀도 지혜의 말씀처럼

지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식의 말씀도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지식의 저장고가 아닙니다. 기분 날 때마다 찾아가서 마음대로 꺼낼 수 있는 거대한 저장창고가 아니라 말입니다.

성령님은 그의 은사를 주실 때에만 절대주권자가 아니라 역사하실 때에도 절대주권자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특별한 지식을 주시는데, 모든 경우에 항상 그런 지식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때와 특별한 상황에서 주시는 것이 내 뜻에 따라 아무 때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혜의 말씀에서처럼, 지식의 말씀도 종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것은 지식

의 말씀으로 대답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6:13-17).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신호가 울린 것도 아니고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몸에 찌릿한 전기가 오른 것도 아니고, “그는 메시아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아니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음을 말해주는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의 목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뻑뻑한 구름 가운데서 우렁차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 큰 목소리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면 좀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아주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입방아 찻는데에서 유명해지라고 주신 것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온갖 남의 부끄러운 치부를 들추어 내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역하는 자를 징계하라고 말하면서,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고 했습니다.(딤후 2:26). 사람들이 원수의 속임수에 밥이 되었을 때 많은 경우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셔서 그 사람을 볼 때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게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당신에게 그들의 문제를 보여주실 때는 오직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함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더욱 활발하게 활용된다면 우리 교회는 큰 걸음을 내 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사항

저는 때때로 지식의 말씀을 들으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당신도 아마 이런 엉터리 은사가 행해지는 것을 보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밤에 대단히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매일 저녁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계시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범한 말입니다. ” 이 가운데 무릎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것은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 나이가 되면 무릎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저는 웬만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엉터리에 속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마음이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행할 때에는 그들의 행위가 진짜까지도 격하시키게 되고 참된 성령의 역사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만듭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영적인 현상이라 영적인 은사라 주장하는 일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들의 하는 일을 보면 분명히 어지러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게 하십시오.

저는 제가 체험한 참된 성령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성령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제 삶에서 하신 일들과 또 하시고 계신 일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성령님은 더 많은 일을 제 삶에서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님에 의해 쓰임 받기를 원하며, 무엇이든지 그 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제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지식의 말씀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지혜와 이해를 위한 부분입니다. 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생수가 흘러 넘칠 때까지 부어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비결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 고린도전서 12:9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중 하나는, 우리 안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일으켜 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을 성령의 은사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히 11:1). 우리 손자를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애는 믿음으로 콧수염과 수염을 가진 성인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면도를 시작하였으며 언젠가는 자기도 얼굴에 면도할 수염이 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이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된 그들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서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저절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보복하고 복수하려는 것이 보통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한 것입니다.(눅 17:3-5). 그랬더니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명령하신대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특별한 믿음의 은사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눅 17:6). 대단한 믿음입니다.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 만약 우리에게 아보카도 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종류들의 믿음

먼저, 믿음에는 여러 종류의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롬 12:3). 저는 바울이 여기서 말한 “*믿음의 분량*”이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2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 믿음 또한 구원 얻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됩니까?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롬 10:17). 당신이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10:9).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값을 치르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희생의 제물로 바쳐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분량대로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행사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의 약속들을 믿으며, 그 약속들을 통장에서 찾아 쓰며, 그 약속들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도 종종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9-14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의 발을 만져보기까지 했다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대로 행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눅 24:10; 요 20:16,17 참조).

다른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시면서 주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셨는데(눅 24:25),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약속을 의심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이런 믿음은 더 자라야 하는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유다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말했으며(유 10),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아왔으며,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전처럼 걱정하지 않을 만큼 믿음이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4:19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러 여건들에 대한 인간적인 사고를 그의 마음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없어,” 그는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내가 불가능하다고 걱정할 일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위대한 본보기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치료하는 믿음*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걷고 계셨는데 갑자기 멈추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밀고 밀치고 당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농담도 잘 하시네요.” 베드로가 반문했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모두 10 미터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아니야,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 것을 느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숨길 수 없을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그녀는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였습니다. 많은 의원에 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그녀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 뒤에까지 가까이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고 하셨습니다.(마 9:20-22; 막 5:25-34). 이러한 믿음을 치료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치료하는 믿음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믿음의 은사와 연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많은 경우 치료와 기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를 나란히 열거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9절). 많은 경우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필요한가?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믿음이 할 수 있는 굉장한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던 중,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셔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다가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11:21-24).

굉장한 약속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11:21-24을 읽고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특수 신분증이라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믿음이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가능성에 대해 흥분하면서, 예수 믿으면 새 벤츠 자동차든 새 호화주택이든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늘 아래 있는 것 무엇이든지 말해보라, 다 가질 수 있으니!”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눅 9:23).

하나님은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대로 금액을 써넣을 수 있는 공수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에서 가장 먼 것인데 우리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따라서 이 약속은 이러한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자신의 부귀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 행하기 위해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십자가에서 마치셨지 벤츠 자동차 안에서 마치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독특한 상황에 따라 특별한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므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일들인데 저는 걱정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제가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 문제들에 대한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은사도 다른 영적인 은사들처럼 저장고에서 원할 때 아무 때나 꺼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해 전 주일 아침예배 후에, 젊은이들 여럿이서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제가 서있는 복도로 밀고 나와서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것으로 보아 걸을 수 있도록 낮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 주님,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나 강할 때에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 사람을 만져 주셔서 낮게 해주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동안 이 사람을 휠체어에서 들어내고 걸으라고 명하여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고백하지만 저는 그 때 주님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주님, 이렇게 하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 시키시는 것인가요?” 그리고는 망설였습니다. 확실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보통 휠체어에서 사람을 들어내는 일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너무 충동이 강해서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그 사람을 낮게 해달라고 구하는 믿음과 그에게 걸으라고 명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멘” 하고서는 그 사람을 휠체어에서 들어내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휴! 얼마나 안심이 되었던지요!). 그 사람은 복도를 왔다갔다하며 총총걸음으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자들은 너무 흥분해서 거의 물구나무를 설 뻔했습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오! 목사님, 할아버지가 감기가 들어서 감기 낮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인데! 5년 이상을 걷지 못하시던 다리가 다 나오셨네요!” 저는 그들이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자세하게 얘기해주지 않구..... 감기인줄 알았으면 이렇게 마음 졸이지 않았을 것 아니야.”

그 주에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시무한 적이 있는 아리조나 투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한 남자가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밀고 나왔습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녀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즉시로 주일 아침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손을 얹고 낮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일 아침에 했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머리를 쥐어짜며 주일 아침에 뭐라고 기도했던가 생각하며 똑같이 기도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해 주었고 남편은 휠체어를 밀고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때, 주일 아침에 저와 함께 있었던 제 아들 척 주니어가, “아빠, 왜 지난 주일 아침처럼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아, 주님이 그렇게 할 믿음을 이번에는 주시지 않았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믿음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으킨 것은 그 상황에서 그 순간을 위한 믿음의 은사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항상 오는 것은 아니며 모든 상황에서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날 때에 참으로 놀라운 은사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은사가 더 자주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부여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절대주권이므로, 필요한 상황에서 그 때 그 때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믿음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성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모든 상황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역사에 의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들이 만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은사뿐만 아니라 기적의 은사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자기를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증거 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보라고 권한 것을 봅니다.(딤후 5:23). 또 그의 친구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거의 죽게된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빌 2:25-27). 또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고 떠나는 것을 봅니다.(딤후 4:20). 심지어 바울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도 압니다. 세 번씩이나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대신에 그는 차고 넘치도록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고후 12:7-10; 갈 4:13,14 참조).

당신이 원할 때 언제나 나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은사들은 성령님께 속해 있고,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고전 12:11). 내게 갑자기 병고치는 은사가 주어져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돌아다니며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특별한 시간과 특수한 상황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높은 믿음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격렬하게 채찍질해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로 와서 그 때 그 때 역사하는 것으로서, 갑자기 어떤 일을 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거 내가 뭐하고 있는거야?” 하면서 의아해 하지만,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충동을 일으킨 일을 실행하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주권적인 목적과 절대주권적인 뜻에 따라 시시때때로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항상 스릴이 있고 흥분이 됩니다.

고난과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삶이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 구조를 받는 한편, 야고보는 목이 잘려 처형당했습니다. 야고보의 믿음이 더 적었던 것

도 아니고, 베드로도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벧전 4:19).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 자신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소서.”

히브리서 저자는 견뎌냄을 받지 못한 위대한 믿음의 남녀 성도들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 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 11:35-37).

아니, 이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남녀 성도들이었던 말입니까? 벤츠 자동차는 어디 있습니까? 보석들은 어디 있으며 롤렉스 시계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무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말을 아직 다 마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히 11:38-40).

믿음의 은사가 당신을 모든 고통과 질병과 문제로부터 보호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어느 날 당신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다려 볼만합니다.

영광과 믿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게끔 택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얻으면 그것은 우리가 번 것이 아님이 명백해집니다. 믿음은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받으려 하고 칭찬 받으려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잘 아십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에게 자리잡은 성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린아이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서서, “아빠, 나 좀 보세요. 여기서 뛰어 내릴 수 있어요.” 하면서 뛰어 내릴 때, 아빠가 “와! 장하다. 잘했어!” 칭찬해주기를 바랍니다. 용감한 것과 높은 테이블에서 뛰어내리는 용기를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러나 문제는, 칭찬을 받고자하는 욕망이 너무 강하다보니 우리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궁핍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는 척 하게 되고 따라서 허상의 자기만족에 대해 축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님에게만 속한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점수를 따거나 스스로 영광을 받지 못하게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시대에 오직 소수의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군대에서 구하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미디안은 135,000이 넘는 군대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32,000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무슨 영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 내가 미디안 군대를 32,000명에게 붙이면 자기들이 구원하였다고 자궁할거야. 그러므로 너는 나가서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집으로 가게 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해서 3분의 2를 보내고 10,000명만 남겨 두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기드온아, 백성이 아직도 많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잘 알아. 10,000명에게 미디안 군대를 붙이면 자기들이 구원하였다고 자궁할거야. 좀더 보내라.” 두 번째로 줄이고 나니까 300명만 기드온과 함께 남았습니다. 이번이야 하나님이 “됐다. 이제.” 라고 말씀하십니다.(사사기 7장 참조).

주님이 그렇게 작은 숫자의 군대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8,9). 하나님은 사람의 자랑을 물리치십니다.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은 감추도록 합시다.

공허함을 채웁시다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능력을 꼭 보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일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령과학으로, 사탄숭배로, 동방종교로, 뉴에이지운동으로, 귀신을 불러낸다는 무당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세계가 존재하는 어떤 증거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주위의 회의적인 세상에 대해 이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음을 시작함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확실히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소망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 고린도전서 12:9

우리 어머니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치의라고 배워왔습니다. 언제든 우리 중 누가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언제나 첫 치료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치료도 함께 했는데, 가슴앓이를 치료하기 위해 양파 자루를 가슴에 얹고 있는다든지 삼베 습포를 붙이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아프기 시작하면 바로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

다. 주님을 의지하면 낮게 해주신다는 가르침을 늘 받았습니다.

저의 아이들도 이러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플 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 하라고 가르쳤지요.

저는 절대로 의사에게 가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저도 의사에게 갑니다. 저는 편도선을 치료해 달라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결국은 의사에게 가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시지 않아서 의사에게 가서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의술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깨달음과 지식을 주어서 치료약을 개발하기도 하고 수술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만으로 치료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진찰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물론, 의사가 당신의 팔의 상처를 꿰매고 봉합하면 자기가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그 상처의 살이 아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의사들이 자기들이 할 일은 하지만 실제 치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치료가 다 그렇습니다.

은사들이지 은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9에 보면 바울이 “은사” 라는 단어를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돕게 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은사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늘어 설 정도였습니다. 빌립과 바울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은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나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단어를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다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이며, 병 고치는 은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해 동안 기적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싶어했습니다. 이 은사들을 받기 위해 사막으로 나가서 장기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픈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에, 저는 기도로 아픈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란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시는 것인 줄 잘 알고 있었지만 제게 그러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주님께 맡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거의 30년 전에, 성령이란 주제에 대해 퍽 관심이 있는 친구들의 라구나비치 집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코로나에서 살면서 매주 월요일이면 라구나비치까지 먼길을 가서 이 성경공부를 인도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루 저녁은 뉴에이지 운동에 깊이 빠진 여인들 둘이 흥분으로 가득 차서 성경공부에 왔습니다. 그 전날 그들은 로스앤젤스까지 슈라인 오디토리움에서 있는 캐드린 쿨먼의 병고치는 은사집회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것

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입에 거품을 물고 로스앤젤스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저는 그날 밤 코로나 집으로 돌아오면서, “주님, 제게도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저런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로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게 이 은사를 주셔야 되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저는 주님에게, “제가 목회 초기에는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을 이해합니다. 그 때는 제가 잘못 활용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성숙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셔도 되잖아요?” 라고 즐겼습니다.

저는 그 즉시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내 말씀을 가르치라고 불렀어. 모든 사람이 다 선생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야.” 저는 그 때 다시 한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를 부르시고 은사주시고 능력 주신 일만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후 10년 동안 그것에 관해서 더 이상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날 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저녁예배가 끝난 후 저는 강단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20여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기도실로 들어가고, 그때까지 예배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으로 흥분을 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대상 양쪽에 손을 얹고 서서 하나님이 그날 저녁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주님은 이 곳 갈보리채플에 많은 축복을 주시고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는데 기적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물론 이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기적도 많이 일어났지만 사도행전에서 읽은 그런 일들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이런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주님은 제 마음 속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제일 좋은 길로 불렀단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2:31의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저는 제가 그 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병 고치는 은사나 기적의 은사보다도)” 그런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전 13:1-3).

그 때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고 주님우리 사랑을 나누며 전파하겠습니다.” 하고 말씀 드리고는 그 이후로 한번도 이 문제로 더 이상 주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데 왜 그보다 못한 것에 연연하겠습니까?

물론 저는 아직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 것이나 기쁨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은 모두 성경적이라 믿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낮고 어떤 사람들은 낮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의 제한된 능력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은 매우 크지만 제가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 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제가 스스로 믿음을 돈굽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오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나았다면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여러 번 치료함을 받았고 우리 아이들도 여러 번 나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낫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은사는 끝났는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기적의 능력과 특이한 현상을 일으킨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때는 신학교도 없었고 거대한 교회당도 없었으므로 교회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발동을 거는데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말하기를, 이제는 훌륭한 교육기관도 마련되었고 조직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지식적으로 불신자들에게 도전할 수 있고, 변증론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 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 선교연맹(Christian Missionary and Alliance) 교회의 창시자인 에이 쥐 고든 박사는 그의 저서 *‘치료의 사역’* 에서, 교회의 역사를 초창기부터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때 그 때마다 특정한 단체에 의해서 놀라운 병 고침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 웨슬리 선생도 믿음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든 박사는 병고침의 은사가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많은 믿음만한 증언들의 기록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걸친 성경의 역사를 통해,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치료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을 중단하셨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사역을 중단하셨다는 것은 아무도 성경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스스로도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많은 아픈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치료하심

처음으로 치료하심이 기록된 것은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일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원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락을 자기의 누이라 거짓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락을 취하여 후궁의 방으로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그의 아내와 여종들에게 재앙을 내려 아무도 임신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루 밤에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주여,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그녀는 네 누이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냐? 하고 따졌습니다. 그 때 아브라함은, ”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는 아름답고 그녀를 인하여 당신이 나를 죽이고 그녀를 취할까 두려워서, 내 누이라고 하였습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비멜렉은, ” 네 아내를 데려가고, 하나님이 나와 내 백성을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습니다. “(창 20:17).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출 15:26).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율법을 공부해보면, 그것들이 다름아닌 건강의 비결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위생과 실제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것들이지요.

신명기 32:39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줄 알라. 나와 함Rrrp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30:2에서 기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했고, 103편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히스기야 왕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하라 하시면서, 히스기야 왕을 치료해 주실 것과 십오년을 더 살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왕하 20:1-6).

아마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사야가 구세주에 대해 예언하면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구절일 것입니다.(사 53:5).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을 낮게 하기 위해서도 고통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라고 믿습시다. 우리의 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픈 것과 병도 담당하신 것이지요.

신약에 기록된 치료하심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열병으로 앓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일대의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과 귀신들린 자들을 베드로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시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 8:16).

의심할 여지없이, 병 고침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며 명령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0:8). 두 장 뒤로 가면,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고, 14장에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15:30은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병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 고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관계를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병 고치는 사역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요 10:30-32).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포함해서 그가 하신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병 고침의 사역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주요 사역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30에서는 교회가 주님에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고, 5:16에서는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으며, 8장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놀라운 병 고침의 사역을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8장은 멀리데 섬에서 행한 바울의 병 고침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을 낫게 해주었으며,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바울이 안수 기도해서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약 5:14,15)

신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열거한 구절들 외에 더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대한 약속과 치료받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 오늘날은 병 고침을 보기가 힘든가?

병 고침의 사역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해볼 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약에서도 기도의 응답으로 치료해 주셨고, 병 고침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주요한 부분을 담당했고, 하나님은 신약의 기록된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왜 오늘날은 하나님의 병고침의 역사를 그다지 볼 수 없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저는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일을 중단하셨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가 많이 볼 수 없는 원인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필요에 대한 동정심이 식어서라기 보다는, 우리들의 믿음의 결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회의주의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오셨을 때,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신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의아해 했습니다.(마 13:55,56). 그들의 회의주의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방해를 받았던 것입니다.{1}

또 한 경우는, 제자들이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

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늘날의 사람들이 옛날처럼 자주 치료받지 못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불신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연관된 질문은, “왜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많이 볼 수 없느냐?” 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로 인해 스스로 부자가 되고자 기업화를 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인사들은 병 고치는 은사집회를 통해 거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속였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은사가 진짜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은사를 자기들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발동하게 되고, 은사를 이용해서 돈을 벌자는 충동을 쉽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는 개인적인 부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며, 교회 바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찾아보도록 자극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낫지 않는가?

또 하나의 제기되는 의문은, “왜 모든 사람이 낫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가?” 입니다.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은 “모르겠다.” 입니다. 하나님의 병 고치심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던 바울 사도가, 자신은 몸이 아팠던 것을 생각하면 흥미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가 얼마나 아팠던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갈 4:13,15).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바울은, “내 육체에 가시” 를 언급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5:23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고 권합니다. 바울이 틀림없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여러 차례 그에게 손을 얹고 위장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실제적인 치료 방법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에 가면 그 곳의 물을 마시지 말아라. 그 안에 대장균이 우글거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대신에 포도주를 마시렴.” 과 같은 이런 권면이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2:25-30에 있는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거의 죽게된 것을 전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20에서는, “드로비모는 병들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때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낫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안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병 고치는 안수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손을 얹고, 어디에 손을 얹고, 어떠한 몸짓으로 하는지를 개발하여 공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세미나까지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다. 그런데 세미나를 개최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아픈 사람들 보면 우습습니다. 모든 해답을 다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이지요. 병 고침은 어떤 공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것뿐인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절대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실 때도 절대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원하는 사람에게 안수기도만 하면 항상 낫는 것은 아닙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고치시지만 낫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만 알고 계실 일입니다.

사실 보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병들고 암으로 죽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완벽한 건강을 누리며 오래 살다가 나이 많아 편안히 죽는 것도 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는 일도 어떻게 낫게 하시고 안 낫게 하시고를 선택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훌륭한 전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저를 고쳐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의 병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계획과 뜻에 제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잘 아시므로 저는 그 안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병이 낫지 않는다고 슬퍼하거나 화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으니까요.”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벧전 4:19).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최선의 일만을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더욱 큰 기적입니다.

병든 자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나누어주시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은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교회를 통해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온전케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놀라운 은사를 활용함으로 교회가 유익을 얻고 혜택을 누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을 믿고 신뢰 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인 줄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의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의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고 넘치게 또,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병 낫기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12

가장 가지기 힘든 은사

어떤 이에게는 능력(기적; *the working of miracles* - kjv)행함을

.....

-- 고린도전서 12:10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기본적인 자연의 법칙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기 법칙이라든지 중력의 법칙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러한 법칙들이 우주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관찰함으로써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거대한 힘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보 747기가 공중으로 이륙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공기역학의 법칙을 이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747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기적이라고 생각지 않았겠습니까? “저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저렇게 큰 것을 공중에 공중에 띄울 수는 없다.” 고 말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 공기층 위에 강한 공기를 불게 하면 물체가 뜬다는 것을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의 자연법칙을 이용함으로써 중력의 법칙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자연의 법칙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자연의 법칙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면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고, 다만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이용하신 것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기적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간단한 어떤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는 것은 항상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능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면 힘든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립바 왕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했습니다.(행 26:8). 하나님에게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일도 아닙니다. 아담이 생명이 없는 단순한 진흙인 상태에 있을 때에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그러한 기적을 부지런히 일으켜 오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적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차 있는데 아마 가장 놀라운 기적은 첫 번째 구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남어지 모든 성경말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만물을 지으실 만큼 크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슬픈 일이지만 이 세상에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들이 자연현상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그럴듯한 한 얘기를 하는데, 약 150억년 전에 이 우주 공간에 공기가 계속 팽창하던 중 결국 폭발하여 “빅뱅” 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지구와 태양계가 생겨나고, 그후 어떻게 해서 번갯불이 초창기 지구 표면의 암모니아와 수소 층을 때려, 원래부터 존재하던 어떤 분비물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스스로 복제를 가능케 하는 내부 코드를 지닌 작은 세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후 수억 년에 걸친 변종을 거듭하면서, 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느끼기도 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희한한 분비물과 호르몬을 스스로 생산하는 기가 막힌 기능을 가진 완벽한 몸을 가진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 의하면, 우리는 불가능하리 만치 길게 거듭된 일련의 돌발적인 사고와 변종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되어 여기 있습니

다. 전혀 기적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손녀 아이는, 한 예쁜 공주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공주가 연못에 갔을 때 아주 귀여운 개구리 한 마리가 헤엄쳐 와서는 그녀에게 뛰어 올라 개골개골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여운 개구리는 그녀가 연못에 갈 때마다 언제나 처량하게 그녀를 쳐다보면서 개골개골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순간적 충동으로 “오 귀여운 개구리야!” 하면서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개구리가 잘생긴 왕자로 변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원래 이 개구리는 소년이었는데 어떤 마귀할머니 마술을 걸어 개구리로 만들어 버렸고, 다시 왕자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쁜 공주가 그에게 키스를 해주는 것인데, 마귀할머니 그를 아주 흉칙한 개구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고 순식간에 그는 개구리에서 왕자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이야기입니까?

물론 제 손녀 아이는 그 이야기를 진짜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할 뿐이지 믿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일 뿐, 개구리가 잘생긴 왕자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만큼 똑똑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으니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들은 순간적으로 변했다고 믿지는 않지만, 수억 년의 세월을 걸쳐서 변화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 점만 다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돌발적인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된 수십 억의 변화를 거쳐 그 흉칙한 원시적인 분비물이 당신과 저의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싫어할 때에 무엇을 믿게 되는지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성경의 기적들을 믿지 못하고 자연현상의 범위 안에서 설명하려는 사람들의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좁고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 범위 내에서만 행동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자연법칙을 창조하시고 세우신 분임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게 되고 성경의 모든 기적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기적들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약의 기적들

모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불러온 사람도 모세였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도 그를 통해 하셨습니다.⁽¹⁾ 온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호수아도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쌓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땅으로 건널 수 있었던 이야기를 읽어서 압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가 7일 동안 13 바퀴를 돌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실도 잘 압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적군을 추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하셔서 거의 하루 동안 해가지지 않는 “긴 날” 이 되었던 이야기도 읽어서 압니다.

엘리아도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매 소낙비가 퍼부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하루 두 번씩 떡과 고기를 가져다주었고, 나중에는 기름과 밀가루가 거의 다 떨어진 과부의 항아리를 가뭄이 끝

날 때까지 매일 매일 채워주심으로 과부를 통해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의 기적은 그의 선생이 일으킨 기적의 갑절이 됩니다. 우리는 그가 엘리야의 겹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진 사실과, 여리고의 쓴 물을 고친 일과,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과, 물에서 도끼가 떠오르게 한 일들을 잘 압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실 것에 대한 증거로 일영표를 10도 뒤로 물리신 것을 읽었고, 다니엘서에서는 세 히브리 소년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돌아다니는 사실과,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에서, 천사가 사자들의 입과 발톱을 막아주셔서 하룻밤을 지낼 수가 있었던 사실을 읽어서 잘 압니다. 구약 성경은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의 기적

예수님의 삶은 수없이 많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녀 탄생으로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바꾼 사건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멀리서 고쳐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흘 동안이나 무덤 안에 있던 친구 나사로를 포함해 적어도 세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주셨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고 나중에는 물위를 걸으신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기적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기적들을 빼면 별로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 감옥에서 풀려나고, 스테반에 의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선교여행을 갔을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던 것을 잘 압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는 도르가를 죽음에서 살렸고, 그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았습니다. 바울의 삶도 기적으로 꽉차 있는데, 이방인의 높은 사람을 치료해 준 것에서부터 유두고를 죽음에서 살리기 하고,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까지 있었던 것을 잘 압니다. 기적은 그 두 사람의 사역에 있어서 크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나는가?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나는가 아니면 사도들을 마지막으로 모든 기적은 끝이 났는가? 이 질문은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제기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는가?” 고 말입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면 초자연적인 현상은 계속 일어날 수 있고 따라서 기적은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길을 알고자 예수님께 왔다가 결국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르시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 19:23-26)

기적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을 얻는 것이라면,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에, 구원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날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저는 사회에서 쓸모 없고 가망이 없다고 버림받은 많은 남녀들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에서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스스로 지독스럽게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지만 할 수 없었던 삶의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통하여 가져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류의 기적은 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 오랫동안 몸부림치던 부분에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을 때, 완전히 포기하고,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결정한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일이며, 그것이 당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오늘날도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가능하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기적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지만 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는 성경시대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이 기적 일으키는 은사를 주시기를 중단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오늘날 누구든지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가지기가 매우 힘들다고 믿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그 은사를 남용할 유혹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독실한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완전히 죽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오늘날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이 은사를 맡기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위험은 이 은사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것이 바로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제안 했던 일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장하셨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너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라,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 능력을 쓰라.” 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시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마 4:4)

두 번째 위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자신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좌에 올려놓고 받들어 모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사람으로 높이 우러러보는 것이지요. 그러한 아침을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게 더 감사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에게 보상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저의 사역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서, “좀 만져봐도 될까요?” 혹은 “우리 개를 좀 만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애는 목사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모른답니다.” 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문에 누워있는 얇은뱅이를 일으키시기 위해 베드로를 쓰셨을 때에, 사람들이 기이히 여기며 놀라 베드로를 떠받들려 할 때에, 베드로는 즉시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하며 말했습니다.(행 3:12). 그것은 잔잔한 질책이었습니다. 이런 뜻이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기적의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일에 놀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께는 힘드신 일이 없으신 분이데, 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한 것 같이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는 너희들의 주목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는 즉시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백성들은 기적 때문에 베드로를 받들어 올리려 하였지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 만한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즈음의 많은 부흥사들 같았으면 당장 헌금대를 돌렸겠지요.

바울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40세 된 날 때부터 얇은뱅이 된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성밖 쓰스 신당의 제사장에게로 달려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요? 지금 쓰스 신이 허메 신과 함께 내려 와 계시는데.....” 라고 알리자, 제사장은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서 제사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야, 이제 됐다. 이 사람들이 우리 손바닥 안에 있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를 신들로 알도록 내버려두자.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휘둘러서 결국은 주님께로 인도하면 되지, 그 동안 실컷 재미있게 골려주기나 하고.....” 라고 하기가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자기들도 다만 사람일뿐이라고 말하며 겨우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습니다.(행 14:8-18).

개인의 야망이나 영광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 은사가 그를 철저히 망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은사는 참 가지기 힘든 은사입니다.

회의주의의 장애

이 은사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 첫째가 우리가 사는 합리주의적인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제도에도 깊숙히 들어와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 머리에 스며들어 잠재해 있습니다. 이 합리주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지요. 저는 자동차 정비에 대해 꽤 아는 편입니다. 배터리가 나가서 시동이 안 걸릴 때는 시동을 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오! 하나님, 시동이 걸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안 통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저의 아내는 자동차 기계에 대해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동이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게 “여보, 한번만 더해봐요.”

“안 돼요. 글썽 안 된다니까. 내가 기계를 잘 알아요.” 라고 핀잔을 줍니다.

“글썽, 한번만 더 해보자니까요. 한번만 더 해보세요.”

아니, 뭣 때문에 쓸데없는 일을? 내가 해봤잖아요. 이걸 뱃더리가 나간거예요. 당신은 기계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

“그래도 한번만 더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입니까? 시동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초자연적인 일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 그럼 이요. 여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의 믿음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는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두통이 있으세요? 두통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도 하지요. “주님, 머리 아픈 것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낫지 않으면 아스피린을 먹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당신을 찾아와서 “우리 아이의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백혈병이랍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한다면, 으악! 백혈병! 골수암! 오! 이걸 불치의 병! 아이구! 백혈병을 고칠만한 간절한 기도를 해야지! “주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같은 짧은 기도 가지고는 어렵도 없지요. 심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해야지요. “오! 주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셔서 천상지하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지요.....” 하면서 가장 간절하고도 뜨거운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에게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간단한 문제는 하나님께도 간단할 것 같고, 우리에게 약간 힘든 일은 하나님께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지요.

월남전에서 팔을 날린 상이용사가 당신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새 팔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뭐라고 할까요? “글세 올시다.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은 한 팔에 기민성을 더하셔서 한 팔로도 부족함 없이 생활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적응하고 살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은 사람 몸에 새 팔을 붙여주시지는 않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령이를 반으로 자르면 반쪽이 자라나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아시나요? 문어 다리를 자르면 새 다리가 다시 자라는 나 오는 것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문어와 지령이를 더 사랑하시나요? 그것들을 위해서는 하시는 일을 우리들을 위해서는 하지 않으신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 팔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 팔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새 팔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이 없게 된 이유는 의심할 여지없이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많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진짜 은사를 가진 것처럼 믿게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자기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속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합리화하려들지요.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한다는 격언을 들고 나오지만 성경에서는 뒷받침 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은 신문에 글을 연재하는 기고가이기도 한데, 얼마

전, 필라델피아의 한 치료 은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환자들 중에 맨 앞줄에 처번째 좌석에 노인이 한 분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탱크에서 나온 여러개의 튜브가 이리저리 얼굴에 연결되어 있었고, 부흥사는 산소탱크와 튜브들을 가리키면서 극적인 연기를 열심히 연출했습니다. 부흥사는 드디어 그 환자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 그 환자는 얼굴의 모든 튜브를 다 뽑아버리고 산소탱크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는 부흥사가 그 환자더러 복도를 뛰어 달려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복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 때 부흥사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다 나은 것 같군요.” 장내는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이 노인과 그의 아내가 차를 타기 위해 가고 있을 때에, 저의 부목사가 다가가서 “잠시만 봅시다. 오늘 저녁에 일어난 일에 관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했습니다. 그 때 그의 아내가 대답하기를, “오! 부흥사님이 내일도 우리에게 산소탱크를 빌려오라고 하시던가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는 “아! 그게 아니구요, 당신의 남편 일로 인터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산소탱크와 튜브들은 하루 저녁 세내서 빌리는 장비였고, 모든 것이 짜여진 연극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 노인은 원래 오래 전 집회에서 치료받은 사람인데, 집회관계자가 청중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다시 무대에 올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기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의 믿음을 더하게 해준다는 미명 아래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속임수가 필요 없으신 분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꾸미는 것을 필요로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알팍한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기적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무 많은 방해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못한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있어서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위의 많은 산만한 것들이 깊고 밀접한 참다운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4:12).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욕심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마 13:3-23).

우리가 살고 있는 전자시대는 더 많은 방해요소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전화, 라디오 등은 모든 종류의 충동과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으로 홍수처럼 밀려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조금씩은 알지만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꿰고 있기는 합니지만, 이것저것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약간씩만 알뿐, 하나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알팍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이 못한 것입니다.

많은 면에서 사도시대는 우리 시대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오늘날보다도 훨씬 밀접한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음악도 듣지 않

고, 뉴스도 듣지 않고, 자연 속에 휩싸여서 나무들과 꽃들과 동물들을 보면서, 밤에는 담요를 감고 누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노라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독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간다면 걷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갈 것이고, 열심히 히브리어 표지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느라 머리가 복잡할 테고, 주의 깊게 교통도 관찰해야 할 것이고, 난폭 운전자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다 보면, 너무 많은 충돌과 생각들이 뇌로 몰려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풍성한 영적인 영양을 취할 시간을 도저히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한두 번 정도 아슬아슬하게 충돌이라도 피하고 나면 바짝 긴장이 되어서는, “저거, 정신 나간 녀석 아니야! 끌어내려서 길바닥에다 패대기를 쳐버릴까보다. 거기서 어떻게 나를 추월하겠다는거야 도데체! 내가 빨리 피하지만 않았더라도 큰 사고 날 뻔하지 않았나? 하마터면 정면충돌로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 저런 녀석은 단단히 혼내줘야 해!” 이런 많은 생각들이 마음에 몰려오면 하나님과, 그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그의 영원하신 계획도 생각해볼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가 온통, 그리고 우리의 생활방식이 우리를 단순으로부터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옛날의 성도들보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며, 그것이 바로 그 당시보다 지금이 기적의 은사를 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기적을 일으키는 참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뉴기니에 사는 한 순진한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정글 속에 살면서 아주 간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잔디밭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있노라면 저의 가슴이 마구 뛰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기적 다음에 기적을 계속해서 베푸신 깜짝 놀랄만한 간증을 들었는데, 굉장한 일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다든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하는 엄청난 일들이었으며, 이 모든 일들은 그 지역의 선교사들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여 한 학교를 시작하셨는데, 저는 그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녀 자신은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보았는데, 모두가, 그 때 잔디밭에 앉아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그 여인으로 인해 모인 학생들이었으며, 그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통해 하시고 계신 일들에 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앗아가는 충돌으로 가득 찬 복잡한 세상에 살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감동을 받고, “오! 하나님, 이 엄청난 사실을 세상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정글로 다시 와서 그녀의 전체 스토리를 필름에 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난 것은 바로 이 순진한 시골 여인뿐이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언제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이 은사야말로 가장 귀한 은사중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특히 전도하기에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이 전도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이 은사가 쓰인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

여금 복음에 눈을 돌리게 하고 그 복음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도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하겠지만, 전혀 도달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보기를 심히 원하며, 그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막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문제이며 장애물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바로 성령의 흐름을 막고 있는 장본인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까요? 가능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하다 생각하시면, 성령께서 절대주권적으로 교회에게 이 은사를 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몇 가지 기적들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히 1:1). 베드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벧 후 1:21).

사람들이 보통 예언이라 하면 장래에 관해서 미리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 혹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언의 은사는 초대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기보다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일로 활용되었습니다.(고전 14:3).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은사

구약에서는 예언이 평범한 은사였습니다. 모세는 선지자로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변자의 일을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유지를 위한 지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말한 것들 중 어떤 것들은 장래에 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좇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얻은 땅에서도 쫓겨나고 이방 가운데 흩어져서 저주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노래가 씌어진지 수세기가 지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는데,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면 우리는 흩어져서 포로가 되리라.” 노래했던 대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온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언젠가 예언했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2:30에서 또 하나의 선지자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의 많은 시편이, 오실 메시야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것들을 자주 인용하며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의 시편들은 장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었습니다.

엘리아와 엘리사도 잘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한 것은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왕과 백성들에게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했으며, 어떤 때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대 선지서들과 소 선지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이스라엘이 얻게될 결과에 대해 경고했으며, 종종 주변 국가들--바벨론, 에돔, 두로, 모압, 그리고 애굽등에 대해서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언들은 인류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기도 했고, 아직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예언들도 있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예언의 은사

신약 교회에 목사와 전도자와 사도가 있었던 것같이 선지자의 직책도 있었습니다. 아가보는 이러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27, 28은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적고 있으며, 사도행전 21:10, 11에 보면, 바로 이 선지자가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옥에 갇힐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1에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적고 있는데, 이들은 보통 목사로서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32에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고, 바울은 에베소서 4:11에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사를 조심 없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딤후 4:14). 초대교회에서는 선지자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얼마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예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거나 그 사람의 사역이나 삶에 관한 어떤 예언들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전도자도 있는데, 사도는 몰라도 선지자는 꼭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사도 바로 밑에].....” (고전 12:28).

성경을 보면 여자들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직책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선지자였고, 데보라와 홀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나도 구약시대에 속하는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을 때 예언한 팔십 세의 여인이었습니다.

신약성경도 여 선지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빌립의 네 딸들이 선지자로 불렸고, 바울은 고린도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여인들에게 규칙을 말해주기도 했습니다.⁽¹⁾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에서 모두 여 선지자의 직책을 주셨다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자들에게 선지자의 직책을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요엘은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에 “너희 자녀들(아들과 딸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욘 2:28, 행 2:17). 그러므로 저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여러 가지 지도자의 직분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성경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사역은 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12에서 바울은,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일만은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못하도록 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한을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늙은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으며(딤후 2:3,4),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어릴 때부터 주님께 관해 가르친 것을 칭찬했습니다.

예언의 목적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꼭 선지자의 직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은 별개이며 독특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모든 신자가 예언의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사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전 14:1). 우리는 모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와 비교하면서,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가지고 싶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는 공중예배에서 예언은 권하면서도 방언은 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라 했습니다.(고전 14:4). 예언이 교회에 대해서는 더 가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14:3). 이 세 가지 예언의 목적을 자세히 들여다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덕을 세우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한 위치를 확보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해라”든지,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든지. 우리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도록 결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찬양하도록, 기도하도록, 주님 섬기는 일들을 하도록 권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언은 우리를 안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실수에 빠질 때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 것을 일깨워 주고 위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예언

장래에 관한 예언의 측면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신 측면 모두에서 예언은 저의 사역에 있어서 수 십 년에 걸쳐서 중요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예언으로 제게 지시하기도 하시고 인도하기도 하시며 어떤 때는 행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 17년간의 목회는 실패와 좌절뿐이었습니다.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부르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래의 갈보리채플 교인들이 저를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을 해서 저는 기쁨으로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전화를 해서는, 모두 흩어지기로 했으니 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 이곳에서 이미 사표를 내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그 교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부임한 다음 날, 기도회에서 교인들이 제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예언이 나

왔는데, 모두 현실과는 거리가 먼 꿈과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수많은 양떼의 목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당시의 작은 건물이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비좁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그 빌딩을 개조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있는 교회 건물로 옮기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라디오 방송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에 알려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낙심 끝에 흩어지기로 마음먹었던 열두 사람의 교인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멧세지였습니다. 그들은 열왕기하 7:2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도저히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예배 후에 우리는 모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모두 점심을 하러 갈 만큼 작은 교회였지요.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 저는 교회 건물 개조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이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지요.

일년여가 지나 후에, 우리는 건물이 비좁아 다른 건물을 찾아야 할만큼 교회가 성장했고, 새 장소를 모색 중 오래지 않아 코스타메사의 Bay(바다)라는 길에 있는 건물을 찾았습니다. 그 때에야 그들은 처음에 나왔던 예언을 말하면서 이 건물은 “바다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바다’ 라는 길을 내려다보게 되지 않았는가?” 라면서 우겼습니다. 저는 그 건물이 예언과도 합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언에 의하면 바다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있어야 한다” 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그 건물을 사기로 하고 며칠 후에 시청에 들어가서 교회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건물을 팔은 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건물이 될 줄 알고 덜컥 팔아버렸는데 건물도 없고 모일 예배장소도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야, 이거 야단 났구나, 교회는 자꾸 자라는데, 목사가 교인들의 교회를 덜컥 팔아버렸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난리가 나지 않겠나!” 고민하던 일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도면을 찾으러 다시 시청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일하는 한 여직원, “혹 우리 교회로 이사 올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새 건물을 공사 중인데 지금 건물을 사시면 어떨까요? 바다를 내려다보는 절벽에 있는 ‘뉴포트 하버 루터란 교회’ 인데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당을 짓는 동안 2년 동안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의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선교를 시작했고,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습니다.

어떻게 예언이 옵니까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활용되는 것일까요? 제 자신의 경험으로는, 아주 강한 감동이나 생각이 제 마음에 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제가 생각한 것은 첫마디밖에 없는데 계속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것들을 말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계시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하고, 안위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예언을 말하기 시작할 때, 목소리의 톤을 바꾸지 않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떨리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오-! 예언이 나오는구나 이제 정신 차리고 주의 깊게 듣자.”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보통 때의 음성으로 말하기를 계속하지만, 저는 그것이 예언인줄을 알지요. 왜냐면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제게도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죠. 공부한 적도 없고, 제 설교 노트에도 없고, 말하려고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 성령으로부터 생각과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와! 훌륭한 말씀이다. 얼마나 강력한 요지의 말씀인가! 와! 기가 막히네.” 하면서 흥분하는 것이지요. 왜냐면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 계시의 말씀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여 성도는 저의 설교 중 삼분의 일정도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면, 언제나 예배후면 제게 다가와서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 아침 설교는 제가 은혜 받은 것보다 목사님 자신이 더욱 은혜 받으신 것 같은데요.”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저는 그 말씀이 성령의 기쁨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제게 오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나타내 주시는 진리로 인해 놀라게 되는데,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흥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언할 때의 규칙

첫째로, 고린도전서 14장이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데 대한 규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교회의 예배는 적당하고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14:40).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므로(14:33), 공중예배는 예배에 참석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반응을 고려해서 드러져야 하며, 이러한 규칙이 지켜지면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앞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14:25,26).

둘째로, 바울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14:29). 오순절 계통에서는 흔히 그들의 예언의 말씀에, “주님이 가라사대” 를 첨부하는데, 참으로 주님이 말씀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진리와 합치하는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제 말만 믿고 아프리카로 떠나지 말고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말씀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제게 와서 자주, “목사님,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저런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 때 바로 그 일이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속을 태우고 있던 중이라면 그들의 말씀이 제가 할 일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제게 와서, “주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온갖 정죄하는 말로 얘기하면,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셨는데, 당신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구원코자 함이라’ 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심하게 정죄하면,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신걸요.

모든 예언은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언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 성경에는 적어도 세

군데에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1. 예언의 말씀이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과 상치되는 계시를 결코 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되면 거짓 예언으로 판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판단하는 필터가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 고 말했습니다.(렘 23:28). 저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환상과 꿈은 밀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겨와 같은 것이지요. 영양을 주고 강하게 하는 것은 밀이며, 겨는 목에 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세워주고 먹여줄 것입니다.

2. 실제 상황과 합치하는가?

저는 가끔 실제 상황과 합치하지 않는 “주님이 가라사대” 의 편지를 받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않고 있는 일로 저를 고소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저는 그것을 거짓 예언으로 판단하고 거부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장래의 일을 말한 것이라면 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을 높이는 것이 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의 아가보의 예언들은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진실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그대로 되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옥에 갇힌다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보는 하나님의 진실된 선지자임을 쉽게 알 수 단정할 수 있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인가?

신명기 13장은, 그의 예언이 실책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다른 신을 섬기라고 충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세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시험하심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이고 당신의 마음을 읽고, 당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고, 지난주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할지라도, 성경말씀과 상치되는 것을 말하거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다른 길이 많이 있다” 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이것은 당신이 말씀에 바로 서있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인 줄 아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믿음과 믿음 생활의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규칙은 고린도전서 14:30에 있습니다.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찌니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떤 사람이 말할 때에, 성령께서 제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예화를 통한 설명과 말씀의 요지가 강하게 제 마음을 대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보통 저는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일어나 제가 받은 은혜와 제게 주신 말씀들을 나눕니다. 그렇지만 먼저 말씀하던 사람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너희

는 다 모든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14:31)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순서를 따라 질서 있게 말해야지 한꺼번에 모두 일어나 예언하기 시작하면 수라장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씩 하나씩 차례를 따라 예언하면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겠지요.

바울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합니다.(고전 14:32). 당신이 은사의 활용을 자제할 수 있다는 말이며 이는 모든 은사에 있어서 다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이 자제력을 다 빼앗아 간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귀신의 영은 사람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을 빼앗아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내게 이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든지 “저절로 그렇게 되었는데 저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 들일수가 없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제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대처

성경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에 대해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널리 행해지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보통 서너 통 정도의 “주님이 가라사대” 의 편지를 받는데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써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때는 겁을 주어서 교묘히 조종하려합니다. “형제여 조심해! 내가 지난주에 한 사람에게 예언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조롱하다가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목회 초기에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는 제게 와서 그것을 온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도록 강요한 일이 있습니다. 토요일 밤에 저를 불러내서 제게 대해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검은 관이 놓여 있는데 그 안에 제가 누워있는 환상을 보았는데 제가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쳐서 죽게 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저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굳건히 딛고 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순회 부흥사가 새로 개척한 교회들을 돌면서 집회를 했는데 그 중에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이러한 가짜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고 하셨습니다.(마 7:15). 마태복음 24:11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고 예언하셨고, 마태복음 24:24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시가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너희 호색하는 것을 좃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휘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라고 썼습니다.(벧후 2:1-3).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표식입니다. 속이려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영 분별의 은사도 필요 없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도들이 역사에서 사라진 후 수 십 년 후에 교회는 “디다케” (헬라어로 가르침이란 뜻) 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작은 책자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에 대한 것으로서 초대 교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을 위해 헌금을 하라 하면 거짓 선지자로 분류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고선 자기가 먹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로 분류됩니다. ‘디다케’ 는 거짓 선지자는 교회를 뜯어먹고 살면서 스스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된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사랑하는 스미스 형제님, 저는 어제 밤에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형제의 얼굴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형제를 위한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한 잠도 자지 못하고 형제를 생각하면서 형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형제의 삶에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형제를 향한 저의 마음을 이렇게도 안타깝게 하실리가 없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항상 형제에 관해 얘기를 나눈답니다.

그래요? 나를 알 리가 없는데! 거짓 선지자의 표식인 욕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지요.

오늘 무슨 일인지를 꼭 적어서 제게 보내 주셔서 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실 때는 100 달러 짜리 수표를 꼭 동 해서 보내 주시겠습니까? 저희 사역이 지금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거든요.....

아주 슬픈 일입니다. 제가 목격한 또 다른 하나의 속임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우리 교회 여성도 한 사람이 제게 와서, “오! 스미스 형제여, 저는 좋아 죽겠습니다. 이 유명한 부흥사가 자기 집으로 저를 초대했거든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래요? 어디 그 편지 한 번 봅시다.” 하고 읽어보니까 미국에 전역에 500,000인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끌어드리려고.

은사를 사모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4:39에서 우리들에게,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이 훌륭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가지지 않았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언하시도록 쓰실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실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며, 배우게 하도록 교회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의 은사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악한 자의 가면을 벗기라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 고린도전서 12:10,11

과 학자들은 말하기를, 원자 안에는 차있는 부분보다 빈 공간이 훨씬 많

다고 합니다. 실제로, 차있는 부분보다는 빈 공간이 30,000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중성자와 그 궤도를 도는 하나의 전자로 만들어진 수소 원자 안에는 너무나 넓은 공간이 있어, 중성자를 야구공 만한 크기로 확대할 수 있다면 전자의 크기는 공기총알 정도의 크기로 야구공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궤도를 초속 10,000마일의 속도로 돌게 될 것입니다.

지구를 중성자라고 하고 달을 전자라고 가정하고, 수소 원자 안에서의 중성자와 전자의 거리와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면, 달은 지구로부터 지금의 실제 거리보다 1,000배가 더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가 빈 공간이 없도록 갑자기 쭈그러든다면, 당신을 찾기 위해 현미경을 동원해야 할만큼 미세한 먼지와 같은 크기로 변하게 됩니다.(그러나 무게는 지금의 체중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우주공간에는 지구의 원자보다 훨씬 밀도가 높은 작은 별들이 있습니다. ‘시리우스’ 라고 불리는 광도 1 도의 별이 있는데 “개 별” 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1888년에 이 별은 실제로 두 개의 별이 쌍을 이루고 있는 별임을 발견했습니다. 둘 중에 작은 별인 ‘시리우스 B’ 는 ‘새끼 별’ 이라 불리며 큰 별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새끼 별’ 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1 입방 인치의 무게가 1,750파운드(795킬로그램)나 된다고 합니다. ‘중성자’ 라는 별은 이보다 더 높아서 그 밀도가 백만 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성자 별’ 의 1 입방 인치의 무게가 17억 5천 파운드쯤 되는 것이지요. 그러고도 그 1 입방 인치 안에 여전히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설명하기를, 원자 안에는 이처럼 큰 공간이 존재하므로 이론적으로 두 개의 세계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서로 왕래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공히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각각 다른 분자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두 개의 공존하는 세계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이 바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개의 세계가 서로 왕래하면서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하나의 세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다른 세계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다른 한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하는데, 이 영적 세계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며 우리의 삶에 좋은 면으로 또 악한 면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에 대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히 1:14).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어서 우리가 선하게 살도록 좋은 영향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영적 세계가 있어, 우리를 대적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이 영들은 우리에게 막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온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엡 6:12)라고 말한 것과 같이 항상 이 세상에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도 이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악령들은 빛의 천사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에게 속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변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고후 11:14).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려 할 때에도 의문이 생기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 육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분명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 분별력이 없음으로 인해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고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마 16:13-17).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배반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무라기를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시는 것인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혹시 사탄이 준 생각이 아닌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은사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나 일어난 일에 대해 마음이 편치 못하면서도 분명하게 무엇 때문인지를 집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

은 “의심의 은사”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분명히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영 분별의 은사일 가능성이 큼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데 당신은 집어낼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거기다가 당신이 성령 안에서 걷고 영적으로 튼이 잘 맞춰져 있다면, 어두움의 권세에 대해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가끔 문제를 일으키게도 한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나는, 속이는 자의 정체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그의 거짓된 것을 다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을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도 속아넘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뻔하게 보이는데, 너무 분명한데,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는거지?”

예를 들어 “데이빗 모세 버그”를 생각해 봅시다. 70년대에 소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많은 젊은이들이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는 포르노물을 제작해서 그것으로 젊은이들을 유혹하여 끌어들이기도 하고, 소녀들을 내보내서 창녀 노릇을 하게 하여 새 동조자들을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누구나, “세상의 어느 멍청이라도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을 걸.” 이라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의 말에 속을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속아넘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

바울이 영 분별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 바로 다음에 언급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를 정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참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언할 때에 진실된 하나님의 예언을 주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영리한 가짜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거의 모든 하나님의 일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온갖 초자연적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고 적고 있습니다.(데후 2:9,10).

우리는 그 날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영 분별력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1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13-15에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술의 역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교회에게 이러한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여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이름을 대고 그들이 행한 잘못과 그 증거를 말하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그 분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내가 그 분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분이 집회하는 시간에 텔레비전에 손을 대었을 때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분의 사역의 후원자입니다.” 이미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서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에 대해 경고해주는 것이 힘듭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시기를, 어느 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가능하면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도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 분별의 은사를 가지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이 말하는 것의 99%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당신을 속이기 위한 것이요 당신의 돈을 자기 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달콤한 말로 당신의 돈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라고 했고, 바울은 이들을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이라 했습니다.(딤후 6:5).

웃점은 바로 이것인데, 누구든지 경건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 가르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그러한 자를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롬 16:17).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 경고하시기 직전에, “멀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 7:13,14)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은 크고 넓은 문에 서서,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니 이 길을 택하라!” 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지, 자신의 육체에서 나온 생각인지, 사탄을 위한 말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영 분별의 은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영 분별력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요 2:25).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요 6:64)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돌아서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영 분별의 은사로 처음부터 다 아시는 것이지요.

영 분별의 은사가 가장 분명하게 활용된 것은 사도행전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을 때,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는 전에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믿고 있었는데, 전도자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내려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온갖 병든 자들과 많은 중풍병자와 앓은병이가 나으며 눈먼 자가 보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빌립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마술사 시몬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휩쓸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조사해보도록 했는데, 그들이 내려 갔을 때 아직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은 것을 알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는 이 권능을 사는데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시몬은 마술사들 사이에 흔히 행해지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사려했던 것이지요. 저의 아버지는 아마추어 마술사였는데, 누가 특별한 마술을 부리는 것을 보시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 “그 마술 좀 삼시다.” 하곤 하셨지요. 마술사들 간에는 특별히 개발한 마술을 서로 사고 파는 것이 통례거든요.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도 성령의 권능을 하나의 마술로 알고 사려했던 것이지요.

그가 베드로로부터 받은 것은 따끔한 나무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무라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행 8:20-23).

베드로는 영 분별력을 통하여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그의 영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마술사 시몬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와! 참 놀라운 일이다!” 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왜 그랬는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라는 신인이 나타나더니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에게만 쏠리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시몬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진짜를 보고 나서는 모두 그에게서는 등을 돌리고 빌립만 따라다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 분별력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도착했을 때,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라 하는 유대인을 만나는데 그는 거짓 선지자이며 박수였습니다. 총독 서시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박수 엘루마(바예수)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궤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혈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행 13:9-12).

예, 그렇습니다.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바울은 이 사람 엘루마가 사탄의 도구로 진리의 길을 굽게 하려는 것임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 얼마 후에 바울과 실라가 두아디라 성으로 여행을 갔는데, 점 치는 여종 하나가 이들을 좇아오면서 소리지르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합니다.(행 16:17). 이 여종이 말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틀림없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지요. 그녀가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의 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영 분별의 은사로 그것을 알았고,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진리를 이용하여 거짓말하는 자

바로 위의 스토리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흔히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양의 가죽을 입고 있다.” 고 하셨습니다. 생긴 것 가지고는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 같이 생겼으니까요. 말하는 것 가지고도 거짓 선지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부분은 진리니까요.

이 늑대들이 자주 진리 같은 말을 하지만, 이들은 말뜻을 살짝 바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듣는 단어도,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그 단어를 쓰는데, 속이기 위해 단어의 정의를 바꾸는 것이지요.

여호와와 증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보십시오. “오! 물론이지요.” 라고 대답할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느냐고 물으면, “아! 그렇고 말고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하신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을 믿느냐고 물으면, “아! 그거야 말할 것도 없이 사실이지요!” 할 것입니다.

물론 교도에게 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 대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물론은 예수님을 계명성(Lucifer)의 동생이라 합니다. 옛날 옛날에 하나님(엘로힘)이 사람들을 구속할 궁리를 하다가 아들들의 조언을 듣기로 했는데 두 아들 계명

성과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내 놓았더니 아버지가 계명성의 계획은 거부하고 예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계명성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해서 예수님의 작전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입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와 그의 증인이 믿는다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의미하는 말뜻을 보면 성경과는 극단적으로 상충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쓰는 단어와 말하는 것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덜 속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른 말은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정 반대의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의 진짜 위험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그물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낚시를 몇 개 던져 놓고는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도 믿을 수가 없어. 성경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우리가 만든 책이 필요하지. 성경만 읽어 가지고는 늘 캄캄하지. 성경을 놔두고 우리가 만든 책을 읽어봐. 그러면 흰해질꺼야.” 그렇게 함으로 낚시에 낚인 사람들을 그물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영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못 분별하는 경우

영 분별의 은사는 매우 중요한 성령의 은사이며, 당신의 삶에 있어서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 활용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바른 말도 하고 바른 일도 하는데 왠지 마음이 찝찝하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감이 들 때가 있는데, 뭔가 분명히 집어낼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는데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것 있지요? 저는 마음에 그런 감이 잡히면 항상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을 보고 내린 평가가 항상 들어맞지는 않았습시다.

제가 젊었을 때 목회 초년병으로 투산에 있는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때는 교단에 속해 있었는데, 교단 본부로부터 지방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피해를 주는 부부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편지를 받았습시다. 이 부부는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단의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들먹이고 연기를 잘 해서 믿게 한 후에, 즉시로 값을 테니 자금을 좀 빌려달라는 식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을 많은 교회들로부터 갈취해 간다는 편지였습니다. 제가 앉아서 그 편지를 막 읽고 있는데 현관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습시다. 문을 열어보니 한 부부가 서있는데 편지에서 경고한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은 안경을 쓰고는 교단 지도자들의 이름을 줄줄이 대기 시작하는데 영락없이 편지에 경고한 부부였습니다. 저는 “야! 잘 걸렸다. 두고봐라!”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주 쌀쌀하게 대했는데 겨울의 서리 같이 차가웠습시다. 그들은 “저,

우리가 얼마 전에 투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하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요? 그게 어땠다는 겁니까?” 저는 투명스럽게 대답했지요.

잠시 후에 그들은 다시 “새로 건축한 본당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거야 할 수 있지요.”

그들이 교회 시설을 둘러보면서 바로 연극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참 설계를 잘 했군요. 참 잘 지었잖아요?” 저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속으로 “어림도 없지. 나는 못 속일 걸...”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정체를 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동네를 지나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주저앉았지 뭐예요.”

저는 속으로 “야, 이것 많이 들던 소리다! 어디 더 해보시지.”

“그런데 자동차 수리할 돈을 안 가져와서 고민하고 있어요. 고치는데 얼마 얼마가 든다는데 말입니다.”

“암, 그럴테지! 다 알고 있고 말고!” 저는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 편지의 부부 사기꾼인줄 알았습니다.

“언제 예배가 있습니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예배요? 아-,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저녁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다.”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저녁 예배 좋아하시네. 오긴 뭘 와? 엉터리없이 수작하다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전혀 틀리게 이들이 저녁 예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보다 제가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라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은, 우리 교회의 오랜 교인 한 사람이 이들을 보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그 두 부부를 껴안으며 “악, 이거 얼마만이에요? 어떤 일이세요 여기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순전한 진짜였던 것이지요!*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쌀쌀하게 대했던가요? 얼음처럼 차갑게 말입니다.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전혀 영 분별력이 없는 행동이었지요.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해야 할 사람이 의심하고 적대감으로 대했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 동네에 며칠 머물면서 몇몇 집에 페인트칠을 해주고 자동차 고칠 돈을 벌어서 차를 고쳤습니다. 그들은 제게 동전 한 앞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돈이 좀 필요합니다.” 소리도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에게 교단에서 온 편지를 보여주면서, “보세요. 이 편지에 경고한 부부로 생각하게끔 되어있지 않아요?” 하면서 계면쩍게 웃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려움으로부터 당신을 지키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현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가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입니다. 그는 우리가 악한 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그릇된 것으로부터 옳은 것을,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분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속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눈이 가리워서, 점검할 수도 있었고, 경고도 있었는데 무시해 버린 것이지요. “아니, 그럴리가 없어! 그들의 눈을 보면 알지...” 하면서 속아 넘어가는거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영 분별의 은사로 말미암아, 실제 속과는 다르게 겉으로 그런 척 말만 하는 사람들로 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살짝 들어와서 속이고 어지럽히려는 해롭고 위험한 교리들을 분별해내고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진실된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성에는 거슬리나; 영혼에는 축복

다른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 고린도전서 12:10,11

저의 아들 제프는 언어에 대한 타고난 달란트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

서 며칠만 지내면 떠날 때쯤은 길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되며, 다음 경유지인 스웨덴으로 가서 며칠 지내면 역시 그 곳 사람들과도 대화가 통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를 3년 공부했고 라틴어를 3년을 공부했는데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과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아들처럼 외국어를 잘 하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방언은 무엇인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2:28절에서 방언을 성령의 은사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방언이 마지막에 언급된 것을 보세요. 이것은 우선순위가 반영된 것인데, 첫째는 사도이고 마지막으로 방언이 언급된 것입니다. 방언이 참 유익하고 귀한 은사이지만 지나치게 높여서는 안 됩니다. 한편 마지막에 언급되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다 귀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를 열거한 후에, 이어서 수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대답은 물론 ‘아니오’입니다.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열거한 모든 은사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은 헬라어의 ‘글로사’를 번역한 것으로 흠정역 영어성경은 ‘unknown tongue;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 하여 ‘unknown’을 보냈는데 전체 의미에 잘 맞는 번역입니다. 방언은 말하는 사람 자신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언일 수도 있고 하늘나라의 방언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1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천사의 말이 있다고 말한 것은 주목할만한 일입니다. 질문은 그것이 무엇이 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가 무엇인가? 하늘의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늘의 언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방언으로 말할 때는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종족의 언어는 아닐지라도 진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언어의 협약

잠깐 멈추고 한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언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언어란 참 희한한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의 협약이지요. 어떤 소리는 어떤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동의한 것으로서, 당신과 제가 이 소리는 이런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서로 동의하면 우리는 의사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들만이 아는 은어를 가지고 소통하는 비밀 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럽에 속하지 않은 아이들 이 알아듣지 못하는 코드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은 재미 있습니다. “어” 는 “나중에 구멍가게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먹자.” 라든지, “너그” 는 “그래 좋다, 그런데 누가 살거니?” 라든지, “터그” 는 “내가 살게.” , “러그” 는 “좋아, 가자.” 같은 것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친구에게 “어” 하면 “너그” 라고 답하고 “터그” , “러그” 하면 곧장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하는거지요. 클럽에 속하지 않은 아이들은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알아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소리가 특정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동의하기만 하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은 하나님과 협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제가 영어(한국말)로 정확하게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저의 사랑과, 저의 헌신과, 저의 감사와, 저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개혁주의자 싸보나롤라는 “기도가 극에 달했을 때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 때가 방언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적은 내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나의 영의 표현으로 알아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모든 은총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진짜 언어인가?

가끔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 사람의 언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님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쿠리어스 ‘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방언 중에 가장 자주 사용된 단어일 것입니다. 수년 후에 헬라어를 배우면서 ‘ 쿠리어스 ‘가 헬라어로 ‘ 주님 ‘이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 주님 ‘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는 것은 딱 들어맞는 일이 아닐까요!

또 다른 한 예는, 우리 교회에 린 히노요사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녀는 항상 불어로 방언을 합니다. 일상생활 불어가 아니라 귀족들이 쓰는 불어인데 그녀는 불어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갈보리채플 초창기에 우리 가족은 아리조나의 여름캠프에 자주 참가했습니다. 아이들은 무료이고 저는 캠프를 인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산에서 한 두 주를 휴가로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 해는 우리 가족이 캠프를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린이 저의 딸 잰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불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잰은 대학에

서 불어를 전공하고 있었으므로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잰의 삶이 그녀가 섬길 어린 소녀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들어 쓰시며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아름다운 중보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잰은 말하기를, “린 아주머니가 기도하실 때, 제 몸이 막 떨렸어요. 저를 위해 하시는 성령의 기도인 것을 알았거든요. 성령님이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신났던지요! 이 기도가 주님이 저를 향하신 뜻이란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라 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방언

모든 성령의 은사 중에 이 은사만은 구약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외의 가능성이 있긴 한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니 네 집에 유언하라는 말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사야 38장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제비 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양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간청하면서 분명치 않은 소리로 울부짖은 것은 방언으로 기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의 경우가 방언이었던 아니든, 구약에 방언이 약속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사야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곧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예언했습니다.(사 28:11,12). 이 예언은 신학자들 간에는 방언의 은사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4:21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방언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을 말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한 사실은 있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방언

어떤 이들은 예수님 자신은 방언의 은사를 행사하지 않으셨다고 지적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언어를 다 아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어떻게 알지 못하는 방언이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은사가 주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16:17).⁽¹⁾

처음으로 방언이 말해진 것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사도행전 2장 참조).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모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카톨릭 성경에는 “성령이 말하도록 촉진함에 따라” 라고 번역되어 있음.).

그들은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헬: 글로소스)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모여들어서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뇨? 우리

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행 2:7,8,11).

그들은 사도들이 각 나라 방언(헬; 디아렉토)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배우지 못한 갈리릴 사람들이 메대와 바대와 엘람과 메소보다미아어등 적어도 17개의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지요. 각 사도들이 말한 언어는 각각 자기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방언(헬; 그로쏘스)이었지만, 무리들 가운데서 들은 사람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헬; 디아렉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언이 말해진 경우는 사도행전 10장으로서는, 베드로가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10:44-46).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느끼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때 그들은 대답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고 묻지요. “요한의 세례로라.” 라고 답할 때, 바울은,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한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때 그들이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고 적고 있습니다.(19:1-6).

두 가지의 방언

사도행전에 기록된 일들과 고린도전서 12장-14장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어떤 이들은 성경은 두 가지 다른 방언을 말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방언을 거기 모인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2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방언이 있다고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는 방언을 통한 “은사의 표시”로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 방언”이라 하여 기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교리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견해가 옳다고 결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못합니다. 두 가지의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도 옳을 수도 있겠지만, 부분적인 성경말씀만 가지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말씀에 합당하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하나의 질문으로 그냥 남겨 두고 싶습니다.

이 은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좀 쉽게 질문을 해보면, 이 은사는 신자의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활에 활기를 더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해주는데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줍니다.

1. 방언은 기도생활을 도와줍니다.

방언은 당신의 기도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은사입니다. 바울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고 말했습니다.(고전 14:14,15).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미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의 두 구절을 통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 지라도 우리의 영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감사를 잘 하였다.” (14:17)고 말함으로 방언의 은사는 은밀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26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위로가 됩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성령께서 저를 위해 간구해 주시도록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저의 방언을 통해서도 중보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말할 수 없는 안식을 가져오겠지요. 방언으로 말함은 우리를 새로운 힘을 더해주고 안식을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사 28:12).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고 있고, 나의 지성보다 깊고 나의 정신보다 깊은 내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알아들으시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영의 깊은 부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의 모든 형편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게 되니까 저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방언들을 다 알아들으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을 알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평안을 주고 얼마나 만족을 주고 얼마나 충만케 하는지요!

2. 방언은 경건의 시간에 도움을 줍니다.

방언은 당신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가 참으로 감사를 잘 하였도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방언은 신자의 경건의 시간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줍니다. 저에게 있어서 참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말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깊은 감정을 다 표현할 말이 없는 거지요. 이것은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 (빌 4:7)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벧전 1:8) 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엡 3:18,19)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넘어 우리에게 넘쳤습니다. 그의 기쁨은 놀라운 것이며 영광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

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시 34:8).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 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언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때가 바로 방언의 은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때입니다.

3. 방언의 은사는 신자에게 덕을 세워 줍니다.

방언의 은사의 세 번째 목적은 신자에게 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다, 영어로는 edify” 라는 단어는 세워주다 혹은 강하게 해주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서로 서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4에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고 말합니다.

방언의 이면은 독특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 중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덕을 세우는 유일한 은사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전체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 하나만은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강하게 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방언은 믿음 생활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심오한 영적인 차원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줍니다.(2)

교회 안에서의 제한된 사용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편만한 은사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사용한 듯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렇게 편지한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전 14:18,19).

바울은 몇 가지 방법으로 교회 예배에서의 방언의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첫째, 방언 통역이 있는 예배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28에서,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교회 예배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절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성령님이 의지를 넘겨받아서 그들은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이 주장하심에 따라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한 성도가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해 간증한 말을 기억합니다. 가정용 가스 검침원이 자기 집에 검침하러 왔을 때 물어볼 것이 있어 쫓아나갔는데, 말을 시작하니까 방언으로 막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검침원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의 요점은 “내가 절제할 수 없더라.” 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 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예배 중에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숫자를 제한했습니다.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고전 14:27).

셋째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는 것입니다.(고전 14:40).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교회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나 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은 방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자주 방언에 의해 설교가 중단되기도 하는데 그들은 “방언에 따른 중단” 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지 아니시라” (고전 14:33)고 말했는데, 이런 중단이 자주 일어나면 상당히 어지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합시다.

방언은 끝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8은 언젠가 방언이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 이유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때에는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우주적인 공통언어를 갖게될 것이라 상상합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언어요 천사의 언어일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고 합니다.(고전 13:8).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비록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 합니다.(13:10).(3)

방언이 영원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더 이상 방언이 필요 없을 때, 그 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때 하늘나라의 언어는 우리의 사랑과 찬양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언어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래된 소문

모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나타남 가운데 방언이 가장 심한 논쟁의 대상입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토의하면 신학적인 논쟁이 뜨겁게 끓어오릅니다. 어떤 교회들은 방언을 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귀의 방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아마 교회 안에 도는 가장 오랜 소문일 것입니다만(지금도 돌고 있음), 어떤 사람이 방언을 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알아들은 사람이 그 언어를 쓰는 나라의 선교사나 그 언어를 전공한 학생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온갖 예수님을 훼방하고 저주하는 무시무시한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은 고린도 교회 때부터 있어온 것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3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니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저주할 자가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절제가 필요한 줄을 알고 방언에 대해 말한 후, 방언을 사용하는 규칙을 주고 이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는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왜 그토록 방언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까? 한 가지, 방언은 인간의 자존심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리를 중얼거리는 것을 용납하기 힘든 것이지요. 지성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까” 고 그들은 질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하게 하기 위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마다 우리의 지성이 거슬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이 방언을 통해서 덕스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거슬림을 받더라도 영이 덕스러워지는 쪽을 택해야겠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막강한 도구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고 가까운 교제와 관계를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도 방언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 되게 하라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방언을 함에 있어서도 사랑의 최고성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당신이 방언에 대해 무엇을 믿든지 사랑이 제일이어야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방언의 은사가 아무 가치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됩니다.” (고전 13:1). 사랑도 없으면서 소리만 내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치에도 맞지 않고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동반하지 않는 방언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영적 우월의 표시로 삼으려 합니다. 방언을 성령충만이나 성령세례 받은 표시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방언은 아무 표시도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는 아무 표시도 아닌 의미 없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이들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모두 정죄하고 심지어는 마귀의 방언이라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랑이 없다면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의미 없는 비난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지 해답은 사랑 안에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13).

당신이 방언을 하면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 은사를 이해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또, 스스로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지도 마십시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방언을 하지 않으면 하는 사람을 나무라거나 못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를 마귀의 방언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도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처럼 똑같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 가운데 행합시다. 누가 방언으로 말하든지 성경적인 범위 내에서만 한다면 좋습니다. 방언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가깝고 깊고 훌륭한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언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에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받아 줍니까? 당신과는 다르게 믿을지라도 예수님이 당신과 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 그렇게 살아 봅시다. 예수님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도록 우리 모두를 그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 고린도전서 12:10,11

방

언 통역은 방언의 은사와 동반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바울이 특별히 위하여 기도하라는 유일한 은사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했습니다.(고전 14:13).

방언통역의 은사가 없이는 공중예배에서 방언을 할 수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방언으로)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고전 14:16,23).

저는 바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쳤다고 하겠지요.”

제 친한 친구를 우리 교회로 인도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에드 행크는 나중에 썬프란씨스코 풋볼팀에서 수비 선수로 뛰기도 한 덩치가 큰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잘 어울려 다녔는데, 제가 전도를 하고 주일날 아침 예배에 오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앞에 앉은 아주머니가 거세게 숨을 몰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는 방언을 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숨을 몰아 쉬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모리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방언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에드는 방언을 이해하지 못할테고 제가 대답하지 못할 난처한 질문들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방언이 터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에드의 질문도 물론 따랐고요. 불행하게도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때 지금처럼만 알았더라도 방언과 방언통역의 은사는 하나님의 훌륭한 선물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방언과 방언통역의 은사를 통해 불신자를 믿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이것에 관해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역이나 해석이나?

저는 공중예배에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통역을 하기도 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나이 어린 사람으로서 이 은사들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종종, 방언은 짧은데 통역은 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방언은 긴데 통역은 짧기도 한 것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저는 방언에서 같은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센 후, 통역에서 같은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세어보았는데 많은 경우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통역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 뿐 아니라 통역의 은사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한편 이 은사들을 신뢰하고 사모하여서, 이 은사가 행해질 때는 언제나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은사들을 의심하고 세어보고 한 것이 성령을 훼방한 사함 받지 못할 죄에 가까이 간 것이 아닌가 하여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문제의 일부는 방언통역과 방언해석통역을 혼동한데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통역과 해석통역은 같지 않습니다. 통역은 한 언어의 단어를 다른 언어의 단어로 그대로 전환하는 것이고, 해석통역은 좀더 나아가서 사용된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말의 표현을 설명하는데 충실하려는 것입니다. 해석통역에서는 단어가 중심이 아니라 개념이 중심입니다.

저는 저의 말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해석통역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는데, 저는 짧게 한 마디 했는데 그들은 이 삼분간이나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까지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이 제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의 한 큰 장로교회에서 설교할 때였습니다. 분위기도 좀 편안하게 하고 저도 평범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려고 제가 즐겨 쓰는 재미있는 우스개 소리로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폭소가 터져야 할 부분이 통역되었는데 모두들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야! 이 사람들 보통 고지식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야단났네. 어떻게 설교를 하지?” 고민하면서 겨우 설교를 마치고는 예배 후에 저를 초청한 분에게, “처음에 한 제 우스개 소리가 어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때 저는 그 통역관이 그 농담을 알아듣지 못해 폭소가 터져야 할 순간에 제 농담을 망쳐버리고 만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그런 우스개 소리를 설교 중에 사용할 때는 사전에 먼저 통역관에게 말해봐서 그가 웃으면 알아들은 줄 알고 사용하고 웃지 않으면 접어둡니다. 통역을 잘 하지 못하면 우스개 소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언통역에 있어서 통역이 꼭 방언의 길이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언은 짧을 지라도 통역은 길 수도 있고 반대로 방언은 긴데 통역은 짧을 수도 있습니다. 통역은 방언의 개념이나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단어 대 단어의 전환이 아닌 것입니다.

통역의 목적

“통역”으로 번역된 영어의 “Interpret”는 헬라어로는 “헤르메네이아”로서, 이 단어에서 영어의 “hermeneutic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는 성경해석학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단어는 “통역”이란 말로 해석되지만 이 은사에 있어서는 해석통역이란 말로 번역될 수도 있겠습니다.

방언통역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덕을 세우도록 주신 것입니다. 방언의 은

사가 동반 은사인 방언통역의 은사가 없이 공중예배에서 행해지면 방언을 말한 사람에게만 덕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고 했습니다.(고전 14:28).

저는, 방언을 말할 때마다 심지어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까지 꼭 통역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공중예배에서 말해질 때만 통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고린도 교인들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고 했습니다.(고전 14:14).

바울의 말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기 자신도 그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드리는 찬양이나 간구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말은 곧, “방언으로 말할 때마다 심지어 개인의 경건의 시간까지도 꼭 통역이 있어서 자기가 말하는 방언의 뜻을 알아야 한다” 는 사람들의 주장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약과 방언통역의 은사

구약에 통역의 은사의 예가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오직 한 군데,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로 간주될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벨사살왕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의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해서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자 태후가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가 있으니 그를 부르시오. 그가 해석을 알려 드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러와서 벽에 씌어진 글자를 벨사살왕에게 해석해주었습니다.

벽에 씌어진 글자는 아람어로서 당시 공용어였으므로 왕의 술사나 점장이들도 틀림 없이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해석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었고 그대로 번역하면, “세었다, 세었다, 무게를 달았다, 나뉘었다.” 입니다. 다니엘이 불러왔을 때, 그는 벨사살왕의 더러운 죄를 질책하고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왕이 배운 교훈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하늘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나무랐습니다. 그러고는 벽에 씌어진 글자를 해석해주었습니다. 그 해석은 다니엘서 5장에 있는데 이렇습니다.

* 메네(세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 데겔(무게를 달았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뵈었다.”

* 우바르신(베레스;나뉘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비되었다.”

다니엘의 해석이 글자 자체보다 긴 것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단순히 통역만 했다면 “세었다, 세었다, 무게를 달았다, 나뉘었다.” 라고 했을 것이고 왕이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소름끼치는 해석을 해줌으로 그 글자에 암시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제가 만일 다니엘의 친구로서 다니엘과 벨사살왕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몇 자 안 되는 글자에 저렇게 긴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통역과 해석통역의 차이입니다.

신약과 방언통역의 은사

신약성경에 이 은사가 행해진 예의 기록이 없는 것은 신기합니다.⁽¹⁾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이 전부이며 그것도 매우 간단합니다. 방언의 은사와 방언통역의 은사가 함께 사용된 경우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알 길이 없습니다.

쥬 캄블 모건 목사님의 사도행전 주석에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각각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각각 그들의 언어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모두 헬라어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는 말을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지만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오순절 다락방

여러 해 전에 갈보리채플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주일 밤마다 이스트 블러프 커뮤니티센터에서 모였습니다. 하루는 오순절 주일이었는데 55명 내지 60명 정도가 교회에 내리신 성령강림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모였습니다.

성경공부가 끝난 후, 저는 오순절 다락방에서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기다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때, 앞장에서 말씀드린 린이라는 부인이 불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라틴어를 3년간 공부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그녀는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린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아름다운 새 노래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찬가였고 기쁨과 송축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특별히 감동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던 가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 그 생활을 청산하고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 날 밤에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속에 기쁨의 새 노래를 주신 것을 불어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기뻐하며 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함께 나눌 정도는 이해를 했지만 통역을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어라고는 조금도 모르는 저의 아내가 통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제가 알아들은 그대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린이나 저의 아내가 불어를 말할 줄 알거나 공부한 적이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린이 불어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노래를 저의 아내가 거의 완벽하게 통역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팜스프링에 살면서 부부문제에 고민하는 한 유대인을, 예배 후에 제가 상담할 수 있도록 그녀의 친구가 데리고 왔었는데, 사람들이 다 가고 상담을 시작하려 할 때에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왜 한 부인이 불어로 말하고, 또 다른 한 부인은 통역을 했지요?”

그 두 사람 모두 불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한 사람은 제가 오랫동안 아는 사람인데 그녀는 불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제 아내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인도 제가 잘 아는데 불어를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성경을 펴서 방언의 은사와 방언통역의 은사에 관한 말씀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밤에 보신 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말한 예입니다. 한 사람은 방언으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고.”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들어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불어였어요. 완벽한 귀족 불어였어요. 제가 파리에서 5년 살았는데, 이 불어는 거리의 불어가 아니에요. 귀족들이 쓰는 점잔은 언어지요. 그리고 통역한 사람도 완벽했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주님이 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님부터 영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을 영접했고,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은 참된 방언과 방언통역이 함께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린에게 훌륭한 아름다운 새 노래를 주신 것과 하나님의 영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가 통역되어 하나님께 올려진 것입니다. 이 유대인 부인이 불어와 통역된 영어를 통해서 그 노래를 듣고 이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진리를 확신하게 되어 그날 밤에 주님을 그녀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사는 어떻게 활용하나?

방언통역의 은사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성경은 은사도 여러 가지며, 역사도 여러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방언통역의 은사가 제게 있어서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되고, 당신에게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양하신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자에 가두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공식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가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에서 은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가 말하더라도, 당신의 삶에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이 은사를 활용할 때는 그 말이 영어로 말해진 것처럼 알아들음으로, 생각이나 찬양이나 감사가 제 마음에 옵니다. 종종 방언하는 사람이 수분동안 오래 말하고 나면 말한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말을 통역하기 시작하면, 말을 계속하는 동안 그 나머지 말이 계속 제 마음에 옴으로 통역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물론 저도 누가 방언을 할 때마다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나의 개인 재산이 아님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방언통역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기쁨 부어 통역의 은사를 주시는데 당신이 이 은사를 받으면 받은 줄을 압니다.(또, 받지 못했을 때도 받지 못한 것을 분명히 압니다.)

누가 방언을 말했을 때 제게 통역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방언의 은사의 진실성을 당장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한 것에 대해 통역하도록 저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뜻일 뿐이며,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통역인지 예언인지?

해석통역과 통역에 차이가 있듯이 통역과 예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자주 듣던, 소위 방언과 통역이 행해지는 예배라고 부르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방언과 예언이 행해지는 예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방언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고전 14:2). 저는 신약성경에서 한 군데도 방언이 사람에게 말해진 경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지, 바울도, 방언을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감사에 “아멘”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에 방언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며, 오히려 방언은 찬양이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것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방언으로 올려졌다면 그 방언에 대한 통역도 하나님께 올려져야 합니다. 방언이 하나님을 높였다면 통역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방언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면 통역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방언으로 교회에 말씀하지 않으시며 통역으로도 교회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편,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방언이나 통역이 아니라 예언을 통하여 그의 교회를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덕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방언과 통역을 통한 메시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통역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가라사대,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너희 목소리를 높여 나를 찬양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나의 성령으로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러한 교회에 대한 권면을 방언의 통역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언의 은사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따른 것입니다.

제가 이 논리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 이 분들도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사를 경험한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며, 그것을 평가절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찰한 것은 방언의 은사가 먼저 있었고, 뒤이어 예언의 은사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고전 14:3). 그리고, 통역이라고 말하는 것의 내용을 보면(저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믿지만), 보통 덕을 세우는 것과 권면과 위로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람들이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경험한다고 믿는 것이 실제로는 방언과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말할 때, 그 옆에 앉아있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담대해져서 일어나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예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방언에 대한 통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교회 안에 있는 바바리안(야만인)들!

영어 단어 “barbarian; 야만인”은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사람을 “barbars”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외국 언어가 “바-바-바-바”로 들린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무식해 보였기

때문에 ” 바바리안; 야만인 “이라 불렀던 것이지요.

귀중한 방언통역의 은사로 인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회중 가운데서 바바리안이 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를 드릴 때, 옆에 있는 방언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아름다운 찬양의 말을 명확하게 선포하여 올림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어두움의 왕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은사들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드러진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를, 알아듣는 언어로 선포하게 함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모든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지요. 바바리안에게 까지도.

17

돕는 은사 -- 은밀한 봉사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서로 돕는 것(은사)과.....

-- 고린도전서 12:28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 로마서 12:7

교회가 모든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돕는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나타나는 은사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 가르치는 은사나 전도자의 은사에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이런 은사는 표시도 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돕는 은사를 더 영광스럽고 더 귀한 은사로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전 12:23,24 참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당신 주위에 있게 해주시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할까 묻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조용히 그 일을 합니다. 떠들지 않고 조용히 봉사함으로, 자기들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이러한 은사의 좋은 본보기가 행해지는 것을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서 봅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교회로 와서, 아내는 중보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동안, 자신은 교회 주차장을 돌면서 주일날 흘린 종이컵들과 휴지들

을 줍니다. 저는 그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월요일에 보니까 주차장이 주일예배로 인해 휴지로 어질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아, 이 것 내가 할 수 있겠네!” 하고는 줍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돕는 사역이며, 그에게 그런 은사가 없었더라면 주차장은 훨씬 지저분해 보이겠지요.

수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두 분이 계셨는데, 교회의 냉방기의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해주어야 하는 것을 알고는, 100개가 넘는 필터를 교환하는 계획을 세워 일정표를 만들고, 언제 필터를 주문하고 언제 교환하는지에 대한 상황판을 만들어 충실히 봉사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섭섭한 일이지만 한 분은 이미 하늘나라의 상급을 이미 받으셨고, 또 한 분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하셨지요. 그러나 저는 그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을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저는 갈보리채플의 여러 가지 모든 사역에 연관되어 봉사하는 부인들을 생각합니다. 이 부인들의 돕는 사역이 없었더라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훈련받고, 그룹을 구성하여 모든 사람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 자신을 드리는 것을 보는 것은 참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공중의 칭찬을 듣기 위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누가 그들의 일을 공중에게 알리고 칭찬하면 썩스러워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고 하셨는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 6:1).

오래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청빙되어 간 적이 있습니다. 부임 후 첫 번째 주일이었는데, 강대상 앞에 아름다운 꽃이 한 아름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장로회의 회장이 제게로 와서, “스미스 목사님, 오늘이 첫 주일이라 잘 모르셨겠습니까만, 강대상 앞에 매주 꽃이 놓여있기를 원하신다면 예배 때 광고를 해서 알려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목사로 청빙할 때에 투표를 잘못하신 것 같군요. 저는 하나님께 봉성한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을 하늘의 상을 가로채는 것 같아서, 광고를 해서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꽃이 계속 놓아지기를 원하시면 광고하시는게 좋을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꽃이 강대상 앞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날을 마지막으로 강대상에서 꽃은 살아지고 말았지요.

그것은 돕는 은사가 아닙니다. 이 은사를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상주실 줄 믿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봉사로 기쁨으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주님은 즐거이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잘 아니까요.

기쁨으로 섬기라

돕는 은사는 의무로나 억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원망스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감정에 대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일에 관해 흥미있는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마당이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운동장을 돌면서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줍습니다.

지금은 거의 2천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쓰레기가 많이 굴러다니지요. 아이들이란 그렇게 깔끔한 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휴지도 흘리고 음료수를 마시고 난 후 빈깡통을 여기저기 아무 데나 버리곤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사무실로 걸어가는 길에 휴지와 깡통들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게 되었는데, 그 때 저는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녀석들!”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죠. 화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줍는 일이 마치 더러운 빨래를 하는 것 같이 끝이 없었습니다.

깡통을 주워서 손으로 찌그러뜨리면서 제 마음속에 분개가 일어났는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거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주님을 위한 거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럼, 그만둬.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좋은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든 즐거움으로 하여야 하며,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순전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 3:17). 돕는 은사에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사역을 하십시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면, 그만두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당신에게 긍정적인 경험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일이 원망스럽고 괴씸한 생각이 들고 기분 나쁘면, 그 “봉사” 는 당신에게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악물고 하는 봉사를 싫어하시니까요.

저는 돕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항상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봉사의 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끓어오르며,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러한 길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돕는 은사들

여호수아에게는 돕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명령하면 옆에 서 있다가 즉시 받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 서서 오른 팔이 되어,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왔습니다. 그는 돕는 은사를 잘 활용한 신실한 종이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나라의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도록 택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디모데가 바울의 봉사자였습니다. 종종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행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할 일이 생기면 “디모데야, 너 여기 좀 머물러 있어야겠다.” 하고는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야, 너는 내게로 오라. 네가 올 때에 가족종이에 쓴 것과 다른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라.” 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도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롬 16:3).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구제하는 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여 그 일을 맡겼습니다.(행전 6장 참조). 이들이 돕는 사역에 임명되어 교회의 구제의 일을 맡아서 봉사했습니다.

한 사역이 다른 사역의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 충성하면 주님은 종종 우리의 사역의 범위를 넓혀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난로 때는 일에 부르셨다면 난로 때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라면,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지 말고 주님께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하여 곱절로 만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종이 열 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을 때, 주인은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마 25:21).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도 같은 원리를 봅니다. 집사로 뽑힌 일곱 사람이 그들의 사역에 충성했을 때, 그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맡겨졌고 그들의 사역의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일곱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은 전도자의 은사를 받고,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며, 그곳에서 그의 지도 아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일곱 집사 중 또 한 사람은 스테반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사역에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유대교 공회원들과 변론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증거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붙잡았을 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스테반으로부터 들은 말이 네 양심을 찢러대는 가시채를 두발질 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너는 진리를 들었고 그 진리가 네 마음을 강하게 때리고 있는데 너는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구나.” (행 26:14 참조). 스테반이 하나님 그에게 주신 사역에 충성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바울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울로 남아 있었을 것이고 교회는 아주 나락한 상태에 있었겠지요.

돕는다는 의미에서의 섬김

로마서 12:6,7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섬김이 돕는 은사를 말한 것이라 믿습니다. 섬김은 돕는 은사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목사라는 뜻의 “minister”란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지 않았나 걱정되며, 아마 교회 안에서 가장 혼동하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 자신들일 것입니다.

“목사” 혹은 “섬김” 으로 번역되는 영어의 “minister”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세 가지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 디아코노스 “라는 단어는 ” 종 “이란 뜻으로, 이 단어에서 영어의 ” deacon-집사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서 ” 아무든지 첫

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하리라. “(막 9:35)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12:7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 혹 섬기는 일(디아코노스)이면 섬기는 일로. “ 신약에서 ” 섬김 “이란 단어를 쓴 것은 대부분이 이 헬라어 단어 ” 디아코노스 “를 썼습니다.

목사란 지각있는 젊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여 권위로 다스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독재자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과 교회에 많은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잘못입니다. 목사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헬라어 단어 “레이토르고스” 도 역시 “minister-섬김” 혹은 “servant-종” 이라 번역되는데, 고대에 부자가 공중 봉사를 위해 무료로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일컫던 말입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 공공봉사자, 자원해서 자비로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란 뜻이지요.

70인 역(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에서 히브리어의 “제사장” 이란 단어를 번역할 때 이 단어 “레이토르고스” 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예배식” 이라는 영어의 “liturgy”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minister-섬김 “으로 번역되는 마지막 헬라어 단어는 ” 하이페레테스 “로서, 헬라어 의 ” 하이페르 “와 ” 에테스 “ 두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 하이페르 “는 ” 아래 “를 의미하며, ” 에테스 “는 ” 노 젓는 사람 “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 하이페레테스 “라면 갑판 위에도 못 올라옵니다! ” 하이페레테스 “는 가장 밑층의 노 젓는 방에서 모든 일을 하고, 모든 공로는 ” 나우티스 “, 즉 선원들의 공로로 돌아가고 말지요. ” 노 젓는 노예 “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 하이페레테스 “가 바로 그런 뜻의 말입니다. ” 밑창에서 노 젓는 노예들 “.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가이사랴에서 아그립바왕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정오쯤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그를 비출 때에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그 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그립바왕에게, 예수님이 바울을 “minister-사환” 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나타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 “minister”가 ” 하이페레테인 “입니다.(행 26:16). 예수님은 바울에게, ” 바울아, 네가 너를 노 젓는 노예를 삼아야 되겠다.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노 젓는 노예” 가 몇 명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사와 부르심

사역의 어떤 일부분만 보고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저 일을 하고 싶다. 재미있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종종 사역의 매력적인 면만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수 천명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을 보고, “와! 나도 저렇게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해 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받은 사람들로 부터 감사와 기쁨으로 만족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 까?” 생각하는 거지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싫증이 났던지, 중연의 위기를 맞아 직업을 바꿔볼 마음이 있었던지, 무슨 이유로든 성령의 은사나 기름부음이 없이 자기 생각에 따라 목회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미국의 방방곡곡에 걸쳐 이러한 사람들이 강단에 가득합니다. 목회가 직업이지 부르심이 아닌 사람들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사역이 하나님의 은사이며 부르심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군이 되었노라.” 라고 했습니다.(엡 3:7).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루아침에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의 그의 위치를 보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 은사를 활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종종 사역자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1:12에서 그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사역은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의 친구들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을 때(그들은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24절). 바울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사역을 받았고, 그 사역을 끝까지 마치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역이란 당신 스스로 뛰어들거나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11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본을 보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역자의 참된 본보기이시며 사역의 진수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 하셨습니다.(막 10:45). 예수님은 섬김의 공식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minister-사역자” 라는 말을 집어치우고 “servant-종” 이라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가 제자들로 부터 배반당하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대야를 들고 방을 돌아가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가 하는 것 보았느냐? 감이 잡히느냐? 너희들에게 본보기로 보인 것이야. 이 것이 바로 섬김의 진수란다. 사역자는 이렇게 하는거야.” 하셨습니다. 가장 천한 일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지. “ 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겼습니다. 다른 종들은 식탁을 공궤하든가 좀 근사한 일을 했지만, 가장 낮은 종은 발을 씻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내가 뭐했는지 보았지? 사역이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일찍, 주님은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요 5:30). 그것이 바로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섬김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에서 한참 먼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말입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

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눅 22:42). 예수님은 종으로서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셨으며,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잔이라면 기꺼이 마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 드리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하실 때에도 계속해서 섬기셨습니다. 끊임없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마다 않고 섬기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옷을 잡아 당기며, 이리저리 밀쳐댔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밀치고 당기고 해서, 배에 올라 배를 해안에서 십여 야드 떨어지게 한 후, 배 위에서 군중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막무가내로 대했습니다. 그것, 사람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때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보고 연민의 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굶주린 것을 보시고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섬기려 하면 지치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의미이며, 우리가 그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섬기는 자

신약 성경에서는 사역이 남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여인들로부터 섬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을 떠나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헬라어로 *디아코네이*)을 들었습니다.(마 8:15). 그녀는 아마 썬드위치나 양고기 말이로 점심을 대접했겠지요. 섬김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니깐요!

요안나와 수산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들의 섬김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3은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또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도 예수님을 섬겼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돕는 은사나 섬김의 은사를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어디서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든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섬김의 자리를 주십니다. 강단에 선 목사님(minister)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목회(ministry-섬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섬김의 진수입니다.

참된 돕는 은사는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은사입니다. 할 일은 너무나 많고, 한 남자 혼자나, 한 여자 혼자나, 교회의 사역자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섬김의 자리는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알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잘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돕는 은사를 활용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가족들을 위해 식사 한끼를 준비해서 가져가면 어떨까요? 또 그 집에 가서 집안 청소를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 집안이 어질러져 있을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서 도와주심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남편이 없고 자동차 정비소에 갈 여유도 없는 부인들의 자동차를 맡아 튜업과 브레이크 교환을 자원해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숙자들을 위해 음식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를 찾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어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서로의 필요를 민감하게 섬기며, 서로 서로 사랑하며 돌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만족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이며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18

이제, 젖은 충분히 먹었는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셋째는 교사요.....

-- 고린도전서 12:28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가장 우수한 교수님이면서도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교수님의 강의는 가장 지루한 강의였습니다. 한편, 덜 우수한 교수님들이셨지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교수님들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싶은 마음을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나는 강의였지요.

하기 싫은 말이지만, 그 가장 우수한 교수님으로 배운 것은 하나도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교수님들이 가르쳐주신 진리는 지금도 제 삶의 부분이 되어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수한 것과는 상관없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가르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교회 중에 첫째로는 사도들을, 둘째로는 선지자들을, 셋째로는 교사들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이 셋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이 은사를 제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가르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면서,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주님의 뜻을 찾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진리를 제 마음속에 말씀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성령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바울은 교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전 11:23) 라고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설 때마다, 저도 바울이 말한 것같이,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가르치는 은사가 항상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섰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찢찢 맬 때가 있는데 아주 괴롭습니다. 애를 쓰는데 술술 풀리지가 않고 자꾸 막히는 거지요. 설교가 착 가라앉은 것을 아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강단에 서기만 하면 설교가 술술 풀립니다. 생각들과 감동과 기름 부음이 하나가 되어서 강물이 흘러내리는 것같이 줄줄 흐르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진리를 당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전달되게 하신다는 일보다 더 기쁘고 흥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은사가 있고 어떤 때는 은사가 없다는 사실은 가르치는 것이 자연적인 능력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원할 때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이며, 그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심으로, 설교를 잘 해보려고 애써도 찢찢매고 고생만 하는 그런 저녁이 되고 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는, “오! 주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잘 흘러나가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존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것인가?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삼중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고 말합니다.(딤후 1:11). 그가 그렇게 구별해서 말한 것을 보면, 복음 선포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 선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지식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선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전도적인 멧세지의 선포로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재촉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죄인을 위한 것이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 선포만 굉장히 많이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사실이지 죽도록 복음만 전합니다. 믿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교회는 성경을 더 많이 가르쳐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한탄합니다. “봐라, 너, 예수 믿은 지가 오래 되지 않았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한단 말이야?”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먹은 음식이라고는 복음에 관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복음만 들었지, 성숙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성경은 배우지 못한 것이지요.

한 두절 뒤에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해지자. 초보로 돌아가서 기초만 자꾸 자꾸 놓지 말자. 기초도 중요하지만 기초 위에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기초가 마련이 되면 건물을 지어야 하지 않겠나? 자, 이제 나가보자. 주님과와의 관계 안에서 자라고, 주님과 함께 걸어보자. 아기의 신앙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성숙해 지자.” 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좀 더 깊은 영적인 일들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들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 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전 3:1,2).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너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었어.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젖병으로밖에 먹일 수가 없어.” 라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은사의 목적은 신자의 영적 성장과 개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영적 성장이 경험을 통해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먹여야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그토록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가장 필요할 때가 있다면, 바로 오늘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육신적인 일이 교회 안에 판을 치는 오늘날, 그 결과로 영적인 개발이 묶여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고 개발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로 있는 것입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 4:12-15).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없이는, 신자들은 영적 성장이 침체된 상태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고 선언하셨습니다. 교회

전체가 듣는 것이 복음 뿐으로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만 매일 들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로 머물게 됩니다. 복음의 멍세지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죄인들은 그것을 알아야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요.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지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가르침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는 출애굽기 4:12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의 선생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세 절 뒤에 가서 하나님은 아론에 관하여 모세에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가 말할 것을 가르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할 일을 지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수 세기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재앙을 당한 이유가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이제 오래되었기 때문” 이라고 했습니다.(대하 15:3). 그들의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은, 가르침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지 않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가르침이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언제나 매우 중요한 것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9:20이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이 가르치는 은사가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얼마나 필요한 은사입니까!

신약에 나타난 가르침의 은사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전체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 관해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쉰 여덟 번이나 “master-선생” 으로 불립니다. 선생님이로 알려져 있었고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복음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별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신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마 28:19,20).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구원받고 중생한 후, 아라비아 사막에서 칩거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종교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너무 열심히 접근하여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강제로 다시스로 보내 쉬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스에 주저앉아 있기는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헬라 문화의 배경도 가지고 있고, 또한 훌륭한 히브리 교육도 받은 것을 알고, 과거에 교회의 원수였던 이 사람이 안디옥에서 막 자라고 있는 이방인 교회의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1:26은,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사울)은 사도행전 13:1에서 안디옥 교회의 선생으로 일컬어지는데, 15:35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울은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는데, 이는 오늘날도 볼 수 있는 복합된 은사의 활용이지요. 이 복합된 은사들은 서로 도와주고 보충해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년간 안디옥에서 가르쳤고, 일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가르쳤습니다.(행 18:11). 그리고는 이삼년간 에베소에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20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림이 없이 다 전하여 가르쳤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목사든, 그의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성도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의 맨 앞장에서 맨 끝장까지 가르친 사람만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고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갈보리채찍에서 목회하는 동안, 성도들을 일곱 번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번 아주 훌륭한 성경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별로, 장 절 별로, 파고드는 것은 아무 것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바빌론 포로기 말기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이러한 강해 설교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이면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느헤미야 8:8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가르침이고, 다른 어떤 방법의 가르침도 이와 같이 양떼들을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도록 기름부음을 받아야

성령께서 가르치는 은사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따라서 가르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전 2:14).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왜 성령이 그렇게도 필요한가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예수 세미나” 라고 부르는 신학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들은 우리들에게 어느 성경구절은 진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어느 성경구절은 꾸며낸 얘기인지를 말해줌으로 교회를 돕는다면서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무식하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자기들은 신학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최근의 모임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그렇게 믿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너무 절망한 끝에 환각상태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신 것에 대한 수치를 감추기 위해 이 모든 얘기들을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태가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마 24:30)고 말한 것은, 당시 마태가 당한 충격이 좀 컸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1-3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들은 이 것이 요한의 생각이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입을 빌어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란 주장이지요.

강도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라 쓰인 것을 보고, “주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누가가 기록한 것을 가지고도 그들은 같은 주장을 합니다. 물론 누가가 그렇게 만들어서 썼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왕국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했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자 모두들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런 생각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씨미나” 의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저자의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논증만으로 이해하려는 무익한 노력 안에서 배우고 터득한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현대 학자들을 믿을 것인가?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실 때, 구름이 저를 가리워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 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행 1:11)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인간의 학문적인 지식의 도움이 없이 이해하고 싶으면, 성령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지식을 초월하는 이해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 부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가장 우수한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복음선포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 했습니다.(고전 2:4,5).

지적인 변화와 영적인 변화에는 차이가 있으며,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바울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지 단순한 인간의 지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도록 성령께 의존하십시오. 요한은 “아무도 너희

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요일 2:27). 성령께서 그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며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 말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성령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통달한 중생하지 못한 학자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확실히 깨닫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 안에 동행하도록 도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그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친 결과

말씀을 잘 가르친 결과를 신자의 삶에서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4:13,14는 말씀을 잘 배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는 삶을 가장 잘 묘사한 구절입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큰 평강이 잘 가르친 결과이며,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질 것이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어렵듯이 나만 깨달으면, 장래의 불투명한 문제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큰 평강과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이 가르치는 은사가 교회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당신이 주일학교를 가르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막중한 사역을 맡겨주신 것인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유순한 어린 영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첫 인상과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성경구절을 많이 외우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를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십시오.

당신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활용하십시오. 당신이 더 훌륭한 선생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어린 심령들의 마음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주일학교 교실에서 주님께 관해 배운 진리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훌륭한 성경이야기와 설교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때 배운 것들은 평생 동안 간직하게 됩니다.

당신의 가르치는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동네 아이들을 당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라.” (딤후 1:6)고 말한 것처럼, 불일듯하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할 것이니라.

-- 로마서 12:6,8

종

교개혁을 위해 앞장서 싸운 마틴 루터에게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

는 고달픈 며칠이었습니다. 루터에게는 우울증 증세가 있었는데, 여느 때처럼 몹시 불편한 상태에서 며칠을 아무와도 얘기하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수녀 출신인 그의 아내 캐더린 본 보라는 검은 장례식 드레스를 입고 남편의 서재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를 본 종교개혁자 루터는 깜짝 놀라 책상에서 일어나며, 왜 그런 복장을 했소? 무슨 일이 있소? “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요즈음 하는 것 보니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이 행동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례식을 위해 상복을 입었지요.” 라고 대답하고는 뒤로 돌아 사뿐히 나가버렸습니다. 혼이 난 마틴은 감을 잡았고 곧 기분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권위자의 적절한 말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권위란 무엇인가?

권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지 마음먹고 있는 일을 행동에 옮기도록 격려하고 재촉하는 일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재촉하고 억지로 시켜야 행동에 옮기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용기를 잃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포기하려할 때 권위자가 찾아와서, “자, 일어나 힘을 내. 주님이 죽지 않았어. 하나님은 이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네가 처해있는 형편을 다 아셔.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신뢰하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신자들이 옳은 것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도 행하지는 못하는 거지요. 진리를 알고, 인정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하고 재촉이 필요한 것이지요.

권위는 꼭 해야할 일을 행동에 옮기도록 격려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은 기도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과 기도가 나중에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하는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생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어리석은 노력을 다하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결국은 권위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문제를 털어놓으면,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해 봤니?” 하고 묻지요.

“어, 저, 기도하려고 했지만.....”

“얘, 기도하자. 지금 당장 기도하자.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자꾸나.”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일을 뒤로 미루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일을 해야 할텐데.....” 혹은 “오늘은 할 시간이 없고 내일 봅시다.” 는 보통이지요. 얼마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 “미루기” 를 주제로 좋은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딸 중에 하나가 전형적인 뒤로 미루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의 아내가 제 딸에게 그 기사를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오, 저도 기사가 난 것 봤어요. 요 며칠 내로 꼭 읽을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므로 고생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것입니다. 일을 그르치기 전에 찾아와서, “이봐! 지금 그 일을 해라. 당장 말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하도록 재촉해주는 일 말입니다. 권위자가 우리 곁에 와서 “잘 들었지? 이제는 행할 차례야. 알고 있는 것 이제 한번 실천해보자. 지금 말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지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권위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분야의 은사를 받아 우리가 꼭 해야할 일들을 깨우쳐주고 실천하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 분들이 기도에 관해 권위해 주시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깁니다. 이 엠 바운즈의 기도에 관한 책을 일을 때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제 자신을 더 기도에 드리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는 기도에 있어서 훌륭한 권위자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어떤 사람은 권위를 하느라고 하는데 은사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위로는커녕 오히려 화나게 만들지요. “봐라! 너나 잘해.” 라는 말을 하고 싶게 만듭니다. 감동이 아니라 속을 긁어놓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 주기 위한 참된 권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는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더욱 풍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더욱 더 풍성하라-흠정역).” 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데전 4:1).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로 행하라고 권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권위

구약에서는 사실 모든 선지자가 권위자였습니다. 권위의 예를 보려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우상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와 다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고 권위했습니다. 전쟁 때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게 하라고 백성들을 격려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사람들을 권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힘이 없을 때 자신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세 번이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5, 11; 43:5)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낙심되고, 힘이 없고, 속 상할 때, 자기 자신에게 “야, 뭐가 잘못 된거야? 왜 그렇게 불안해 해? 여호와를 의뢰해.”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권위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권위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3:5,6). 잠언의 말씀의 대부분이 모세가 성경의 첫 다섯 책에서 백성들을 가르친 것들을 권위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구약 성경에서 널리 행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권위

신약의 전형적인 권위자는 야고보입니다. 권위에 은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으면 야고보서를 읽으면 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의 직접 듣는 것 같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봐라. 네게 믿음이 있다고 했지? 좋아. 행동으로 보여봐. 네 믿음을 좀 보게. 말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증명해봐.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봐. 너의 행동을 통해서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본체가 무엇인지 보게 하라. 그렇지 못하면 너는 네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이야. 참된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야. 사도행전만 반복해서 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말씀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믿음이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나타나도록 해야지. 말만 하지 말고.”

베드로도 권위의 은사를 활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1-9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니라.”

여기에 얼마나 많은 권위의 말씀이 있는지 보십시오.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을 권위하고, 젊은 자들과 모든 사람을 권위하고 있습니다. 많은 권면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교회를 잘 돌보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과, 서로 순복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것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것과, 원수 사탄에게 대적하며, 이 세상에서 마귀에 대항해서 싸우는 자들이 우리만이 아니니 힘을 내라는 것들입니다.

바울도 또한 권위자였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예배니라.” (롬 12:1)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재촉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보이게 하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더욱 강하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전 5:14_22).

그는 두 번째 서신에서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

심치 말라.” 고 말합니다.(데후 3:12).

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고 권면합니다.(딤후 2:1,2).

유다도 권위자 명단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 3)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예만 살펴봐도, 신약성경에는 권면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권위

제가 목격한 가장 아름다운 권위의 은사 중 하나는 90대의 나이 많으신 할머니에게서 엿습니다. 버그 할머니는 오래된 구형 캐딜락을 타고 전국을 돌면서 교회마다 들러 성도들을 권위하곤 했습니다. 헌팅턴비치에 살면서도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카리브해안을 대상으로 방송선교를 했습니다.

저는 힘이 빠지고 사역에 걱정이 있을 때마다 버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그녀의 권위의 은사를 저를 위해 활용해 주시도록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럴 때면 언제나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도움이 되었고, 새로운 전망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녀가 우리 교회에 오시면, 저는 언제나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권면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좌를 비우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그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세요.” 이었습니다.

버그 할머니는 진리를 아주 실감나게 와 닿게 해서, 우리가 닦친 모든 상황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진리가 마음에 막 와 닿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형편을 아버지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시각과 전망을 가지게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므로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이 틀림없어.*” 하고 확신시켜 주게 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고, 지친 우리들의 영혼에게 참된 위로를 가져다주는 이와 같은 권위가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필요한지요! 그러나 이러한 권위만이 우리가 필요한 오직 한 가지 권위는 아닙니다.

우리 갈보리채플의 목사님 중에 로매인 목사님이 권위의 은사를 가지신 분입니다. 로매인 목사님이, “오케이, 썩 일어나서 나가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날 찾아와서 울고불고하지 말아요. 주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내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는 돕지 못하지만 주님은 도우실 수 있어요!” 라고 야단치는 것을 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이런 훌륭한 권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로마인 목사님은 권위의 은사가 있고. 그는 성도들이 성경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 아내 케이도 권위의 은사가 있는데, 그녀가 가진 권위의 은사는 로마인 목사님이 가진 권위의 은사와는 좀 다르게 활용됩니다. 케이는 권위할 때, 주님을 의뢰할 것과 기도 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에게 우리의 사랑을 더욱 나타내라고 권면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두 경우 다 같은 권위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 활용이 다른 것이지요.

예언의 은사에 동반하는 권위의 은사

권위의 은사는 종종 예언의 은사와 동반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3에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5:32에서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권위의 은사가 종종 예언의 은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권위의 은사는 또한 설교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고 말합니다.(눅 3:18). 설교자의 목적은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하도록 행동에 옮기게끔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곳에서 권위의 은사가 올바른 교훈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13에서 바울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고 말했고, 디모데후서 4:2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고 말했으며, 디도서 1:9에서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교훈이 권위의 은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디도를 권면하면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고 말한 것을 보십시오. “바른 교훈” 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어야 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실제적이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교훈은 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통에 사로잡혀, 거의 율법주의에 가까우리만큼 절대 정의를 고집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절대 정의의 노예가 되어서, 그 정의가 죽어버리고 마는 죽은 정의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이지요. 너무 교훈의 문자적인 장절에만 관심을 갖다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훈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활에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가 우리에게 재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를 받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권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1:23에서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고, 히브리서 12:5에서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 것을 권면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12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의 생활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활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못할 때, 즉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당신의 전도가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타락해 떠나려가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해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나려갈까 염려하노라.” (히 2:1).

우리는 얼마나 떠나려가기 쉬운지!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일에 빠져서 많은 문제들 가운데 허덕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관심과 축복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렇게도 쉽게 그런 축복의 자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우리의 문제도 아니요, 우리 자신도 아니요, 우리가 당하는 불행이나 불편이나 고통이나 고생도 아닌, 주님에게로 맞추도록 권위 받고 재촉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권위는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주님으로부터 떼게 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은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 우리의 삶이 메마르게 되고 결실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가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오게 하고 붙어있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주위의 세상은 망해가고 있고, 친구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두 손으로 주님의 손을 든든히 붙잡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눈을 땔 때에, 절망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

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당면한 문제로부터 헤어날 수 있을지 방황하기 시작하며,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지요. 주님과 그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는 시야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권위자는 당신을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주님에게로 눈을 향하게 하고, 올바른 전망을 가지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당신의 문제를 내놓고, 진실된 마음을 토로하고, 당신을 괴롭히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을 호소할 때에, 권위자는 당신의 관심을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주님과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돌보심과 당신을 향한 관심에게로 돌리게끔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심을 다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너무나도 적합한 많은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권위의 은사가 끊임없이 필요한 은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강력한 전도

오늘날 권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면 교회는 지금보다 더 올바르게 행할 수 있을 것이며, 세상에 대해 더 강력한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깨우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앎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벧후 1:12-15).

당신이 권위의 은사를 가졌다면 사용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온 성도들이 충전되어서 어두움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터로 달려나가도록 준비시키는 그러한 권위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도록 일깨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믿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권위자인지도 모르지요. 저는 최근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노래들이 사실 이러한 종류의 권면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고 순종하라. 예수 안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길은 없다네. 그러니 믿고 순종하라.”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권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런 말은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권위의 은사는 영광스럽고 귀한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숙하게 잘 자라고,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권위의 은사는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몇 년 전 운동화 판매에 크게 성공한 광고 캠페인에 대해 모든 권위자들이 좋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품에 대해서는 그다지 상관하지 않았더라도, 광고 메시지는 즐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메시지가 바로 먹혀들어 갔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언제나 적합한 권위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20

단순함으로 드리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드리는 자
는 단순한 마음으로 할 것이니라.

-- 로마서 12:6,8(흠정역)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저는 좀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아무 것도 드리
지 않는 핑계로 보통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이라면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보실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의심스러울 만치 드리기를 좋아하는, 드리는 마음을 타고난 사람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소유하
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

람들에게 많은 탭런트와 자원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은 그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자기 속옷까지도 벗어 줄 사람이야.” 란 말이 딱 어울릴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 있는 물건에 대해 호감을 표시하면 즉시로 그 물건이 포장되어서 당신의 집 현관에 배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지요.

저는 라구나비치에 사는 한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은 틀림없이 드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루는 밤에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강도가 따라와서 옆구리에 총을 대고, “가진 것을 다 내놔.”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때 제 친구는 강도에게 사과하면서, “미안하지만 현금이 5불밖에 없는데요. 수표도 받으시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드리는 은사입니다.

드림의 법칙

우리가 사는 우주는 물리적인 법칙과 영적인 법칙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물리적인 법칙인 것처럼 드림의 법칙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눅 6:38).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이 드림의 법칙은 농사 짓는 일에서 잘 나타납니다. 옥수수 밭에 씨를 뿌리면서 씨를 아껴서, 6인치 간격으로 뿌려야 할 것을 2피트 간격으로 뿌리면 빈약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껴서 뿌리면 빈약하게 거두고, 넉넉하게 뿌리면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드림의 법칙입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영적인 법칙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그 법칙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그래서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전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중력의 법칙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력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서로 끌어당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력의 크기를 잴 수 있고 질량이 클수록 인력이 크다는 것은 알지만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의 하나로 인정하고, 조심해서 그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 법칙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 모른다고 해서 12층 건물에서 뛰어내리지는 못하지요.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존중하고 그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운영되지만 그 법칙들을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드림의 법칙도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티스폰으로 주면 티스폰으로 받게되고 삽으로 퍼주면 삽으로 받게 되고, 후하게 주면 후하게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어떻게 주든지 그대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35에서 바울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고 묻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목사님, 우리는 십일조 내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십일조 안 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라고 하신 것을 내가 챙기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고 물으십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고 반문합니다. 그 때 하나님은, “십일조와 헌물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는 온 나라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 하나 보라.” (말 3:8-10).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시험해볼 수 있는 영적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 번 시험해보십시오. 시험해보면 이 법칙대로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한 번 해보세요, 만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나?

성경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일곱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1. 단순함으로 드리십시오.

바울은 “드리는 자는 단순한 마음으로 하라.” (롬 12:8 흠정역) 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드릴 때 너무 복잡하게 해서 받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사는 한 사람이 최근에 제게 수표 두 장을 동봉하여 편지를 보내왔는데, 한 장은 서명을 하고 한 장(더 큰 금액)은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잡지에 실린 저의 글을 읽고 한 열 가지 질문을 적어 보내며 저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열 가지 질문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면 나머지 큰 금액의 한 수표에도 서명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표 두 장 모두를 열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은 메모를 함께 보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귀하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할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표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붙어서 온 것이지요.

약 30년 전에 헌팅턴비치에 있는 한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운타운의 중심 경찰서 건너편에 있는 아주 낡은 건물에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젊고 패기만만한 훌륭한 목사님이었으며, 지역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주차장이 없이 노상 주차를 하여야 했는데, 새로 증축한 교육관이 손바닥만한 다운타운의 땅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약 15 에이커 되는 대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의 다운타운 빌딩을 매각하여 신개발 지역의 중심에 있는 이 대지를 매입하여 새 교회시설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계획표를 보여주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을 때에 그것은 놀라

운 계획이었으며 기가 막힌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한 장로님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 건물을 교회에 바칠 때 권리증서에 명시하기를, 언제든지 이 건물이 팔릴 때는 그 소유권을 우리 가족에게로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이 교회를 처분하면 그 대금은 우리 가족의 소유가 되어야지 그 돈으로 새 교회를 살수는 없다.” 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한 장소에 계속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을 붙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제 친구 목사님은 의욕을 잃고 사표를 내고 말았으며,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는 아직도 다운타운 중심에서 주차장도 없는 좁은 땅에 그대로 있는데 고전하고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조건을 붙여서 드리는 것은 결국 교회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드리고 싶으면 드리십시오. 그러나 조건은 달지 마십시오. 단순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복잡하게 드리지 마시고요.

2. 자신에게 시선이 끌리지 않도록 드리십시오.

드릴 때는 뽐내는 마음으로 드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 스스로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드린다면 하늘의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상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봐, 대단해! 보통 믿음이 아니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상급의 전부로서 받을 것 이미 다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드릴 때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보이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마 6:1,2). 바리새인들이 돈을 넣기 위해 헌금궤로 가까이 나아갈 때, 나팔을 불도록 나팔수를 실제로 고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크게 떠벌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많은 쇼를 연출하면서 드린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구제할 때에(드릴 때에) 오른 손의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고 하셨습니다.(마 6:3,4).

3.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옴으로 드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짓기 위하여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어질 장막의 모든 기구의 규격과 모양을 말씀해 주시고, 은, 금, 보석, 특수한 천의 종류 등, 필요한 재료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의 장막이 아니었으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움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고 하셨습니다.(출 25:2).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면 아무 것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담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든지,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얘기에서 아름다운 것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러나서 장막을 짓기 위해 금과 은과 보석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은 늦 제단을 만드는데 필요한 늦을 위해 반짝거리는 귀중한 늦 거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큰 희생이었습니다.

결국 드러진 예물을 세고 무게를 다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와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출

36:5). 그래서 모세가 명을 내려 진중에 공포하기를, “무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고 하였습니다.(출 36:6).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중단시켰다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장막을 짓기에 충분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너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4.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고후 9:7). 저는 정말 그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당신 집에 가서 설탕 한 컵을 빌렸는데,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친구들로부터 당신이 그 설탕 한 컵을 제게 준 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던가를 듣는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제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 놓고선, 당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갚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제 마음은 당장 5파운드 짜리 설탕 큰 부대 채로 당신의 현관 문 앞에 내동댕이치면서, “더러운 설탕 도로 가져가라.” 고 말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색함으로 줄 때에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에게 드린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할 것이라면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러운 돈, 필요없다. 도로 가져가라.”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린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 했는데, “즐거” 라는 말의 헬라어는 “힐라로스” 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서 영어의 “hilarious-매우 명량한” 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낙헌예물(free will offering)” 이라 불렀으며 모든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free) 받았으니 거저(free) 주어라.” 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고후 9:7)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정한 금액을 자유롭게 드리시고, 절대로 억지로나 부담을 가지고 드리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드린 것에 대해 아까와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드리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 의 연보궈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은 요란하게 떠들면서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두 렵돈을 넣었는데 그것은 1센트의 4분의 1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기를, “너희들 보았느냐?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막 12:41-44).

주님의 눈에는 드린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며, 드리는 마음과 드리기를 위해 치른 희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희생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희생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쁨으로 주님께 이것을 드리며,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네 스스로 마음에 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일이며,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5.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당신이 실제로 드리는 것보다 많이 드리는 척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

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이 점을 잘못해 가지고 목숨까지 잃는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리는 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것을 다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식하는 것은 싫어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물어보세요.

6. 자유함으로 마음껏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고 말씀하셨고, 시편 기자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시 54:6).

“드리다” 혹은 “주다” 라는 뜻의 단어 “give”와 이에 관련된 단어들이 성경에 1,981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아셨는지요?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리는 것에 관해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며, 또 그게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아셨는지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 비율은 5 대 1가량 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드림의 표본은 예수님 자신일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한 것 같이 말입니다.(고 후 8:9).

알 쥘 라토노는 그야말로 주님의 본을 그대로 따른 사람입니다. 영특하고 혁신적인 이 사람은 40년대와 50년대에 중장비 기계들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익의 10%를 주님께 드리기로 하나님과 언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 라토노는 하나님께 20%의 이익을 드리기로 새로운 언약을 했습니다. 사업이 더욱 번창하면서 그는 30%로 올렸고, 그 다음은 40%로, 그 다음은 50%로, 60%로 계속 올렸으며, 그가 주님 곁의 본향으로 올라갈 때는 온 세상의 주님의 일을 위해 90%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90 퍼센트!* 하나님이 그를 너무 축복해 주셔서 자신을 위해서는 10 퍼센트만 가지고도 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드린 것보다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 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미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제 자신의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도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번 달에는 하나님에게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의 자세가,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돈을 내 자신을 위해 얼마를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모든 돈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그에게 돌려 드린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제 손에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7.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에게 드리든지 가난한 사람에게 드리든지, 우리의 드림은 사랑이 동기가 되

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고전 13:3).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모두 줄지라도, 속상한 마음으로 사랑이 없이 한다면, 어쩌면 나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박애주의자로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드리면 내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내게 놀라운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이웃에게 드리는 것

드림의 은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이웃에게 드릴 때에 더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우리보다 가난한 이웃에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 25:40). 잠언 19:17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 10:41,42).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신명기 15:7,8에서 하나님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퍽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드림의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마음은 물질을 훨씬 넘어서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 자신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고 약한자를 도울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자원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하는 도관으로 사용받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겠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9:17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에게 꾸어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가 준 것을 다 갚아 주시리라.*” (강조형)입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꾸어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자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나를 위해 좀 써 보렴, 네가 믿지 못 할만큼 퍼부어서 갚아 줄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꾸어드리고 얼마나 갚으시는지 한 번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나?

1. 당신 자신을 드리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얼마나 후하게 드렸는지에 대해,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했습니다.(고후 8:5).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나 재산보다 당신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돈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삼림

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시 50:10-12).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봐! 도데체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내가 네게 손을 벌릴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느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스테이크 먹고 싶으면 온 천지 소가 다 내 것인데 왜 네게 도움을 청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나 재산보다 더욱 *당신*을 원하십니다.

2. 당신의 탭런트와 시간을 드리십시오.

드림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돈을 드리는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돈을 드리고 나면 책임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난 주일에 내가 현금대에 5달러나 넣었는데.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신단 말이야?” 무엇을 더 원하시냐고요? 하나님은 단신을 원하시고 당신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탭런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니, 사실 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탭런트와 능력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당신의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탭런트를 그가 사용하시도록 드리십시오.

3. 당신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했습니다.(히 13:15).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그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성경은 세 번이나 “그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 말하고 여섯 번이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만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데, 같은 말씀을 두번 반복하시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홉 번이나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특별히 큰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나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늘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야웨)인데, 여호와의 이름은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견고한 망대라고 합니다.(잠 18:10).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라는 뜻으로서, 당신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그 곳에 계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왜 그 이름을 인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하는 은사

우리는 신자로서 한 곳으로부터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분을 이름하여 성령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나갈 때는 여러 곳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는데 그 중

하나가 드림의 은사를 통해 나가는 것입니다. 드림의 은사는 개발되고 성장하는데, 당신이 많이 드릴수록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원이 흘러 나가는 통로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통로의 문이 열려있는 것만 발견하시게 되면 그 자원이 당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도록 당신에게 퍼부어 주시기 시작 하십니다.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여호와와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대하 16:9).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과 능력과 사랑과 자원을 내보낼 통로로 쓰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참된 부의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드리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고 하셨습니다.(행 20:35).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드림의 은사를 주셨다면 단순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자원이 흘러나가는 도구와 통로가 되십시오. 상상 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이 진실로 옳은 말씀입니다.

막중한 책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것이니라.

-- 로마서 12:6,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다스리는 것(은사)이라.

-- 고린도전서 12:28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하며, 그 규칙을 세우고 다스

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없는 사회는 무정부 상태와 혼란으로 급속히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야만적이 되고 각각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눈에 하고 싶은대로 행하고 사는 세상이 되고 말겠지요.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목적은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공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옳은 정부는 악을 제거하고 선을 유지합니다. 인류는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그 역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를 시도해왔습니다.

최초의 정부형태 중의 하나는 봉건제도로써 지도자가 마을과 성읍들을 다스리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점차 군주제도로 발전되어 왕이나 여왕이 더 넓은 영토와 국가를 다스리는 제도였습니다.

미국은 대의정치 정부의 형태로 입헌 공화국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제도이지요.

오늘날에도 독재자에 의해 백성이 다스려지는 전체주의 형태의 정부도 있는데, 백성들은 자기들을 대표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선거는 하지만 누가 당선될 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형식적인 선거로서 실질적인 선택은 없는 것이지요.

이 모든 정부 형태 외에 사람들이 고안한 다른 어떤 정부의 형태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류는 독재와 부패 없이는 동료 인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으며, 결국 인간이 고안한 모든 정부의 형태를 스스로 다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의로 다스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의로 인간을 다스리실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다스림

성경에 처음으로 다스림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 9:6,7).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우수한 최고의 정부형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주주의임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러 오실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사실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정부형태는 신주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신주주의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국민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 항상 진 중앙에 있어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장막을 성막을 중심으로 쳤습니다.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성막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았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다른 나라와 다르기를 원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이 땅의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된 나라인가를 모든 다른 나라로 하여금 보게 해서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의 표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지만 모세를 백성의 첫째 인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언제든지 결정할 일이 생기면 모세는 여호와께 나가 여쭙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으며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온 백성의 사회생활을 다스리기에 필요한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모세 밑에는 70인의 장로가 그를 돕는 지도자로 임명되었고, 백성들이 그들의 분쟁을 이 장로들에게 가져오면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판결하였는데, 그들이 판결하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며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세의 밑에는 또한 아론이 있었는데, 이는 대제사장이며 백성들의 영적인 일을 돌보는 지도자였으며, 아론 밑에는 여러 직책을 맡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성막의 짐을 옮기기도 하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제도가 설립되어 있어서, 아론 밑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모세 밑에는 아론과 70인의 장로들이 있었으며, 하나님 밑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스리는 제도를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제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제도를 세우십니다.

신약의 다스림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중에는 다스리는 은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롬 12:8, 고전 12:28). 성령의 부르심과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최고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열둘을 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셨는데, 이들이 교회의 첫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장로들을 안수하여 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돌보게 했는데, 장로들은 자기의 가정을 먼저 잘 돌봄으로 교회를 다스릴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라고 디모데전서 3:5에서 말했습니다. 끝으로 장로들 밑에는 집사들이 있어서 교회의 물질적인 일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스릴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이 지도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다스림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은사 받은 지도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의 지도에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성품과 품행을 갖춘 것 같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항상 절실히 요구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무대에서 사라질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돌볼 수 있는 목자를 세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신에 감동된 사람 여호수아를 세우시기로 이미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민 27:15-23). 모세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계속되는 것이지요. 나라는 쇠퇴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후계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하심 아래 다스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에서 우선 갖추어야 할 자격인데,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인도되는 사람이어야 하지요. 그 어느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이것이 결여되면 언제나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이사야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슬픈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리라.” (마 15:14)고 하셨고, 잠언 29:2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지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서로 순종하는 일들이 더욱 왕성해지는 것이지요.

다스리는 자의 자격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3:1-7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며,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하면⁽¹⁾,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바울이 열거한 자격요건에 의하면, 적격자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건인 “책망할 것이 없으며” 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이 자격요건들 중에 하나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하려 들 수 있겠습니까? “미안합니다만 저는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도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적이 없거든요.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성경 말씀이 인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간 온갖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장로는 탐심이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신은 이웃의 근사한 스포츠카를 보고 내 것이었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그것 때문에 당신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바울이 열거한 자격요건들은 모든 범죄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아무도 체를 통과할 수 없고 따라서 교회에는 지도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시는 사람은 대체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윤곽을 말씀하신 것으로,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성숙해 가는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완벽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말한 것이지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성경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혹은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규칙을 주십니다.

1.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윗 왕이 임종할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 중에 이렇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 다스려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한다.” (삼하 23:3 흠정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릴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부패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부정직하고 비뚤어진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스릴 수 없는 것이지요.

고대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역사의 위대한 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이 꿈에서 본 신상을 묘사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정금으로 된 머리에 비유했는데 이는 그가 다른 모든 왕들보다 위대한 왕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의 위대함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자기를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기가 별하고 싶은 사람은 별하고 자기가 높이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높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한 것은 아무도 거역할 수도 없었고 상소할 더 높은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만에 빠졌고 하나님은 그를 낮추셨는데,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들도 다스리셔서, 가장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에게 나라를 주시는 분임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일곱 때를 미쳐서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권력들을 세우시고 통치체계를 두시지만 항상 최고의 권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권위를 가질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권위를 주면 권위를 이용하려 하고 머지않아 그 권위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게 되는 폭군이 되고 말지요.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자기보다 높으신 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언젠가 그 분 앞에서 답변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 부지런 하라.

잠언 12:24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고 했는데, 저는 이 구절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 12:8을 쓰게 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 함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은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권력으로 인한 과실을 범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기들의 지위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지 살피는데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에게서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너무 자주 보게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그도 많은 지도자들이 빠지는 올무에 빠지게 되는데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이며 자기의 말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람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에게 다스리는 직책이 주어졌다면, 어느 날 온 우주의 심판주 앞에 서서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다스리느냐가 앞으로 올 왕국에서 어떠한 권위를 받게 될지를 결정해 줍니다. 예수님은, “지혜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눅 12:42).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 지구상에 이루어질 때에 그와 함께 다스리는 기쁨의 다스리는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장차 올 왕국에서 우리가 받을 권위의 크기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스리는 일들을 얼마나 부지런히 책임을 다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비천한 일이었던 양치는 목동의 일에서 취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의 선임자인 사울도 한 때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도자의 직분을 주셨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겨주신 권력을 어떻게 행사했느냐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부지런함으로 다스리십시오.

3.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라.

히브리서 13:7은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돌보는 사람들의 영적인 복지에 대해 책임이 있는데, 양떼들의 영적 건강을 보장하는 최선의 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 일을 잘 담당하고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면,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같이 하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되고 근심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히 13:17). 제가 말하지만,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근심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막중한 책임

하나님을 백성에게 나타내는 일은 막중한 책임입니다. 당신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며, 절대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잘못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못 나타내지기를 싫어하는 것 이상으

로 잘못 나타내지시기를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죄목이었습니다. 므리바 물에서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모세여,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애굽에서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건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당신은 아직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말을 들은 우리가 미쳤지요.” 그들은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떠나 여호와 앞에 가서 백성들이 그에게 한 것같이 속 상해 하며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나가서 반석에게 말하라.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너희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내가 이 반석을 또 쳐야 되겠느냐?” 라고 말하고는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셔서 반석에서 물은 솟아 나왔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야, 너 좀 이리 와보련.” 모세를 불렀습니다.

“예, 주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르든?”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너는 왜 반석을 내리친거야? 모세야,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나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어. 나를 잘못 나타냈단 말이야. 너는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에게 화가 난 것으로 믿게 했어. 그들은 내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줄로 안단 말이야. 그래서, 너 모세야, 네가 나를 나타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을거야.”

“뭐라구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40년 동안이나 오직 그 소망 하나 때문에 이 백성들을 참고 견디어 왔는데.....”

“모세야,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끝난 이야기야. 네가 므리바 물에서 백성들 앞에 나를 나타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나타내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는 부흥해야 하는데 부흥하지 않을 때나, 교인들이 슬렁거릴 때나, 혹은 다른 문제들이 있을 때 등 개인적인 좌절에 부딪힐 때마다, 얼마나 자주 불쾌해 하고 화를 내면서 이를 악물고 설교하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때문에 정말 화가 단단히 나셨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지요. 결국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화가 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잠깐! 나는 그들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데, 너는 나의 대변자로서 너의 말한 것이나 한 일을 통해 내가 그들에게 화가 나서 그들을 버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잖아. 너는 나를 잘못 나타냈어. 나는 그게 싫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한 소녀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는데, 그녀는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소위 “*목양 교리*” 라고 불리는 교리를 받아들인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결정에 있어서 “*목자*” 와 상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자동차도 살 수 없고, 옷도 살 수 없고 신발도 살 수 없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를 찾아가서 상의하여야 하고, 목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이 교리는 히브리서 13:17을 잘못 사용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

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소녀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네가 우리 교회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따라서 너는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네가 딴 교회로 가면 역시 지옥으로 가는데 이는 네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해서 배반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딱한 소녀는 비참했습니다. 은밀히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먼저 교회의 목사님에게 발각되어 당장 지옥으로 보내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비극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간다고 협박하여 사람들을 쇠사슬에 묶어 놓아서 안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진실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서 다스려야 하는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모두 다스리는 자

당신은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길로든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스리는 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권위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의 인도자로서 행동을 지시하고, 언제 그들이 갈 수 있는지, 언제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스릴 때는, 당신도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유일한 최종적인 권위자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최종의 권위이시며 모든 결정은 그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단지 그가 원하시는 일들과 요구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일 뿐으로서, 우리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결정을 따라 그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뿐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2

필요할 때에 준비된 도움

.....*궁핍(자비)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 로마서 12:8

기술의 발달로 강력한 망원경이 발명되면서 천체학자들은 이삼년마다 우

주의 크기에 대한 추정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은하수들이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멀리 물러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우주의 직경이 40억 광년이라고 배웠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는 80억 광년 정도가 된다고 했고, 지금은 120억 광년 내지는 180억 광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이러한 새로운 측정 수치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03:11에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하늘이 얼마나 높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하늘이 높은 만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하셨으니, 우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날마다 더해지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 만큼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과 부드러움입니다.

자비는 또한 공의와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 사람은 당연히 받아 마땅한 것을 받았다.” 고 말하는데,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땅히 받을 것을 받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우리 모두 공의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자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원천이시기 때문이며, 이 하나님의 자비는 성경의 주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자비를 언급한 것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의 사건을 기록한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을 멸망할 성에서 이끌어 내기 위해 왔을 때 말하기를, “속히 도망하라, 네가 이곳에서 나가기까지는 우리가 아무 것도 행할 수 없노라.” 고 하자, 롯은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라고 대답합니다.(창 19:19).

롯은 자기도 사악한 두 성에서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를 멸망당하는 자들로부터 구해내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자비인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고 했습니다.(창 32:10). 그의 말이 맞습니다. 야곱은 음모꾼이었으며 그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 로서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 사람이라는 뜻의 풍자적인 이름입니다. 야곱은 일평생동안 속이고 음모를 꾸미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로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축복은 절대로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은 것일 뿐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고, 다니엘 9:9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었으며” 라고 했으며, 예레미야는, “여호와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애 3:22). 시편 116:5는 우리에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모세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라고 주장했습니다.(민 14:18). 신명기 4:31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고 말하고 있고, 느헤미야 9:31은 우리에게, “주의 긍휼이 크시므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미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설명들을 “주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신다.” 는 말씀으로 종합하였습니다.(미 7:18).

하나님은 자비(인애)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당신이 할아버지가 되기까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 저는 손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손자 아이들이 야단 맞을 때, “내가 애들을 좀 데리고 산보나 갔다올까?” 하고 아이들 부모에게 말하지요. 그렇게 함으로 아이들이 매맞는 것으로부터 구해주게 됩니다. 저도 자비를 기뻐합니다. 자비는 참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크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비가 영원무궁하십니다. 성경은 41번이나 여호와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무궁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5이 그런 구절 중 하나인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잘못된 개념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이 항상 제게 화를 내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완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벽하고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늘 제게 화를 내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게 어떤 재난이 닥칠 때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온 것이고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알고 있기만 했더라면 그렇게 생각지는 않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만나 율법의 두 번째 판을 주셨을 때(첫 번째 판은 모세가 깨뜨려 버렸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출 34:5-7). 이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어린 시절 이후 하나님에 대한 저의 견해가 철저히 변했습니다. 지금은 자비를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며, 제게 화가 나지 않으셨다는 것

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저를 불러주신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자비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 크셔서, 우리는 자비와는 거리가 멀다는 험악한 사실을 두드러지게 합니다. 인간은 원래 본성적으로 복수심이 강합니다. 그대로 갚으려 합니다. 우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은 “죄를 범하는 것은 인간이고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수하려드는 것은 인간이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는 한편, 하나님의 공의 또한 베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원하면서도 한 가지 예외를 두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물론 자비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비는 우리의 본성적인 성품이 아니므로 우리가 자비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의 이러한 면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성령의 은사들 중의 하나로 열거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복수할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 “주님! 주님의 자비를 제게 주세요. 이 일에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으로부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세요.” 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성령의 은사로 열거된 것입니다.

자비가 아닌 것

어떤 이들은 자비를 베푸는 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들은 자비를 베푸는 포용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비” 를 베풀 때에 음침해집니다.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네가 한 것을 생각하면 너를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도 속이 안 풀리겠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라고 해서 참긴 참는데, 결코 이 일을 잊을 수 없을거야.” 라고 이를 악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죄책감과 회한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잘못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나를 두고두고 마음에 못이 박히게 하지요.

여러 해 전 저의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에, 저는 아내와 함께 장례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장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맨 한 사람이 손을 비비며 나와서 인사를 하고는,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장례식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온 세상 슬픔과 고통을 자기 혼자 당한 것 같이 다 죽어 가는 목 메인 소리로, “아가씨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요? 아이고, 이렇게 아직 어린데 아버님을 여의다니! 아이고 불쌍해라!” 하면서 흐느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까지는 저와 저의 아내는 잘 이겨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통에 수라장이 되고 말았지요. 그 사람은 자비를 베풀느라고 한 것이지만 그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욥이 환난을 만나 고생하고 있을 때에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오히려 그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옴이 재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온갖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늘어놓았습니다. 한 친구는 그를 외식하는 자라고 했고, 다른 한 친구는 그를 거짓말쟁이라 하며 모두가 옴의 숨겨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옴은,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한치의 자비도 베풀 줄 모르는 너희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큰 일을 저지르고는 이제 세상이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고 더 이상 길도 보이지 않고 다시 해볼 기력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참으로 자비를 베푸는 은사를 받은 친구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 뛰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장래에 대해 매우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라서 어떠한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일지라도 용기를 주어 일으켜 세워 주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침울한 얼굴로 목 메인 소리를 하지 않으며, “자! 무슨 일인지 함께 해결해 봅세. 일이 잘 풀릴 걸세.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으니 걱정말게, 형제여!”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지요.

자비를 베푸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시지요?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줄을. 아직 끝장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견딜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구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며, 다정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요. 자, 일어납시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고 일어납시다.” 그들은 우리를 절망가운데서 헤어나게 해주며 일으켜 세워주어 견디어 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해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바울은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롬 12:8).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 괜찮아요!” 말하기는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복수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아닌 것을 보통 알아볼 수 있습니다. 즐거움의 부족 때문에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 아직도 속을 끓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즐거움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전혀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는 즐거움으로 하여야만 합니다. 긴급전화 핫라인에 앉아 대기하다가 전화벨이 울릴 때, “제기랄, 이번에는 또 무슨 골치 아픈 문제인가?” 라고 말하려면 긴급전화 핫라인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 때는 즐거움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아예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과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만이 상급을 얻게 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하려고 애쓰는데 그 이유는 하나

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베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가지고 찾아갈 기회가 생기면 가슴이 뛰며,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지요. 자비를 베푸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돕기 위해 기꺼이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즐거움으로 자비를 베풀고 싶어 어쩔 줄을 모르지요.

자비는 용서로 이릅니다.

자비는 용서와 같은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용서를 베푸는 것이 곧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에 관한 말씀은 실로 자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혹하고 비판적이면 우리도 가혹한 판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우리도 자비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 7:1,2). 야고보는, “공홀(자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홀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고 했습니다. (약 2:13).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이러한 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는 기도 끝에 잠시 멈추시고 이 간구를 강조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 6:15).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신학적으로 제게 따지려고 할지 모르지만 제게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 분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기본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예화가 이 원칙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종이 주인으로부터 1600만 달러를 빌렸습니다. 그 종이 값을 기한을 좀더 달라고 사정하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기에게 16 달러 빚진 동관을 만나 불들어 목을 잡고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옥에 가두겠다고 협박한 후, 그 동관이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고 사정하였지만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고하자, 크게 화가난 주인이 그 악한 종을 불러다가, “말해봐라! 너 나한테 얼마 빚졌었지?” 물었습니다. “1600만 달러쯤 되지요.” 종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았더냐?” 주인은 다구쳤습니다. “예, 그러셨지요.” 종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16 달러 빚 때문에 동료 종을 옥에 가두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거냐?” 주인은 호령을 하고는 옥졸들에게 명하여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 가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없애 주신 것이지요. 그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로 인해,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동료 종이 잘못된 조그마한 일로 가혹한 마음을 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갈 때 웃고 인사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어디, 두고보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큰 빚을 탕감 받았다면 어떻게 형제의 사소한 잘못을 물고 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용서는 하네만 자네가 한 일은 잊지 못할거야.” 라고 말한다면 잘못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작두를 지금은 묻어 두네만, 자루만 나오게 해 놓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당장 집어들 수 있게 하겠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참된 용서가 아니며 참된 자비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는 절대로 원치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용서할 때는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참된 용서이며 그것이 참된 자비입니다.

자비의 적극적인 면

자비를 베푸는 것을 단지 소극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비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며, 자비를 베푸는 은사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신약에서 얼마나 여러 차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했는지 생각납니까?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막 10:47). 이것은 용서를 구하거나 비판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과 그의 필요에 대해 동정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지른 문중병자 열 명과(눅 17:13),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을 위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른 것과(마 15:22), 또, 귀신들린 아들과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던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마 17:15). 그 때 그 때 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홀이 “커버링 윙스 선교회” 를 움직이는 동기이며 기본정신입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때를 전후해서 무숙자들에게 담요를 나눠주어 추운 겨울밤에 몸을 덮을 수 있도록 해주는 단체입니다. “오퍼레이션 레스큐 선교회” 를 움직이는 원동력도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자비와 공홀입니다. 공홀이 이들을 공공 낙태시술소 앞에 서서 산모의 자궁에서 생명을 떼어내도록 허락하는 잔인한 국가적인 범죄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반대를 부르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공홀을 베풀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공홀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보이게 되고 마음이 움직여 도움의 손길을 뻗게 되지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공홀이며, 이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의 적극적인 면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은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36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인격을 닮아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심에 있어서 우리의 본보기이시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지요.

미가 6:8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며, 스가랴 7:9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받는 데 달린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도 우리가 자비를 받는 것과 함께 묶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5:7). 이와 같은 말씀을 구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22:26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자비로워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항상 정당화하려 드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저질렀을 때에는 우리는 종종 가혹하고 비판적이 됩니다. 린치족들을 불러다가 그들 앞에서 공공 무어 놓고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도 어느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으로 삼으실 것이란 사실을 잊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자비를 많이 베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제게 크신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13을 기억하십니까? “공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홀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것과 같은 공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홀을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홀 없이 심판을 하시겠지요. 당신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공홀을 베푸는 것이 제게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의 본성을 심어주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감동

자비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자비의 은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자비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향하신 공홀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나를 쓰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항상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울 뿐이며, 이 모든 것이 그의 무한하신 자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의 은사를 주셨다면 즐거움으로 행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홀을 베푸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당신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부어줄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노라면 세월이 가면서 시편 103:11의 말씀에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하늘이 얼마나 확장되든지 하나님의 자비도 여전히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제 4 부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에게
응답하여야 하나?

참된 불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
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 누가복음 3:16

저는 얼마 전에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찰스 핀리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전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행하신 특별한 일을 기록한 것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저녁이 이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새로 옮겨온 사무실에 나 혼자 남게 되자마자 기도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게을리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지요. 내 영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계속 기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가구들을 이리 저리 배치하고 책들을 정리하고는 저녁 시간은 혼자 보낼 셈으로 벽난로에 불을 집혔습니다.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잘 정돈 된 것을 확인한 스쿼이어 라이트는 잘 있으라는 인사를 남기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를 문간까지 배웅하고 돌아서는데, 내 마음속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감정이 격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영혼과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부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이 너무 강해지자, 기도하기 위해 사무실 뒷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방에는 불도 없었고 빛도 없었는데도 내게는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서 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 때까지 그런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한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정신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가하면 한편으로는 보통 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분명히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도록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후로 지금까지 그 때의 마음의 상태가 가장 특이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꼭 실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온 영혼을 쏟아놓았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면서 목멘 소리로 간신히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흘러내리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흠뻑 적신 것 같았는데, 내 기억으로는 주님을 만진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상태로 한 동안 계속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데, 주님과의 대면에 너무 몰두한 탓인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대면으로부터 정신을 차릴 만큼 내 마음이 가라앉자 앞 사무실로 돌아온 것은 생각

이 나며, 돌아왔을 때 아까 불을 집혀놓았던 벽난로의 큰 나무가 거의 다 타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때 내가 돌아서서 불 옆에 앉으려 할 때에 나는 막강한 성령세례를 받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고, 내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마음속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에 대해 내게 말해 준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내리셔서 내 몸과 영혼과 전체를 통과하여 지나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류와 같은 것이 내 몸을 통해 계속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이지 액체와 같은 사랑의 물결 같은 것이 계속 이어져 다가왔는데, 그렇게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숨결과 같기도 했습니다. 내가 뚜렷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거대한 날개로 내게 부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 전체에 쏟아진 아름다운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쁨과 사랑으로 크게 울었으며, 확실치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용솟음쳐 오르는 말들을 그대로 토해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몸 속에 흐르는 전류가 하나 다음에 또 하나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내 기억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전류가 저를 덮치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고함을 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핀리 목사님의 성령세례의 체험 간증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간증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야기합니다. 성령세례란 정확히 말해서 무엇인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과 같은 것인가? 중생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인가? 항상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차분하게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성령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성령세례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3:16에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3에서 세례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은 예수님이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

고 있습니다.

이 성경구절들은 성령세례라고 불리우는 경험이 분명히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세례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중생의 경험과 같은 것입니까?

성경은 성령세례를 중생과는 구별된 독특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각각 다른 일입니다. 여러 성경구절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22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법칙에 있어서 분명한 의미가 주로 정확한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고 하셨다면 분명한 의미는 그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그 때부터 제자들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모두가 이 해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상징적인 것으로만 간주해, 중생의 경험과 성령세례의 경험을 하나의 같은 경험으로 믿으며, 요한복음 20:22의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뒷받침할 성경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의 한군데도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이지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20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하라.” 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후에 베드로가 꼭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를 지키기 시작하며 교회의 대변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신 것은 이보다 후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4,5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성령의 세례가 제자들이 중생한 이후에 일어난 일로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신 후에 일어난 일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반론에 대한 답변

어떤 성경해석가들은 바울이 말한 두 구절을 들어 중생과 성령세례는 언제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들은 중생과 성령세례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으면서도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것이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고린도전서 12:13의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구절을 들어, 성령의 세례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마태복음 3:11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그 세례의 요소는 물이었으며 죄를 씻고 회개하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세례는 성령이 세례를 주시는 분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요점이며, 반면 사도행전 1장의 약속의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성령이 세례의 요소이며 전도하기 위한 능력을 받는 것이 요점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세례가 중생과는 별도의 일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구절은 에베소서 4장인데, 이 구절은 바울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한 구절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했습니다.(엡 4:4-6).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는 오직 하나라고 지적한 후,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태어나는 성령의 세례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에베소서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나이지 여러 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요즈음 우리들이 자주 보게되는 교파들 간에 서로 싸우는 분열현상과 같은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오직 몸은 하나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 뿐이고 세례도 오직 하나란 말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교의 세례가 따로 있고 장로교의 세례가 따로 있고 감리교의 세례가 따로 있고 침례교의 세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수 없다는 뜻으로, 주님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5과 고린도전서 12:13을 짝지어서 성령의 세례가 구원받고 중생한 다음에 일어나는 별개의 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 시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중생과는 별도의 독특한 경험이 있는데 이 일을 성령세례라고 분명히 일컫는 것입니다.

세 개의 주요 전치사

우리는 좀더 성령세례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령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된 세 개의 헬라어 전치사들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실의에 빠진 제자들의 무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혹은 그들 “곁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주의하십시오. 이 전치사는 헬라어의 “*파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곧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보다는 더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 “속” 에 계시겠다고 하는데, 이 때 사용된 전치사는 “*엔*” 입니다. 저는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파라*” 의 관계에서 “*엔*” 의 관계로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이 두 전치사가 당신 자신의 경험도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이는 성령이십니다. 당신의 죄를 씻어주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나타내주신 이는 성령이시고 그 분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당신 속에 들어와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파라*” 에서 “*엔*” 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신자가 성령세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전치사인 “*엔피*” 로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혹은 “위로부터 덮으면” 이라는 의미입니다.(제 개인적으로는 “너희에게서 흘러 넘치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 “*엔피*” 는 신자들이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령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막강한 권능(*두나미스*)으로 내 삶 가운데로부터 흘러 넘쳐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8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엔피*) 너희가 권능(*두나미스*)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과 함께(*파라*) 하시는 것과 성령이 당신 속(*엔*)에 거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며,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시는(*엔피*) 것은 좀더 다른 경험인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지요.

빈 컵 옆에 물이 든 주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주전자에 있는 물이 “*파라*” 로서 컵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을 주전자로부터 컵에 따르기 시작하면 이제 이 물은 컵 “속(*엔*)” 에 있게 됩니다. 컵을 물로 채우고 계속 부으면 컵은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엔피*” 로서 컵 위로 “임하여” 혹은 컵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파라*” 로 시작해서 ” *엔* “의 상태로 들어가고 ” *엔피* “의 상태로 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함께” 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 우리 “속” 에 들어와 거하시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면 우리의 삶으로부터 성령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속에 성령은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삶으로부터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엔피*” 를 경험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세례입니다.

봉사를 위한 능력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을 안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으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오지 못하고 이름뿐인 크리스천으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주위는 맴도는 데 흘러 넘치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목적과 뜻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성령이 흘러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마음에 찔려 소리지르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습니다.(행 2:37). 그들은 죄를 깨달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 2:38)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말한 선물이 바로 봉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넘치는 “*에피*” 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면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행 2:39)하고 말을 마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마지막 사도가 죽음으로 성령의 선물이 끝나게 된다고 말하지 않은 사실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되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면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뜻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성령에 관한 가르침을 새롭게 해야하는 것이라고 깊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산 증인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를 위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과 마음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부터 영적으로 각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피*” 의 역사가 이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성령세례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세례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러 저희가 다 다락방에 모여 기다리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²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의 전도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함

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ἔρχη)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행 8:14-16)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당시 다소 사람 사울로 알려졌던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정오 때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이면서 바울이 땅에 엎드러지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때 바울이 “주여, 뉘시오니이까? 라고 말할 때에, ”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고 대답하십니다. 그 때 바울은 주님에게 ”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행 9:1-6 흠정역).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고 중생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복종하는 것은 중생의 명확한 표시인 동시에, 또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분명한 표시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 시라 할 수 없다고 했는데(고전 12:3), 여기서 바울은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울에게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고 하셨으며, 바울은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 성의 중심가인 직가라고 하는 곳에 사는 유다의 집으로 인도됩니다.

그 때에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잠시 주님과 논쟁하지만 즉시 순종하고 바울을 찾아가 만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행 9:17)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은 일 다음에 일어난 일로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으로 보내지는데, 그곳에는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으며(ἔρχη), 이 때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들의 구원과 성령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이 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면서,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위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말합니다.(행 11:15,16). 베드로가 말한 본심은, “나는 그들에게 말만 했다. 그런데 말하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며 저절로 일어난 일일뿐이다. 그 때 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다.” 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아볼로의 전도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아마 기쁨이 부족했는지도 모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얼굴을 봐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퍼 보이고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어쩌면 사랑이 부족했는지도 모르지요. 박절하고 비판적이라던가....., 아니면 그들에게 열정이 없는 것을 바울이 보았는지도 모르지요. 덤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과 관계와 믿음 생활에서 무언가 부족한 것을 알아채고, 왜 그런지를 알아볼 작정을 하고,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흠정역) 하고 물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믿고 나서 따르는 성령충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고 묻는 것입니다.³

그들은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전혀 성령에 대해 모르는 것이지요. “성령? 성령이 뭐니까?” 하는 거지요. 그 때 바울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니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는 세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행 19:1-6). 다시 한번, 이 세례는 구원 뒤에 따르는 체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성령을 받을 때의 각기 다른 체험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사도행전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바등니 체험과 방법과 나타난 현상이 매우 다양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 사도행전 2장: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음.
- * 사도행전 8장: 바울과 요한이 안수했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특별한 현상은 기록된 것이 없음.
- * 사도행전 9장: 다메섹의 평범한 평신도인 아나니아에 의해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셨음.

- *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해 설교는 중단되고, 이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함.
- *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일들이 어느 하나도 서로 똑같지 않은 것에 주의하십시오. 가장 근접한 것이 2장의 사건과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넬료의 집에서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없었고 불의 혀 같이 갈라진 것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형태에 얽매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데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체험한 일이 아무리 훌륭해 보일지라도 똑같은 형태를 따라 체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장의 처음 부분에서 핀리 목사님이 자신의 성령세례의 체험을 간증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체험은 훌륭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의 체험은 그의 것과 사뭇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기다리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시든 마음 문을 여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반응이나 흥분을 기대하지 마시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를 주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목사님이 안수하거나, 바울이 성령세례를 받을 때처럼 당신의 교회의 평신도가 안수할 때에도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앉아서 기다리다가 성령세례를 받은 것처럼 아무도 안수함이 없이 성령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서 있는 동안에, 마루에 누워 있는 동안에, 혹은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에도 성령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심에 있어 어떤 특별한 방법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공식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이 되기 위해, 주시는데로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고 그의 막강한 권능을 당신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십시오. 그의 능력을 공급받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거자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이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이 미리 예언한대로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시급한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막강한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4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 사도행전 2:38,39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기다리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는 큰 무리를 모이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베드로가 일어나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고는, “지금 아침 아홉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의 죽으심과 장사지냄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 보내주심을 설교하고 마쳤을 때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습니다. 그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행 2:1-39 참조).

누구에게나 주신 약속

베드로의 말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모든 세대의 모든 신자에게 주신 약속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물이라는 말의 정의는 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노력해서 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선하고 신실하게 살거나 고도의 거룩함을 성취한데 대한 상급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했거나 오랫동안 믿었거나, 현재의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성숙도가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 부족하든 상관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받을 수 있으며, 꼭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립니다. 무언가 성령을 받을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축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저도 이 문제로 오랫동안 고전하였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많은 목사님들과 부흥사들로부터, 성령은 부정한 그릇에는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분인 만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에 대해 제가 들은 사람들의 간증이 이 가르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간증들은 대체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성령 받기를 갈구했습니다. 결국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강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담배도 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혹 다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고민은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고 술도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강단에 꺼내놓을 담뱃갑이나 술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주님, 제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껌인가요? 아니면 오레오 과자인가요? 제가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끊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과자와 껌을 강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는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불합격시켜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결국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들만 채워주시므로 선물을 받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당신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 봐! 네가 구원 받고 싶으면 먼저 네 행동부터 깨끗이 하고 와. 네가 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일들 다 그만두고 네 생활을 하나님과 바로 한 다음에 오란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지금 처해있는 그런 누추한 곳에서는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치 않으셔. 네 자신을 먼저 똑바로 하고 나서 주님께 나오도록 해.” 라고 누구에게 말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그들은 “내 생활이 깨끗해지는 날에는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돈을 모으면 결혼할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고수한다면 평생동안 총각으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한다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성령이 거하시는데 합당하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예수님도 성령을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행 1:4). 그리고 선물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의 은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필요성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믿음과 성령에 관해 이런 수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 3:2). 분명한 답변은 그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관해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번 것도 아니며,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도 아니며, 특별한 수준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성취한데 대한 상급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은사를 받은 것일 뿐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어떤 받을 자격을 갖추거나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도 아니며 선한 행위에 대한 상급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라고 했습니다.(11:1).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도, 믿음으로 성령 받는 데 이르러서는 우리는 어떤 증거를 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구하면서 방해 받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어떤 종류의 초자연적인 증거를 기대하거나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늘에 로켓이 번쩍이면서 나타나 수평선상에 활활 타오르는 불로 “*아프리카로 가라!*” 는 글씨를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참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입학원서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소명을 받은 일에 대해 설명하라는 난이 있었는데, 제게는 말할만한 굉장한 스토리가 없었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감동적인 부르심과 환상, 반복되는 꿈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 나타난 십자가 등을 설명했는데 제게는 도무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참 설명하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네 삶을 일시적인 것을 위해 투자하겠느냐?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겠느냐? 의학을 통해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일을 원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치료로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기를 원하느냐?” 는 세미한 작은 음성밖에 없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과 도전이 일어났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것이 부르심인 줄 알고 따랐고 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십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직도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면, 드라마틱한 부르심과 환상을 설명하던 많은 사람들은 종교차 세일즈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종종 매우 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항상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허리케인 가운데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세미한 작은 음성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도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한 제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를 향하여 이르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고하십니다. 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 라고 말씀하시지요.(요 20:24-29 참조).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늘로부터의 어떤 표적을 구하는 일이 이와 비슷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가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때 주님은 “너는 거룩한 손길을 느끼고로 믿느냐? 그러나 거룩한 손길을 느끼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거룩한 손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증거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증거는 따릅니다. 그러나 증거가 성령 받은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증거 없이도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원수의 수작

언제든지 당신이 믿음으로 서려라 할 때면, 마귀가 항상 방해하기 위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병 낫기를 원하거나 구원의 확신을 위해 혹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사탄은 틀림없이 당신에게 도전해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잘 써먹는 수작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서려하는데 당신이 한번 화를 내게되면 사탄이 대번 찾아와서, “야! 그것 봐! 너는 진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 얼마나 네가 화를 크게 냈는지 보란 말이야!” 하고 속삭이는 거지요.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안에 서려하면 사탄이 그 증세를 더하게 해서 전보다 더 아프게 만들고는 당신의 병이 낫고있다는 증거를 찾게 하고 표적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자 하면 당신의 믿음의 발걸음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믿음이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첫 발자국을 또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분명히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일깨워 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선물을 받았던 그 날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약속의 말씀을 자꾸 일깨우고 그 약속에 의지해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던 것을 돌이켜보며 확신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도전할 때마다, “어이, 꺼져,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언제나 크리스천의 삶에서 예외 없이 제기되는 질문은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당신은 “아,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라고 말할테지요. 그래요?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슬그머니 다가와서는 하와에게, “와! 참 아름다운 동산이구나! 나무도 많고, 실과도 많네! 너, 이 모든 것 먹을 수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다 먹을 수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만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저 실과가 다른 모든 실과보다 맛있어 보이잖아!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겠니?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저 실과가 모든 실과 중에 가장 으뜸가는 실과인 줄을 아시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는 선악과 나무야. 너희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을까봐 겁이 나신 거야.

봐! 얼마나 아름답고 먹음직하니?” 라고 말하면서 충동질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아니야! 그것 믿지마!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죽일 수 있단 말이야? 너, 절대로 안 죽어!”

하와는 갑자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마귀는 거짓말을 아주 조리 있게 하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하와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거짓말 중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 그녀의 선택 때문에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을 가지고 원수의 영역을 정복하고 점령하게 되는데, 그 때마다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지요.

“너는 지금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 꿈 깨.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우리들도 너무 자주 거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결국은 되지도 않고 나만 비참하게 될걸. 애당초 안 되는 일이었어.”

결국 모든 갈등은 한 가지 질문으로 집약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성령의 은사를 받을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느냐? 아니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의심을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는 줄을 압니다.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산더미 같은 증거

제가 성령세례 받은 증거를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에 아무런 증거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걸으며 그가 당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 많은 경우 한 동안 당신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랫동안 살면서, 몇 가지 나쁘고 못된 육신의 성품을 고쳐 보려고 무던히도 쓸데없는 씨름을 했습니다. 이런 못된 성품들은 저의 간증을 힘없게 만들고 절망가운데 빠지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자신을 고칠 수 없었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지요. 그런데도, 저는 그 사실을 오륙 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멍청해서 내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저를 화나게 만듭니다. 찬장 문을 열어둔 채 일어서다가 머리를 찡게되면 얼마나 아픈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게되고 신경질이 나서 어쩔 줄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이 부분을 얼마나 아름답게 고쳐주셨는지, 지금은 아무리 머리를 찡어도 화를 내지 않고 표시도내지 않습니다. 아무 표시를 내지 않으면 아이들은 내가 아프지 않은 줄 알지요. 실은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 아프다. 멍청하게 또 찡었구나.” 그러고 말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때는 당신이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여러 일들을 나타내 주셔서 어떤 사람의 인격의 흠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당신을 속이려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경고해주시기도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은사들이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

는 증거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 안에서 걸으며 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 온갖 영광스러운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즐기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때로는 흐느껴 울게도 되고 어떤 때는 굉장한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도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흥분된 경험들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성령의 다양한 역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경험에 의해 설명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설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황홀한 어떤 경험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받기만 하면 되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고 하였고, 사도 요한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 예수 믿은 자들을 돌아보기 위해 사마리아로 갔을 때,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고 했습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 애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성령은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한 막강한 전도자로 변화 받게 하기 위해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당신에게 황홀한 영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고 하셨습니다.(눅 11:11-13).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구하는 자식에게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지극히 거룩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구하기만* 하십시오. 선물입니다.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원치 않는 어떤 것을 억지로 강요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당신이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만만하게 구할 수 있는 간구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알고, 또 우리의 구한 것을 그가 주실 줄을 안다.” 고 말했습니다.(요일 5:14). 그러므로 당신이 성령을 달라고 간구할 때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구하라고 하신 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당신이 이 은사를 받기 위해 아직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바로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주님,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성령의 은사를 제 삶 안에 받습니다. 저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돕고 강건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제게서 흘러나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를 통해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능력이 그들에게 베풀어지도록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런 중요한 믿음의 발걸음에 꼭 기어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봐! 주님이 내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 들였으며, 나는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단 말이야. 이제 성령의 은사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거짓 말하려면 판 데 가서 알아봐!”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축복

예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하셨습니다.(마 5:6).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리고 목마른지 궁금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를 갈구하십니까? 당신의 육체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당신도 다윗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 때문이지요.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렵니까? 아니면, “아, 너는 안 돼. 네게는 주시지 않아! 너는 너무 멀리 갔단 말이야. 너는 너무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 하나님도 너를 해방시킬 수 없을 만큼 말이야. 다른 사람은 다 하셔도 너만은 안 돼. 너는 특별 케이스야. 너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버렸단 말이야.” 와 같은 따위의 말을 믿으렵니까?

어느 것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거짓말입니까? 당신이 사탄의 거짓말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모든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는 이 우주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며, 한 번 그가 하신 말에는 당신의 삶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위대한 선물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한 영광스러운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당신의 갈 길만 간다면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일입니까? 종종 사람들이 초자연적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의 황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선물은 당신 것입니다. 공짜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지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들어 불쌍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는데 사용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그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데 사용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당신 주위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용하게 하십시오. 흘러 넘칠 때까지 채워 주시도록 구하고 나서, 이 궁핍하고 절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 쓰실 때 기뻐하십시오.

사랑의 폭포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 요한복음 7:37,38

당

신을, 로마가 멸망시키기 오래 전의 고대 이스라엘에 살던 여덟 살이

나 아홉 살쯤 된 어린아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일년 중에 특별한 날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좀 괴상한 일을 시키십니다. 편안한 집을 놔두고 종려나무 앞으로 얽박하게 임시로 지은 작고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팔 일 동안 살라는 것이지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초가지붕 틈새로 하늘의 별들이 보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희한하다는 듯이 “아빠! 하늘에 별이 보여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 때 아버지가, “그래.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별을 보며 잠자리에 들기를 40년 동안이나 하셨단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어.” 라고 대답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차가운 바람이 뽕뽕 몰아치면서 지붕 틈새로, 얽박한 짚 벽 사이로 뼈를 얼어붙게 하는 추위가 새어 들어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아빠,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추워서 도저히 못 자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때 아버지는,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람 부는 곳에서 잘 때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이런 일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란다.” 라고 말해줍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8일 동안 그렇게 지내고 나면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팔일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조상들을 보호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톡톡히 배우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장막절이 되면 다시 이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막절

장막절은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야생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백성이 적게 잡아도 160만은 될 것입니다. 이 절기는 그 때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 절기 동안 자기들 집 옆에 작은 초막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보통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로 엮어서 초막을 만들었고, 절기 동안 온 가족이 집을

비우고 이 초막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팔 일의 절기 동안 처음 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큰 물통들을 메고 많은 계단을 내려가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의식을 행합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은 물통들에 물을 채운 후, 다시 계단을 올라와 수만의 군중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전 뜰로 올라오는 의식을 엄숙하게 행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뜰에 들어설 때에 군중들은 할렐루야(하나님을 찬양)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송시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지요.

군중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 제사장들은 바위로 된 성전 뜰에 물을 붓습니다. 큰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며 흘러내릴 때, 군중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내리쳤을 때 반석으로부터 생명수가 터져 나왔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장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보호해 주신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상징적이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끝날, 절기의 가장 큰 날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으로 물을 뜨러 내려가는 의식도 행하지 않고, 성전 뜰 방위에 물을 붓는 의식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을 지키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그 땅은 물이 흠족한 비옥한 땅으로서 다시는 반석에서 기적적으로 솟아나는 물이 필요없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팔 일째의 행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군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여 있었는데, 지난 칠 일 동안 성전 뜰 바위에 물이 부어져 흘러내리는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이 성전 뜰에 서서서 수만의 군중들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신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랍비가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서서 들어야 했고, 다만 선생님이 특별한 일을 선포할 때에만 일어서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고.

예수님은 육신의 목마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사랑에 대한 갈구나 안전에 대한 어떤 필요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한 영혼의 목마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의 목마름. 우리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는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갈구하는 영혼의 절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진공을 두어서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고 그것을 채우려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 뒤에 도사리고 있는 큰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공을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육체적이나 감정적인 경험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 진공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은 더 커지게 되고 더 절박해 질뿐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인간의 영혼의 절규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헨리 드러먼드 박사는 그의 저서 “자연과 초자연” 에서, 인

간의 원형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보려 애쓰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유전인자 안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깊은 불만감에 빠져있으며, 무언가 삶에 더 있어야 한다는 부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우주적인 목마름이며, 창조될 때에 그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창조된 것이지요. 로마서 8:20은, 피조물은 창조주의 디자인에 의해, 공백을 속에 가진 상태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갖게 하고자 우리 속에 공백을 두어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공백은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는 공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고 외치신 이유이며, 또한 이것은 가장 간단하고도 훌륭한 형태의 복음의 요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목마름을 만족시켜주실 수 있는 분이며, 그 분만이 만족과 완전함을 가져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점적으로, “너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44: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 것입니다.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헬라어 원문의 이 구절은 우리 성경의 번역보다 훨씬 다이내믹합니다. “*흘러나리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쏟아 나오다*” 라는 뜻의 단어이며, “*강*”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역수같이 쏟아지는 분류*”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더 가깝게 번역하면, “그 속에서 생수의 폭포수가 쏟아 나리라.” 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은 잔잔한 시냇물이 숲 속을 조용히 졸졸 흘러내리는 광경을 연상하게 하나, 헬라어 원문은 홍수와 같은 물이 폭포수처럼 산골짜기를 팔팔 흘러내리는 광경을 연상하게 합니다. “생수의 폭포수가 쏟아나리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요한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자기 코멘트를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 7:39). 요한은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는 성령이 생수의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리라는 뜻이란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봉사를 위한 성령충만

왜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성령이 당신에게서 잔잔한 시냇물처럼 흘러나오게 아니라, 막강한 폭포수와 같이 흘러 넘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느끼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만 계시서 일하시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성령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어서 우리만 축복하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언제나, 성령이 우리 주위의 세상으로 흘러 나가도록 저와 당신이 성령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성령이 막강한 폭포수와 같이 흘러 넘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수 년 전 컨퍼런스에서 한 연사가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4:7에서 바울이 말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감동적이고 막강한 설교를 하셔서, 저는 저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데 대한 많은 뉘우침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 나가면,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주의의 세상으로 쏟아져 나가도록 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축복 받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최종적인 역사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힘 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령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와 아직 하나님의 생명수 샘에서 물을 축이지 못한 사람들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은 믿는 자들의 다이내믹한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증거 하였을 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삼천이나 되었습니다.

성령이 믿는 자들의 삶의 다이내믹한 능력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온 사회가 변화를 받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져서 바르게 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고대의 테살로니가에 왔을 때, 그들을 꺼려한 시민들이 읍장들에게 달려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고 소리질렀습니다.(행 17:6). 그들은 천하를 거꾸로 뒤집어 놓아 어지럽게 한다고 평가했지만 그 평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천하는 이미 거꾸로 뒤집어져 잘못되어 있는 것을 사도들이 다시 뒤집어 바로 세우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헌신된 신자들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그릇으로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목마른 세상으로 성령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폭포수

우리의 삶으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올 때, 무엇이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타내야 합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갈 5:22). 성령이 흘러 넘칠 때, 그 사람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거센 생수의 폭포수처럼 흘러나와야 합니다.

헬라인들은 사랑이란 말의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한편 다른 하나는 영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영어에서나 한국말에서는 “사랑(love)” 한 단어가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손자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땅콩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땅콩도 사랑하고 손자들도 사랑하지만, 제가 두 가지 다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땅콩은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저의 아내나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헬라어로 가족간의 사랑은 “스톨게” 입니다. “필레” 는 보통 친구간의 사랑을 말하며, 육체적인 사랑은 “에로스” 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훨씬 능가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깊은 의미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신약성경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여 전혀 새로운 의미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떠나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의 차원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사랑과, 성령을 통해 우리 서로간에 가지고 있는 사랑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아가페” 입니다.

자, 당신의 어휘에 새로운 단어를 추가할 때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신은 그 단어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두 군데에서 우리를 위해 “아가페”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4에서 바울은 “아가페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은 후에도 온유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나는 참고 또 참고 또 참아 지금까지 참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해야지 더 이상 못참겠다.” 이것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아가페는 참고참고 또 참은 후에도 온유하여야 합니다.

아가페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않으세요? 자랑하지 않으세요? 교만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러신다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아가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가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가페는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아가페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부터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 종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아가페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 13:35).

이 성경구절에 있는 아가페란 단어를 모두 예수님으로 바꾸어도 쉽게 읽어 내려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셨으며, 예수님은 투기하지 않으셨으며, 자랑하지 않으셨고 교만하지 않으셨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셨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셨으며, 모든 것을 바라셨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때요? 부드럽게 읽어 내려가지요?

자, 이번에는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보세요. 막히지 않고 어디까지 일어 내려갈 수 있습니까? “척 스미스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사랑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서 보시기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22,23에서 바울은 아가페에 대한 두 번 째 정의를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라” 라고 시작해서, 여덟 가지의 다른 용어로 설명합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바울이 말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의 열매(단수)는 아가페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여덟 가지는 단지 사랑의 여러 면을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가페*를 아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가득해서 당신으로부터 흘러 넘치면 당신의 마음의 상태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표현할 수 없으리 만치 큰 기쁨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가페*가 가져다주는 기쁨입니다.

“화평”은 어떤가요? 화평은 사랑의 본질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당신의 삶에 자리 잡으면, 깊숙한 평화를 즐기게 됩니다. 누가 당신에 관해서 뭐라고 하든, 다른 편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든 당신은 상관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아가페*로부터 우러나오는 깊숙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의 자세입니다. “아, 저 분들 먼저 하게 하세요. 저는 좀 늦게 해도 괜찮아요.” 이러한 양보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참을 줄 아는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손자들이 저의 집에 오면 그 개 등에 올라타고 귀를 잡아당기고 꼬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도 가만 참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우리 개를 나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비” 혹은 “친절”은 사랑의 본질의 다른 한 면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비로 우신 예수님”으로 불리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가페* 사랑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을 자비롭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양선”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저는 양선을 위한 가장 큰 동기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많은 나쁜 짓을 할 유혹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처럼 담배를 피운다든지, 상스러운 말을 쓴다든지, 해서는 안 될 일들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는데, 기회가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그러한 짓을 한 것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에 대한 저의 사랑과 어머니의 저에 대한 사랑의 결합이 많은 사고로부터 저를 지켜준 것이지요. 상호적인 사랑이 저를 순수한 바른 길로 가도록 지켜주는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거하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해 저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온유”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같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절제” 혹은 “셀프 컨트롤”은 사랑의 안전장치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자기 절제를 합니다. *아가페*로 충만한 사람들은 흥분해서 날뛰지 않으며 어떤 경건치 못한 일들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성령이 당신의 삶 가운데 만들어주시는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이 여덟 가지의 사랑의 특징이 당신의 얼굴 앞에 놓인 거울에 하나하나 나타나야 합니다.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래, 이건 나야!” 하든지 아니면, “아이고, 이건 아닌데!” 중에 하나를 말하게 되겠지요.

당신의 삶 가운데 성령이 계신 참된 증거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증거를 방언하는 것에서, 혹은 예언하는 것에서, 혹은 지식의 말씀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사랑이 없이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가페*가 없이는 어떠한 성령의 나타나는 현상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성찬기 뚜껑들을 들고 두드리며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떠한 것들보다도, 어떠한 성령의 나타나는 현상보다도,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흘러 넘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터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자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상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영광스러운 일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들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은 좀 다릅니다.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성령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 무엇이라 부르든지 말입니다. 그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당신 내면의 진실입니다.

당신에 대한 저의 질문은, 이것이 당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가 말입니다. 당신은,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쳐서 그 결과로 폭포수와 같은 사랑과 능력이 나의 삶으로부터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가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의 삶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과 성령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의 능력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개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도움과 모든 자원이 제게 필요하며, 또한 그것들을 모두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신령한 은사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기도한 것같이, 저도 당신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막강한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삶으로부터 흘러 넘쳐 나가게 하십시오. 성령이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족을 터치하시게 하고, 당신의 이웃을 터치하시게 하고, 당신의 직장동료들을 터치하시게 하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터치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와, 영적으로 목 타는 이 세상의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수가 되어서, 그들의 목을 축이게 되는 것을 보게될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최고조의 경지

저는 최근의 철학자들이 소위 “최고조의 경지” 라고 일컬어지는 것에

대해 토론을 벌인 것을 보고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조의 경지의 일반적인 개념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떤 특별한 최고조의 경지에 대한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알고 있거나 경험해본 것들을 초월하기 때문에 설명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도저히 표현 할 수가 없는 경험이지요.

당신이 내일, 친구 철학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지난밤에 드디어 경험했어. 내가 최고조의 경지를 경험했단 말이야!”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들이, “그래? 우리한테 좀 말해 줘, 그게 어떠한 것인지.” 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인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최고조의 경지로서 당신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을 말해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토론에 참가한 철학자 중에 줄리언 헉슬리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조의 경지는 엘 에스 디 환각상태에서 죽을 때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실험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 에스 디 환각상태에서 죽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최고조의 경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고조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적어도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경험이었으니까요). 그후 많은 철학도들이 헉슬리를 따라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되자, 독일의 철학 교수들은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자살이 최고조의 경지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은 확실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지시켜야만 했습니다.

진짜 최고조의 경지

중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은, 크리스천의 삶이 바로 그 최고의 경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전 2:14)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귀머거리에게 교향곡의 아름다운 소리를 설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귀머거리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또, 소경에게 구름이 약간 낀 석양의 눈부신 광채를 설명하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자연인은 영적인 일을 이해하고 경험할 기관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누리는 기쁨과 평화를 설명하기가 힘든 이유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 가지고는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감지하는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사실 영적인 일들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면 머리를 긁적이면서,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저 사람 참 이상해! 자동차 월부금을 못 내서 차를 빼앗기면서도 싱글 병글이니 말이야. 저 것 봐! 지금 막 차를 끌어가는데도 저 친구는 여전히 웃고 있잖아! 저 친구 돌았어!”

아닙니다. 돈 게 아닙니다. 멍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자동차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만물을 이어받을 상속자인데 자동차 때문에 속상해 할 필요가 없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왜 염려합니까?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분명히 최고조의 경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고삐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해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하게 해드리며,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거부하고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열리게 해주시도록 맡겨드리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조의 경지인 것입니다.

열매는 관계를 통해서 온다.

열매는 관계의 자연적 산물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요 15:1,2).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일을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활기찬 관계를 가진 우리의 삶으로부터 열리는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관계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힙니다. 그러나 나무에서 잘린 가지는 죽고 말지요.

여러 해 전에 아리조나 윌리암스에서 어린이 여름수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 앞에 큰 종탑이 있었는데 그 옆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속상하게도 수양회는 언제나 7월과 8월에 열리기 때문에 그 때는 사과가 익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 사과가 여러 개 달린 가지를 하나 꺾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지를 들고 강의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집에 가져가서 나중에 익으면 사과를 먹기 위해 가지를 꺾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킁킁대면서 “그 사과는 절대로 익지 않을걸요!” 하고 소리 쳤습니다.

“아니, 안 익는다니! 무슨 소리야?”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사과들을 봐. 얼마나 먹음직스러우냐! 9월에 익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애플파이도 만들어 먹어야지.”

“그 사과들은 절대로 안 익을거예요!” 하면서 킁킁대었습니다.

“천만에, 틀림없이 익을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참, 멍청하시긴!” 아이들은 웃으면서 “가지가 꺾였잖아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네, 그렇지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가지가 꺾이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생명으로부터 잘려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영양과 에너지를 빨아들이듯이, 당신은 성령으로부터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흐르는 것이 성령을 통해 흘러나가는 것이며, 당신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도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 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펀전 목사님은 이 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이여,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연약해질 때에, 부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령에 관한 진리를 많이 가르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이야말로 교회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홀히 하면, 경건의 능력이 떨어지고 우리는 서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길에서 나를 다시 소성케 하소서.” 하고 부르짖읍시다.

안타깝게도 어느 교회든지 미지근해지면, 성령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은혜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성령의 불 세례를 다시 한번 받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무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스펀전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과 경건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과 은혜의 섬세한 눈으로 골라놓으신, 온갖 종류의 맛있는 음식들을 식탁에 잔뜩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들어갈지어다. 최고조의 경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경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어떡하냐구요?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즐기만 하십시오.

주님의 식탁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넉넉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